

부 지 요 결

사
회
사
업
원
론

복지요결

요결은 어떤 일의 '중요한 뜻이나 방법'입니다.
복지요결은 사회사업의 요결입니다. 사회사업 원리와 방법입니다.

2014년 11월 24일

사회복지정보원 welfare.or.kr
02-822-2643, 010-3080-8197 servant@welfare.or.kr

복지요결과 참조 문헌의 원고를 홈페이지에 파일로 공유합니다.

본문	부록
머리말 1	복지관 사회사업 34
줄거리 2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 44
사람과 사회 3	시설 사회사업 49
사회사업 개념 4	사례관리 60
사회사업 가치와 윤리 5	사회사업 조사 69
사회사업 이상 7	사회사업 기획 72
사회사업 철학 8	사회사업 평가 76
사회사업 주안점 13	대학생 실습지도 82
사회사업 방법 16	
사회사업가 27	적용 103
맺음말 33	용어 111
	속 이야기 122
	한계 206

머리말

복지요결은 사회사업을 근본으로부터 탐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다움과 사회다움을 생각하고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밝혀 사회사업 방법과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정책 활동이나 행정 사무나 유지관리 업무는 제외합니다. 노동 주택 의료와 같이 주로 정책이 좌우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문제, 정신질환 심리정서문제 이상행동 중독과 같이 주로 의사나 심리치료사나 전문 상담자가 다루는 문제, 고도 중증의 장애나 치매나 질환이 있는 사람을 수발하는 일, 영유아를 돌보는 일, 경쟁을 돕는 일도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참조 : 123쪽 '복지요결 연구 방법'

줄거리

1. 사람다움 사회다움 :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사회사업 개념 :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3. 사회사업 가치 : 사회사업이 중시하는 핵심 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4. 사회사업 이상 : 사회사업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이루고 누리는 복지를 지향합니다.
5. 사회사업 철학 : 사회사업은 복지를 보이지 않게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하고, 보편적이거나 평범하게 하고, 바탕이 살게 합니다.
6. 사회사업 주안점 :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강점 관계에 주목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어울림,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를 살리려 합니다.
7. 사회사업 방법 :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8. 사회사업가의 정체성 : 사회사업가는 주선하는 사람이고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얻게 하는 사람이고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발로 일하는 사람이고 구슬 꿰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회

사회사업은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게 돕고 싶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 같게 하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사람답다 하며 사람 사는 사회 같다 할 수 있을까? 사회사업으로써 잘 살릴 수 있는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합니다.

참조: 126쪽 '사람을 돕는 일인데...'

1. 사람다움

1)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는 대로 먹는 짐승,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에 가깝습니다.

2)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 인간입니다.

2. 사회다움

1)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 세계나 다름없습니다.

①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②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약자를 만나고 돕는 사회입니다.

2) 사람 사는 사회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 사는 것 같다 함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사업 개념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에서 보는 근본 관점 사회사업이 이리합니다.

이 개념의 요소는 당사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복지와 공생입니다.

사회사업 아니어도 흔히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게 하니, '당사자'만으로는 사회사업이라 하기에 부족합니다. '지역사회도 함께하게' 도와야 사회사업답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를 빼고 지역사회가 해주게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당사자도 함께하여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도와야 사회사업 근본에 들어맞습니다.

사회사업 아닌 다른 일들도 복지를 이루는 데 기여하니, '복지'만으로는 사회사업이라 하기에 부족합니다. '더불어 살게' 도와야 사회사업답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빼고서는 사회사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 명분이고 더불어 살게 돕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무와 열매 또는 샘과 물처럼 공생이 근본이고 복지는 말단이라, 사회사업은 한마디로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복지요결에는 사회사업이 이 근본 관점 사회사업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을 가리키는 대목도 있고, '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가리키는 대목도 있습니다.

참조: 132쪽 '개념을 제대로 정의하려면' | 111쪽 '당사자', 113쪽 '지역사회' | 114쪽 '복지, 사회복지, 복지사업, 자원봉사, 사회복지실천'

사회사업 가치와 윤리

1. 사회사업 가치

가치는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 그렇게 여기는 속성입니다.

사회사업 가치는 복지를 이루는 데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 사회사업이 그렇게 여기는 속성입니다.

그 핵심은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자주성은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는 속성입니다. 공생성은 함께 사는 속성입니다. 참조: 135쪽 ‘공생성’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까닭은, 첫째,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것이야말로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명실상부케 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삶 그 실질이 자주성이고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실질이 공생성입니다. 자주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삶이라 할 수 없고 공생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사람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사회사업 윤리

첫째, 실천 윤리

돕는 행위에서의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사회사업 가치입니다.

둘째, 직업윤리

직장이나 직업에서의 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기관의 윤리 규정이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따위입니다.

셋째, 일반 윤리

직장이나 직업 밖에서의 개인윤리 또는 사회윤리입니다. 그 준거는 개인 양심이나 신앙, 사회 통념이나 법 관습 따위입니다.

사회사업 윤리는 좁게는 실천 윤리이고, 넓게는 직업윤리와 일반 윤리까지 아우릅니다. 다만 직업윤리와 일반 윤리는 어려워서 실천 윤리만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 실천 윤리는 사회사업 가치에 달렸습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적어도 해치지 않는 겁니다.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지 자문해 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사업 윤리의 본질은 결국, 사람으로 보는가? 사람답게 도우려는 생각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사업 이상

이상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사회사업 이상은 사회사업이 바라보는 목표 또는 방향입니다.

사회사업 이상도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서 찾습니다. 다만 ‘사회사업’ 이상이라, 특정 당사자 개인을 넘어 대상자 전체, 나아가 사회적 약자 일반에 적용할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공생이 근본이고 복지는 말단이라, 공생 쪽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1.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약자를 만나고 돕는 사회입니다.

2.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는, 눈물 고통 슬픔이 있고 가난 질병 장애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웃이 |동무가 있고 인정이 있어 살 만한 사회입니다. 불편하거나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혼자서는 아닌 사회입니다.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붙이고 살 만한 곳, 그런 마을 동네 골목, 단지 동 층, 직장, 학교입니다.

사회사업 이상은 이루고 또 이루어도 마침이 없고 가고 또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리므로 발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지거나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되어야 발전했나, 발전하고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참조: 139쪽 ‘발전’

사회사업 철학

사회사업 철학은 사회사업 옳게 하려는 정신 또는 사회사업 원칙으로 삼는 생각입니다. 사회사업 정도를 찾고 정도인지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철학이 없으면, 사회사업 옳게 하려는 정신이 없고 원칙으로 삼는 생각이 없으면, 사회사업 정도를 찾지 않고 정도로 행하는지 성찰하지 않는다면, 어찌 바르게 갈 수 있으며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철학이 없으면 '권도'나 부리게 될 겁니다. 권도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방도입니다. 현실을 내세워 그럴듯하게 정당화하지만, 실은 철학이 없어서 그저 시세에 쫓기거나 명리를 좇아 움직이는 임기응변에 가깝습니다. 아니, 중심에 원칙이 없으니 변동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마저 대개 미봉 땀질이라, 여기를 꿰매면 저기가 터지고 이곳을 때우면 저곳이 새기 일쑤입니다. 꿰매거나 때운 자리가 더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쉽고 빠른 듯하나 실상은 힘들고 더딘 길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 그 '사람다움 사회다움'에서 나오는 철학,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는 철학,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에 부합하는 철학, 사회사업 실무에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과 철학에 맞게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진되지 않을 저력도, 타성에 젖지 않을 열정도, 이런 확인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참조: 복지야성 36쪽 '소진과 타성'

1. 보이지 않게 합니다.

복지사업으로 보이게 도우면, 사회사업가는 빛나는데 당사자는 구차해 보이거나 사회사업가가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자존심 체면 품위 따위 지키기 어렵습니다. 대상자로 전략하여 하릴없이 그저 '애 같은 노릇, 환자 노릇, 약자 노릇' 하기 쉽습니다.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사회사업가가 복지를 이루어 주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도우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후원자나 봉사자로 돕게 하면, 곧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밖에서 돕게 하면, 복지사업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도우면, 당사자나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이루게 도우면,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돕게 하면, 복지를 이룸이 복지사업으로 보이지 않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돌아옵니다. 자존심 체면 품위가 살고 당당해집니다.

2.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합니다.

우물과 시내는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물론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자원을 줍니다. 땅을 살리고 못 생명을 기릅니다. 사람들이 어울립니다. 소식 지혜 위로 격려, 온갖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을 모아서 수도를 통해 급수하니 우물이 마르고 시내가 죽어 갑니다. 그 좋은 기능 다 사라집니다. 깨끗한 물 좋은 물 공급한다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나 안심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를 놓아 누구는 생색내고 누구는 돈을 벌지만 누구는 종속됩니다.

복지도 그러합니다. 복지 저수지에 모아서 복지 수도를 통해 제공하니, 복지 우물이 마르고 복지 시내가 죽어 갑니다. 이웃 우물과 인정 시내에 있던 온갖 복지 기능이 사라집니다. 이것저것 나누거나 빌려주거나 함께하거나 도와주던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약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문제로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르며 더 자주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복지 수도를 놓아 누구는 생색내고 누구는 돈을 벌지만 누구는 종속됩니다.

이러므로 복지 저수지나 복지 수도에 공들이기보다 지역사회 복지 우물과 복지 시내를 살리는 데 주력합니다. 무너진 우물을 고쳐 짓거나 새로 만들고 이리저리 물길을 내어, 복지가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샘솟고 지역사회를 굽이굽이 돌아 흐르게 합니다. 복지가 당사자와 들레 사람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 두루 스미어 샘솟고 흐르게 합니다.

참조: 복지야성 17쪽 '유비쿼터스 복지'

3. 보편적이거나 평범하게 합니다.

1) 보편적이게 합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약자를 도울 때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고, 차츰 더 다양한 수단을 더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돕는 겁니다.

약자 전용 복지 수단, 그거라도 있으니 고맙고 그것마저 없으면 아쉬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칫 약자가 사회에서 분리되고 가족과도 멀어질 수 있으니 약자 전용 복지 수단을 활용한다면 임시로 최소한으로 함이 좋겠습니다.

2) 평범하게 합니다.

약자의 복지를, 그 종류 수준 시기 방법 형식 조건 따위를, 여느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같거나 비슷하게, 합니다.

의식주, 용품, 인간관계, 호칭, 외모, 언행, 가정생활, 사회 활동, 운동, 여가 활동 따위를 여느 사람처럼 할 수 있게, 하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도 여느 사람과 같거나 비슷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용하게, 돕습니다.

가난하다고, 시설에 산다고, 장애인이라고, 열외로 치거나 별나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시설에 살거나 장애가 있어도 제 나이에 어울리는 노릇이나 경험을 여느 사람처럼 그만한 때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하게, 돕습니다. 대조: 56쪽 '긍정적 차별'

4. 바탕이 살게 합니다.

문제나 욕구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이 문제만 아니라 다른 때 다른 문제나 욕구, 다른 사람의 복지까지 두루 대응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복지 바탕을 살리는 겁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와 복지 바탕을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겁니다.

자주할 수 있는 주체의식과 역량,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과 관계망, 이것이 당사자의 복지 바탕입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 특히 약자와의 관계와 소통, 이것이 지역사회 복지 바탕입니다.

이 복지 바탕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고 지탱하며, 문제의 근원을 막고 온갖 복지를 이루는, 근본책입니다. 참조: 복지소학 20쪽 '防其源 治其本'

당사자와 지역사회와 복지 바탕을 놓아두고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써 문제나 욕구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 ① 당사자는 주체의식과 역량이 약해지고 자기 삶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구차해집니다. 사회성과 관계망이 줄어들고 지지체계가 허술해집니다. 갈수록 취약해집니다.
- ② 지역사회는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고 정겨운 사람살이를 잃어 갑니다.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 ③ 사회사업가는 부담이 늘고 감동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사회사업 주안점

1. 생태

생태는 당사자와 환경이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사회사업이 주목하는 환경은 지역사회 곧 돌레 사람과 복지 수단입니다. 참조: 113쪽 '당사자의 지역사회'

1) 당사자와 돌레 사람 사이의 생태

사회사업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비롯한 돌레 사람과의 어울림에 주목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돌레 사람이 잘 어울리게 돕습니다. 당사자와 돌레 사람 사이의 관계 소통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2) 당사자와 복지 수단 사이의 생태

사회사업은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과의 조화에 주목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지역사회 복지 수단이 서로 잘 맞게 돕습니다. 당사자가 지역사회 복지 수단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돕고, 지역사회 복지 수단이 약자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돕는 겁니다.

사회사업은 이 생태에 미칠 영향에 주의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수단 자원 주체를 되도록 이 생태 안에서 찾습니다. 생태 안에서 찾는 편이 부작용이 덜합니다. 수월하고 효율적이고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에 잘 들어맞고,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참조: 복지야생 11쪽 '안전장치'

2. 강점

사회사업에서 강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참조: 146쪽 '강점과 약점, 장점과 단점'

사회사업은 당사자의 '강점'에 주목하고,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합니다. 문제보다 강점에 주목하여 일을 벌이고 사회사업가 쪽 강정보다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도우면, 당사자가 당당해집니다. 자존심 체면 품위가 쉽니다. 당사자 쪽에 칭찬 감사 돌아갑니다. 복지를 이룸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그래, 이래야 사람이 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하여 일을 벌이고 당사자 쪽 강점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대상화하기 쉽습니다.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해야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주체로 세우게 됩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당사자의 자주성이나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는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거나 사회사업가는 빛나는데 당사자는 무색해지기 쉽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전문가 시혜자로 행세하거나 당사자가 구차히 약자 노릇 환자 노릇 하는 꼴 되기 십상입니다. 평지풍파 일어납니다. 참조: 29쪽 '평지풍파' | 복지야성 '복지기계'

이러므로 사회사업가 쪽 강점 활용은 삼가고 조심 또 조심합니다. 되도록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하고 부족한 만큼 거들어 줍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활용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보조 수단으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문제를 다룰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참조: 148쪽 '임의로 일을 만들 수 있다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면'

3. 관계

1) 빈약한 관계는 온갖 문제의 근원이고, 좋은 관계는 온갖 복지의 바탕입니다. 관계만으로 문제나 복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으나 관계야말로 문제나 복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관계에 주목합니다. 관계를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합니다. 관계로써 문제를 막고 관계로써 복지를 이룹니다.

참조: 복지소학 45쪽 '見' | 복지야성 46쪽 '무엇이 근본책입니까?'

2) 관계는 '사람다움 사회다움'의 핵심 속성입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고 지탱하는 바탕이자 안전망입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가 그러합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는 지금 이 일뿐 아니라 다른 때 다른 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고, 지역사회 이웃 관계는 이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바탕입니다. 참조: 12쪽 '바탕이 살게 합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 밖에서 따로 도와주면 이 관계 곧 사회적 지지체계, 사회적 안전망이 허술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문제로 더 자주 더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참조: 복지야성 8쪽 '소유·존재 모순'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관계에 주목합니다. 관계를 돕고 관계로써 돕습니다. 사회사업 핵심 소관인 선린의 복, 공생성, 사회적 복지, 사회적 사업, 모두 관계를 돕는 일이고 관계로써 돕는 일입니다.

참조: 115쪽 '사회적 복지와 사회적 사업', 155쪽 '관계' | 복지야성 44쪽 '사회사업 본분'

사회사업 방법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당사자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되고, 이렇게 해야 잘됩니다.

참조: 1쪽 ‘복지요결 적용 범위’

이렇게 하면 사람다움 사회다움과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꼭 들어맞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사업 실체가 근본에 들
어맞아야, 사회사업 제대로 했다, 제대로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니 당사자와 지역사
회가 버젓해지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돌아옵니다. 복지
를 이루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
동하여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됩니
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고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높일 때, 사회사업 잘했다,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은? 서류에 실적으로 꾸며 넣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사업이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
가 복지를 이루니 사회사업가가 하는 일은 그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
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일에 기록이나 행정 사무를 더할 뿐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니 후원금이나 사업비
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원금이나 사업비를 받고 쓰고 뒤처리
하는 행정 사무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참조: 161쪽 ‘사회사업 방법의 조건’ | 복지야성 29쪽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까?’,
34쪽 ‘알아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59쪽 ‘기술로써 함이 현실적일까요?’

1. 인사

당사자에게 인사하되 ‘당사자의 곳’에 찾아가 인사합니다. 가족을 비롯한 둘째 사람, 당사자가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에 관련된 사람까지 찾아가 인사하면 더욱 좋습니다. 인사하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살려 쓸 강점이 보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그려집니다. 잘 돕고 싶은 마음, 꿈과 열정이 생깁니다.

지역사회에 인사하되 기관에 도움을 주었거나 기관|부서·사업과 관계있는 사람부터 찾아가 인사합니다. 지역 유지나 마을 어른, 주민 지도자, 인근 기관 사회사업가에게 두루 인사 다닙니다. 인사하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판세를 알게 되고 지역 정서와 문화를 알게 되고 지역에서 처신할 바를 알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살려 쓸 강점이 보입니다.

인사 받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 합니다. 이해 옹호 협력 늘어나고 오해 비난 견제 멀어집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지역 유지나 어른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신입 전입은 인사 다니기 좋은 명분입니다. 처음 한두 달쯤 인사만 다녀도 좋겠습니다. 그 후에도 기회를 살리고 만들어서 수시로 인사 다닙니다. 참조: 복지소학 119쪽 ‘부임길에는’

이렇게 인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 사회사업 실마리이고 밑천입니다. 사회사업하는 열정 용기 저력 자신감 여유의 배경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2.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철학적이고 방법입니다. 참으로 그 뜻이 깊고 실익이 무궁합니다.

첫째,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철학’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 그 사람 다움을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사람답게 도우려는 정신의 발로입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자주하는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는 복지 본성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자주하려는 마음, 책임 의식, 자존심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 공동체 의식, 동정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복지 역량과 자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물질 재능 경험 정보 지식 지혜 체력 시간 공간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복지 본성과 역량과 자원이 복지 자연력이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이 자연력을 생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그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하는 방법입니다. 힘을 적게 들이고도 실효는 많이 얻는 방법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는 복지를 넉쿨째 불러들이는 마법입니다. 복지가 넉쿨처럼 뻗어나가는 뿌리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과 함께 지혜 지식 기술 재화가 따라오고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됩니다. 일이 술술 풀립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사회사업에 문리가 트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되고, 물을 것 묻게 되고 의논할 일 의논하게 되고 부탁할 것 부탁하게 됩니다. 보아야 할 것 보게 되고 들어야 할 것 듣게 되고 알아야 할 것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관계와 조합이 보이고, 여기저기 길이 보이고, 이쪽저쪽 연결고리가 보이고, 이런저런 일이 그려집니다. 이리저리 주선하고 소통시키고 수습할 수 있게 됩니다. 갈수록 요령이 늘고 재미도 더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사람들 속에 도우려는 마음과 도울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사자에게 이런저런 강점과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역사회에 무궁한 자원과 기회와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다지 캐는 광부처럼, 황금 어장 만난 어부처럼,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이 살아나서 다음에는 더 쉽게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수록 무슨 일이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더 쉬워지고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니 사회사업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참조: 110쪽 '티핑 포인트' | 복지소학 48쪽 '乞言', 55쪽 '勸分'

1) 묻기|여쭙기

① 개별 상담, 사례관리

적극적 복지는 물론이고 소극적 복지를 이루려 할 때도 그와 관련된 정보 의견 경험 계획 강점 방법 따위를 묻습니다.

그 복지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하고 있는지 할 생각인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활용할 만한 강점 자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무엇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알아보게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거나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둘레 사람과 의논하게 합니다.

②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 서비스는 이리저리한테 어떤지, 이런 서비스 원하는지, 달리 어떻게 서비스하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서비스 이용 의사를 물을 때는 그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잘 알고 판단 선택 대답할 수 있게 묻습니다.

③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원하는지, 이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기획 제안 참여 활용해 보면 어떻겠는지, 묻습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하게 합니다. 큰 프로그램이라면 기획단 따위의 조직을 만들어서 자료를 찾아보고 둘레 사람에게 물어보고 서로 의논하여 기획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선택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만든 프로그램, 가족이 만든 프로그램, 지역주민 개인이나 지역사회 조직이 만든 프로그램, 사회사업가가 만든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선택하게 합니다.

참조: 41쪽 '복지관 프로그램', 45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2) 의논하기

당사자 의견을 존중한다고 당사자가 원하면 다 좋다는 식으로 그저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회 의견이라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 곧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과 형편,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기회비용 따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묻기만 하지 않고 또한 의논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듯, 의논하지 않고 묻기만 하는 건, 애 취급하거나 아첨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지나치게 부모 같거나 지나치게 아이 같은 자세로 보입니다.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해 주는 것보다야 낫지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물어볼 뿐 아니라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그 일을 이루게 돕는 겁니다.

당사자와 사회사업가의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함이 좋을까요?

- ① 당사자 의견을 존중하되, 사회사업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서 '마땅하다,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따릅니다.
- ② 사회사업가 의견이라도, 설명해 주거나 알아보게 하여, 당사자가 수긍할 때 실행합니다.
- ③ 의견 차이를 다루어도 될 만한 관계인지, 그럴 만한 사람인지, 헤아립니다. 그렇지 않은데 다른 의견을 말하면 저항하거나 내맡기려 들 수 있습니다.

참조: 165쪽 '자기 결정권', 71쪽 '욕구 조사'

3) 부탁하기

① 당사자에게 부탁하되 할 수 있는 한 당사자가 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의치 않으면 같이 합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아서 대신 해 준다면 그에 대해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그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함이 좋습니다. 다 해 주게 되더라도 그 래도 당사자가 주인 되는 당사자의 일이게 합니다.

② 지역사회에 부탁하되 당사자의 둘레 사람에게 부탁드립니다.

둘레 사람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함께하게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께'(참조: 54쪽)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야 저마다 제자리 제 본분에 충실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살이 바탕이 튼 싹해지고 그래야 복지도 자연스러워집니다.

③ 자원의 탐색부터 개발 활용 평가까지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준비 진행 평가까지 반드시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다 해야 하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때나 수 준은,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당사자나 지역사회 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되도록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하게 부 탁하는 겁니다.

④ 부탁한다는 건 알아서 하라고 맡겨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부탁하되 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거들어 줍 니다. 때때로 살펴서 조정 중재하거나 칭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무책임한 처사에 가깝습니다. 일을 미룬다거나 이용한다고 생 각할 수 있습니다.

3. 감사

감사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사회사업'의 마땅하고도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루었다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서로 할 일이지만, 당사자와 지역사회 쪽에 돌리는 감사가 더 많아야 사회사업 잘하는 겁니다.

감사는 당사자나 지역사회의 수고 도움 나눔 배려 친절, 잘한 일, 성과를 알아주는 겁니다. 잘했다 고맙다 표현하는 겁니다.

꾸민 말이나 이벤트로 하지 않고 그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진심을 담아 소박하게 표현함이 좋습니다. 간접 표현과 우회 표현도 좋습니다. 간접 표현은 관계가 대등하기 바라거나 오히려 겸비하려는 자세에 가깝고, 우회 표현은 둘레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하되 둘레 사람에게 알려 둘레 사람이 하게 하면 좋습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가 좋아집니다. 지역사회에 감사하되 당사자가 하게 돕거나 같이 하면 좋습니다. 당사자의 인격이 올라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감사하고 활동을 마칠 때도 감사합니다. 기관을 떠날 때, 부서나 업무가 바뀔 때, 서비스를 종결할 때, 사업을 그만둘 때, 두루 감사 인사 다닙니다. 기관 기념일이나 명절이나 연말도 두루 인사 다니기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 인사를 받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또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사회사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사회사업은 반을 넘습니다.

4. 약자일수록 더욱 정성스럽게

중증 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이나 술 중독자나 어린아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대답하지 않으니, 알아듣는 것 같지 않으니,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1)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압니다. 아무리 약자라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존중하는지 귀하게 대하는지, 압니다. 짐승도 본능으로 느끼고 압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치매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술 중독자든 어린아이든, 오래 도움을 받다 보면 느느니 눈치입니다. 말은 못해도 눈치는 고단입니다.

2)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회사업가의 평소 언행이 당사자의 언행에 물어냅니다. 특히 지적장애인끼리 주고받는 대화에 곧잘 드러냅니다.

3)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당사자를 귀하게 대합니다. 적어도 함부로 대하지는 않게 됩니다.

4)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다 보면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에서 긍정적 기운이 나옵니다. 이 기운이 사람을 움직이고 일을 이룹니다.

이러므로 약자, 특히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사람을 대하여는 더욱 예를 갖추어 더욱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소학 66쪽 '약자를 대함' | 복지광세 96쪽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5. 당사자 중심

당사자의 곳에서, 당사자로써,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1) 당사자의 곳에서

당사자가 사는 곳이나 자주 가는 곳에서,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일상 생활 속에서, 당사자 본인의 실제 생활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2) 당사자로써

당사자가, 당사자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 ① 당사자가 주체로 행하게, 주인 되게, 합니다.
- ② 당사자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하되, 다른 자원이라도 당사자가 찾아 활용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당사자가 하게 돕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같이 합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아서 대신 해 준다면 당사자와 의논하여 심부름처럼 해 줍니다.

3) 당사자의 삶이게

복지를 이룸이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내 삶이고 내 복지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더디고 힘들어도, 어설피고 부족해도, 위험해도, 실수 실패해도, '자기 삶'을 살게 합니다. 당사자의 책임이고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당사자의 삶이 복지사업에 가리지 않게 합니다. 복지사업보다 당사자의 삶이 돋보이게 합니다.

참조: 111쪽 '당사자' | 복지야성 66쪽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삶이게'

6.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1)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2) 지역사회로써

지역사회가, 지역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① 지역사회가 함께하게 합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만날 둘레 사람이, 하는 김에 같이 하게 함이 좋습니다.

당사자와 의논하지도 않고 지역사회를 끌어들이거나 당사자를 빼고 지역사회가 다 해 주게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당사자와 먼저 의논하고, 당사자도 함께하여 당사자가 주인 되게 도와야 사회사업 근본에 들어맞습니다.

② 지역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하되, 수단은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복지 수단으로써 이루게 하고, 자원은 저마다 제자리에 살려 쓰게 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운영 담당 이용하는 일반 복지 수단으로써 돕게 함이 좋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원이나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활용하여 돕게 함이 좋습니다.

3)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복지를 이룸이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복지사업보다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돋보이고 복지기관보다 지역사회 지역 주민이 빛나게 합니다.

참조: 113쪽 '지역사회', 164쪽 '지역사회 기반'

사회사업가

1. 주선하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주선하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회사업가의 지식 재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면 사회사업가는 대단해 보이지만 당사자와 지역사회는 무능하거나 무정해 보이고, '복지사업'은 빛나지만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는 무색해지기 쉽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가는 아는 것 많고 재주 많아도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야 자주성과 공생성이 살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버텨해집니다. 그래야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돌아갑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아는 것 없고 재주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만물 박사 팔방미인 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많고 재주 많아도 사회사업가가 이룰 수 있는 복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룰 수 있는 복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나 재주로써 돕는다면, 그 지식 그 재주가 그의 그릇 그의 한계입니다.

참조: 복지소학 6쪽 '明明德', 33쪽 '德者不器' | 복지야성 29쪽 '지식 기술이 있습니까?', 34쪽 '알아야 잘 도울 수 있을까요?', 59쪽 '기술로써 힘이 현실적일까요?'

2. 거들어 주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는 데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약한 만큼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역량이 마치 꺼져 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비켜, 우리가 해 줄게.’ 해도 될까요?

사회사업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회사업가는 꺼져 가는 심지를 돋우고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자, 꺼져 간다고 덮어 버리거나 상했다고 꺾어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해지는 것을 막아 주고 받쳐 주고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자, 허물어 버리고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대신 복지를 이루어 주는 노릇이 ‘사회사업가로서는’ 마땅찮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회는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 사는 사회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가가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해 주는 편이 나은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가를 ‘대신해서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람, 복지대행업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 복지야성 60쪽 ‘사회사업가가 해 주는 편이 현실적일까요?’

3. 얻게 하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얻어다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찾게 돕는 사람이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보거나 배우게 돕는 사람입니다. 참조: 142쪽 '생선 사회사업'

당사자의 자원으로써 복지를 이룸이 좋지만 다른 자원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을 얻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당사자가 얻게 함이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함께하여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얻어다 주되 당사자와 의논하여 심부름처럼 함이 좋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줄 수도 있습니다. 주는 편이 최선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가를 얻어다 주는 사람, 찾아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주는 노릇 하면, 평지풍파 일어나기 쉽습니다.

① 안 받거나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은 배 아프고 아깝고 아쉽고 섭섭하니 평지풍파이고, 받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② 받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부끄럽게 여기니 평지풍파이고, 더러는 굶실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드니 평지풍파입니다.

③ 주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니 평지풍파이고, 다음에 또 주어야 하고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니 평지풍파이고, 비교당하거나 시비에 휘말리니 평지풍파이고, 욕먹거나 위협을 받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참조: 12쪽 '사회사업가 쪽의 것으로 돕다 보면' | 복지야성 1쪽 '복지기계'

4. 주게 하는 사람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가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 주민의 것을 가져다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이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주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 주민은 사회사업가의 ‘복지사업’을 위한 자원이나 보급 부대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사람살이’의 주체입니다. 참조: 복지야성 70쪽 ‘지역 주민이 자원?’

사회사업가를 통해서라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는 받아서 전해 주는 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사업가를 ‘전해 주는 사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흘러야 할 복지를 모아서 제공 하는 복지 저수지, 복지 수도 노릇 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 10쪽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 복지야성 51쪽 ‘후원 봉사’

5. 발로 일하는 사람

사회사업은 발바닥을 통해 옵니다.

사회사업하는 열정 지혜 자신감 저력, 모두 발바닥에서 나옵니다.

발바닥 닿도록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려 쓸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그려집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 마음, 선한 근심과 고뇌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사회사업가이고 그래야 사회사업가입니다.

발바닥 닿도록 다녀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야 보고 듣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지혜가 생깁니다. 걸음을 멈추면 가슴이 식어 버리고, 가슴이 식으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다른 일은 어떤지 몰라도 사회사업은 이리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발로 일하는 사람, 곧 사회적 사업으로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사회적 일꾼입니다. 참조: 115쪽 '사회적 사업, 사회적 복지'

6. 구슬 꿰는 사람

분업화 영향으로, 복지 제도 확대로, 인간봉사직 증가로, 남을 돕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멀어져 갑니다.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에서 멀어져 갑니다. 전문가나 정부나 시장의 일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든 전념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궁리하고 준비하고 종종 적잖은 시간 물질 마음 힘을 써야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일에 나서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한때 여력이 있어 의욕적으로 나설지라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이 아니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생활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고, 책임질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곧 알게 됩니다. 돕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나 믿기 어려운 시대,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돕는 일을 주선하고, 때때로 살펴서 조정 중재하거나 칭찬 감사로 북돋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회사업가입니다.

참조: 156쪽 '이웃 관계의 독립', 168쪽 '주민조직의 독립'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습니다. 그물이 삼천 코라도 버리가 으뜸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자원이 서 말이라도, 이웃이 삼천 코라도, 꿰어서 보배를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잘 쓰이게 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회사업가입니다.

맺음말

사회사업의 요결, 그 대략이 이러합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하며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보는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 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고, 사회사업이 중시하는 핵심 가치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입니다.

이런 사회사업의 이상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요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이며, 그 철학은 복지를 보이지 않게 지역사회에 두루 스미어 흐르게 하고 보편적이거나 평범하게 하고 바탕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우려 할 때 주목 주의하게 되는 점은 생태 강점 관계, 곧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어울림,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입니다.

이 사람다움 사회다움과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서 나오는 실천 방법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이렇게 돕는 사회사업가는 주선하는 사람이고 거들어 주는 사람이며, 얻게 하는 사람이고 주게 하는 사람이며, 발로 일하는 사람이고 구슬 꺾는 사람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 사회사업 방법과 사회사업가의 정체성 - 이와 같이 사회사업의 요결을 여러 갈래로 이야기했으나 어느 것이든 그 가리키는 바 실체는 동일하니 곧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입니다.

복지관 사회사업

1. 복지관

1) 조직

복지관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회사업 조직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기관입니다. 지역사회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기관 곧 지역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기관입니다. 이로써 지역사회를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하고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하는 기관입니다.

참조: 113쪽 '지역사회', 116쪽 '지역사회복지'

2) 시설

복지관은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시설입니다.

복지관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렇게 조직 정체성은 빼고 '시설'로만 정의해도 될까요? 시설 정체성으로는 괜찮을까요? 서비스 제공 기능을 부정할 수 없고 제공도 하기 나름이지만, 이것으로 지자체 주민센터 종교단체 영리업체 따위와 구별|경쟁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곳이 복지관만큼 보조금 후원 봉사 면세 따위의 지원과 특혜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참조: 167쪽 '복지관 공간' | 복지경영 '복지관 시설 활용'

2.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 조직을 만들거나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 하여 복지를 이루는 사회사업 '방법'입니다.

'사업'이라면,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지역사회 조직을 만들거나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하는 일, 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또는 여러 불특정 사업의 사회간접자본을 구축 관리하는 '기반사업'에 가깝습니다.

지역사회조직 부서가 따로 있다면 이렇게 함이 좋겠습니다.

- ① 지역사회 조직과의 교류 협력이나 공동 대응 같은 연대 활동을 주관합니다.
- ② 지역사회 조직을 만들거나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할 일인데 여러 사업이 관련되는 일, 소관을 정하기 어중간한 일을 주관합니다.
- ③ 지역사회 조직을 만들거나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하여 이루면 좋을 다른 부서 사업을 그렇게 하게 주선하거나 거들어 줍니다. 다만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과 함께하여 이루기 좋지 않은 사업도 있으니 조심합니다. 참조: 168쪽 '주민조직, 그렇게 함이 좋을까요?'
- ④ 지역에 두루 다니다 보면 사람이 보이고 조직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조직하면 좋겠다, 이런 조직을 이렇게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조직과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그려집니다. 이로써 주민을 조직하거나 주민조직을 지원하거나 주민조직과 함께하는 일을 '사업'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 ⑤ 다음에 제안하는 생활복지 운동, 자유 활동, 소식지 사업도 지역사회조직 부서가 주관하거나 지원함이 좋겠습니다.

참조: 164쪽 '지역사회 기반', 168쪽 '주민조직의 독립', 170쪽 '지역 주민이어야 하는가?' | 복지야성 70쪽 '지역 주민이 자원?'

2) 생활복지 운동

복지관 사회사업가는 어느 사업이든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지역사회가 이루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강물에 돌 하나 던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대중을 상대하는 생활복지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복지 활동, 예를 들어 이렇게 해 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아이를 안아 주세요. 들어올 때 나갈 때,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런 오락 한번 해 보세요.

아이가 열이 날 때는 이렇게 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는 자녀에게 |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우리 복지관,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우리 동네 이웃들의 이런 모임, 이런 활동, 이렇게 누리요.

아파트 승강기에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로 전화해 보세요.

한 번에 한 가지, 더러는 여러 번에 걸쳐 한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한 달에 한두 시간씩, 복지관의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목 좋은 곳에 홍보 막을 펼치고 ‘알림쪽지’를 나눠 줍니다. 알림쪽지 앞면에는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삽화 몇 장면과 문구 두어 개를 넣습니다. 뒷면에는 복지관이나 지역사회의 복지 활동을 소개합니다. 붙임 딱지나 그림엽서나 책갈피나 소책자로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즉석에서 같이 할 만한 ‘재밋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모든 복지기관이 연합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더러는 복지관 이용자나 주민조직이나 지역 업체와 같이 합니다.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꾸준히 이어 갑니다.

3) 자유 활동

자유 활동가는 복지관에서 지정 사업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회사업가입니다.

출퇴근을 자유롭게 합니다. 복지관에는 필요할 때만 갑니다. 행정업무는 대부분 집이나 현지에서 인터넷과 정보기기로 처리합니다. 활동 기록은 이야기 형식으로 정리하여 게시판에 올립니다. 참조: 복지경영 '현지 완결형 근무'

사업비나 공간이나 물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현지에서 개발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복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일도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지역사회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역사회를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하는 일,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일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활동은 어떨까요?

- ① 동네나 골목에서, 아파트 단지나 동이나 층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나눠 먹기, 도시락 싸서 소풍 가기, 공연 보러 가기, 만두 빚기, 골목 장터, 반찬 마실, 차 마실을 주선합니다.
- ② 독서클럽, 시 낭송 동아리, 클래식 동아리, 화초 동아리, 텃밭 농부 모임, 애견 동아리, 책 읽어 주는 남편 모임을 주선합니다.
- ③ 주민의 직업이나 취미활동으로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묻거나 제안하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복지관마다 한 사람씩 자유 활동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조직 부서의 사회사업가들이 돌아가며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나 한 달에 며칠씩 자유 활동가로 외근하는 건 어떨까요? 지역사회에 두루 다니며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다 보면 할 일이 보이고 방법이 보일 겁니다. 참조: 19쪽 '사회사업에 문리가 트입니다.'

4) 소식지, 지역사회복지신문

① 주체

지역사회조직 부서에서 복지관 이용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기자단을 만들어 함께하면 어떨까요?

② 내용

생활복지 운동 이야기, 자유 활동으로 주선하는 모임 이야기, 지역 사회의 이런저런 복지 활동 이야기, '야~ 사람 사는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다. 해 보자.' 하게 되는 이야기, '이야기'를 취재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복지 당사자와 돌래 사람들이 복지를 이루는 이야기,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되는 이야기, '이야기'를 취재합니다.

직원들의 실천 기록 가운데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드러내는 이야기(참조: 78쪽 '정합성의 증거')를 찾아 취재하거나 그 기록을 소식지 기사로 편집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③ 제작 배포

이야기해 준 사람과 이야기 속 사람들에게 원고를 보여 주고 다듬어서 인쇄합니다.

이 사람들과 기자단이 소식지를 가져가서 나눕니다. 돌래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나눕니다. 자기 일터에 놓고 수시로 나눕니다.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소식지, 자기가 만든 소식지는 배포하는 데도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요? 주민센터는 물론이고 병원 약국 교회 식당 미용실 카페 복덕방 은행 학교에 소식지 비치할 부탁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 소식지라면 그쪽에도 유익하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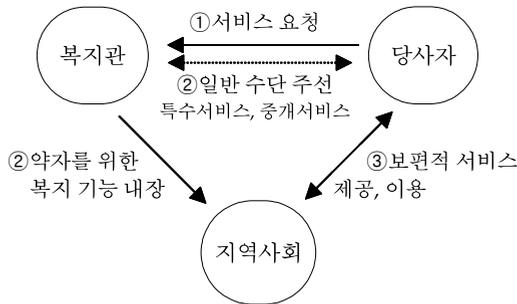
참조: 김종원 선생님의 책 ①홍보로 사회사업하기 ②사회복지 홍보를 말하다

3. 서비스

1) 보편적 서비스형

당사자가 직접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하게 돕습니다.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에 약자를 위한 기능을 갖추게 합니다. 약자를 손님 회원으로, 지역 주민 시민으로, 차별 없이 대하게 합니다. 참조: 11쪽 '보편적이게 합니다.'

비용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일반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사람의 복지에 적용합니다. 장애인 노인,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소수자 따위의 사회적 약자가 주로 그러합니다. 혼자 가서 이용하기 어려우면 같이 갈 사람을 (참조: 54쪽 '가는 김에 같이 가게') 추천하고, 비용까지 부담스러우면 중개 서비스로써 보완함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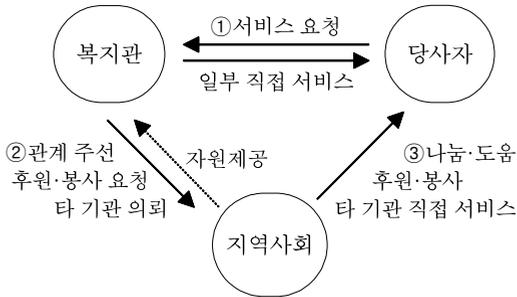


2) 중개 서비스형

일부 직접 돕기도 하지만, 주로 지역사회가 돕게 추천합니다. 개인별 서비스가운데, 당사자가 당사자의 것만으로 이루기 어렵거나 지역사회도 함께하는 편이 좋겠다 싶은 일에 적용합니다. 급식 반찬 보건의료 이·미용 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따위

의 지역사회보호 서비스가 주로 그러합니다. 다만, 지역사회가 돕게 주선하더라도 먼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당사자의 것으로써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주인 노릇 하게, 주인 되게,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심부름하듯 함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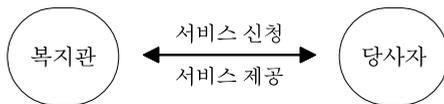
돈이 많이 들거나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후원 봉사나 타 기관의 직접 서비스를 주선하기보다 당사자의 둘레 사람이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돕게 주선함이 좋습니다.



3) 직접 서비스형

복지관이 또는 복지관에서, 직접 돕습니다.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교육문화 프로그램 따위의 집단 활동이나 상담 서비스를 더러 이렇게 합니다. 다만, 복지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이루고 누리게 함이 좋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나 중개 서비스 방식이 적당한 일이라도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직접 서비스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도움 받기를 꺼리는 당사자도 있고, 지역사회와 상관하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회사업가도 있습니다.



4. 프로그램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 실행하게 돕습니다. 사회사업가가 기획한 프로그램도 당사자나 지역사회가 실행하게 위탁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합니다. 참조: 26쪽 '지역사회 중심'

1) 지역사회의 복지 활동 개발

- ① 지역사회가 잘했던 활동, 잘하는 활동을 찾습니다. → 37쪽 '예시'
- ② 복지관이 기획한 복지 활동을 지역사회에 위탁합니다.
- ③ 지역사회가 복지 활동을 만들게 합니다. → 20쪽 '프로그램 묻기'

함께 즐길 수 있는 적극적 복지 활동을 위주로 합니다. 봉사 활동 특히 봉사자로서 사람을 직접 돕는 활동은 제외합니다. 참조: 115쪽 '적극적 복지사업' | 복지야성 51쪽 '자원봉사'

2) 지역사회의 복지 활동 설명회 - 지역 대축제

위 복지 활동을 소개하는 잔치를 1년에 한두 차례 합동으로 벌입니다. 활동별로 홍보 상담 접수하는 칸과 공연무대 놀이마당 장터 따위를 운영합니다. 기획단을 꾸려서 준비 진행하게 합니다.

3) 지역사회의 복지 활동 지원

공간 장비 물품 예산 행정을 지원합니다. 각 복지 활동의 담당자 회의나 합동연수를 주관합니다.

4) 합동 발표회 - 지역 대축제

활동별 칸과 무대, 놀이마당 장터 따위를 운영합니다. 활동 주체들로 기획단을 꾸려서 준비 진행하게 합니다.

이런 복지 활동으로 누리는 재미가 있고 어울리는 이웃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동네 그 골목은 정붙이고 살 만하지 않을까요?

5.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복지 당사자를 개별화하여 상당 기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을 돕는 일입니다.

1) 사례관리 사회사업은 사회사업답게,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에 맞게, 사회사업 방법으로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참조: 16쪽 '사회사업 방법'

대상자를 조사하는 일, 욕구를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사례회의를 계획 준비 진행하는 일,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일, 평가하고 조정하거나 종결하는 일, 이렇게 사례관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2) 복지관 사례관리는 복지관답게, 복지관 정체성에 맞게 합니다.

당사자가 자원을 찾아 활용하게 돕습니다. 당사자 쪽 자원, 지역사회의 일반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복지관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복지관 사회사업으로서 사례관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원을 찾아 주거나 복지관 쪽 자원, 약자 전용 자원을 동원하여 도와줄 일이 아닙니다. 참조: 34쪽 '복지관 정체성'

자원을 찾아서 당사자에게 제공하거나 당사자를 자원 쪽에 의뢰하는 사례관리, 정부나 복지기관 쪽 자원, 전용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연결하는 사례관리, 지자체는 그렇게 할지라도 복지관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참조: 60쪽 '사례관리' 편 - 사례관리 구조, 개념, 배경, 방법(대상자 선정, 지원 계획, 사례회의, 자원 활용, 평가, 기록)

6. 노인복지

1) 사람다움뿐 아니라 어른다움까지 생각합니다.

어설프고 힘들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살아 계시는 한 끝까지 당신 삶 당신 복지의 주인이시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구실 어른 노릇' 하시게, 어른이시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 되 약한 만큼 거들어 드립니다. 거들고 또 거들다 다 해 드리게 되더라도 그래도 당신의 일이고 당신의 인간관계이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약해질수록 더욱 정성껏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참조: 복지소학 48쪽 '乞言'

2) 가정이나 동네에서 노인의 구실이 줄어들었다고 아예 허물어 버리고 노인 별천지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리므로 가정과 동네의 노인복지 환경을 회복 개발 유지 개선하는 사업, 관계를 돕는 사업, 일상생활을 당신 힘으로 하실 수 있게 도구 따위를 지원하는 사업, 가정과 동네에서 노인의 구실을 살리는 사업에 힘씁니다.

3) 복지관의 노인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드리는 방식을 삼가고, 지역사회 이런저런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시게 도와 드립니다.

노인은 노인끼리! 이렇게 노인들로만 복적거리는 노인복지 별천지 만드는 건 꺼림칙합니다. 노인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노인들만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노인을 떼어 놓는, 이런 일에 사회사업가가 가세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참조: 복지야성 5쪽 '노인을 떼어 놓는 복지사업'

5) 노인은 경로당으로! 이렇게 될까 조심스럽지만, 경로당 프로그램과 도구와 물품 공유, 경로당 지도자 조직과 교육, 교류와 연합 행사,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구실 찾기, 이런 일을 지원하면 어떨까요? 다만 이런 일은 대신 해 드리지 말고 당신들이 하시게 힘이 좋겠습니다. 그저 심부름꾼 노릇이나 해 드리면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

1.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복지관'입니다.

1) 조직: 아동과 지역사회가 아동복지를 이루게 돕고 지역사회를 아동이 살기 좋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2) 시설: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아동과 지역사회가 아동복지를 위해 이용하는 곳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아동과 지역사회가 아동복지 활동을 하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① 지역사회 아동이, 책을 읽거나 숙제하거나 놀거나 먹거나, 이런 저런 활동을 제안 선택하여 준비 실행하거나 참여 이용합니다.

② 가족이 아동을 위해 이런저런 활동을 제안 선택하여 준비 실행하거나 참여 이용합니다. 어머니 모임을 비롯하여 이런저런 동아리나 과업 조직을 꾸려서 정보나 경험을 나누고 공부하고 상담하고 위로·격려 주고받고 서로 돕고 배우며 아동복지에 기여합니다.

③ 아동이 이용하는 |이용하면 좋을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에 관련된 사람,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활동을 제안 선택하여 준비 실행하거나 참여 이용합니다. 모임도 꾸리고 공동사업도 벌이고, 정보나 경험을 나누고 공부하고 상담하고 서로 돕고 배우며 아동복지에 기여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빈곤 아동 중심의 회원제 시설'처럼 해도 될까요? 출석률 따위로 구속해도 될까요? 참조: 174쪽 '빈곤아동센터'

2. 프로그램

1) 그 자체로 놀이가 되고 공부가 되고 생활 과업이 되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집과 학교, 어른들 일터, 산과 들과 시내, 마을 동네 골목에서 하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놀이, 교우, 청소, 정리정돈, 위생관리, 운동, 인사, 감사, 사과, 위로, 격려, 편지 쓰기, 말하기, 듣기, 집안일, 읽기, 쓰기, 예습 복습 숙제 따위의 일상생활을 잘하게 돕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체험 활동이나 연습용 프로그램보다 실제 생활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기를 했다, 책 읽기를 했다, 요리활동을 했다, 만들기를 했다 하기보다 그렸다, 책을 읽었다, 요리해 먹었다, 만들었다 하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원문: 섬할 게시판 95번 글 (저녁 급식은? → 13쪽 '생태 영향 평가')

2) 전체 아동을 한 프로그램으로써 아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되도록 각자 나이와 관심과 재능에 따라 선택하게 돕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곧 아이들이 기획한 프로그램, 부모가 만든 프로그램, 지역 주민 개인이나 지역사회 조직이 만든 프로그램, 사회사업가가 준비한 프로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설명회를 열어 소개하고 그 가운데 신청하게 합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 선택을 돕거나 조정합니다. 참조: 20쪽 '문기', 41쪽 '설명회'

3)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잘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관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가능성, 자발성, 자연력이 있습니다. 이걸 생동시키면 됩니다. 이는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렸습니다. 우리와 아이들 사이에, 아이들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있으면,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프로그램이 빈약해도, 잘 준비하지 못했어도, 잘될 수 있습니다. 잘됩니다. 원문: 섬할 게시판 1242번 글

3. 학습지도

1) 이 아이 학습지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질 다른 아이는 어찌합니까?

사회사업은 경쟁을 돕는 일이 아니라 공생을 돕는 일입니다. 경쟁을 돕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회사업가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는 공생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참조: 121쪽 '자립'

2) 학습지도도 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학습지도는 아이를 만나고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날 수 있는 명분입니다. 학습은 아이들의 실제 생활 과업입니다. 학습지도로도 사회사업할 수는 있습니다.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학습지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 하되,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하고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맞게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해에는 선생님이 지도하되 아이네 집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3~6학년은 학년별로 모여 자율적으로 공부하게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네별로 이웃 아이들을 학년 구분 없이 몇 명씩 짝지어서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공부하게 도왔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의논하여 개인별 학습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공부하는 과목이 달랐습니다.

학습지도를 직접 하지 않고, 학습을 도와줄 만한 개인이나 학원이나 단체를 지역사회에서 주선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학습을 도울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하는 편이 그나마 낫겠습니다.

4. 아이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1) 마음과 언어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귀하게 대합니다. 예를 갖추어 정성껏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마음과 언어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잘되기 어렵습니다. 잘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곧 잊히거나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런 우리를 아이들이 무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겁니다.

인격적으로 귀하게 대하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인생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사랑으로 남을 겁니다. 살아가다 문득 생각나는 선생님, 어른이 된 후에도 알게 모르게 아이의 삶 속에 그 흔적이 묻어나는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받은 관심과 사랑, 인격적으로 귀하게 존중받은 경험, 그 영향이 클 겁니다. 원문: 섬할 계시판 1242번글 | 참조: 24쪽 '어린 아이에게는 더욱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 복지소학 13쪽 '誠意正心'

2) 감사

아이의 착한 언행에 민감하게 칭찬 감사합니다. 아이가 청소할 때, 신발이나 물품 정리할 때, 친구를 도와줄 때, 활동에 잘 참여할 때, 칭찬 감사합니다. 아이가 인사할 때, 내 이름을 불러 줄 때, 내게 안길 때, 내게 무엇이든 이야기해 줄 때, 감사합니다. 아이의 작은 진보와 성장에도 민감하게 칭찬 감사로써 반응합니다. 아이에게 생긴 좋은 일에 감사하고 아이가 기뻐하는 일에 감사합니다.

짐짓 꾸민 말이나 상담 용어나 이벤트로 하지 않고 그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진심을 담아 소박하게 표현함이 좋습니다. 이유를 말해 주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고맙다고만 해도 족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히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표정 그 눈빛만으로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참조: 23쪽 '감사'

이와 같이 아이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매사에 감사하시던 선생님이 생각나서, 아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사람,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던 선생님, 어린 시절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선생님, 그 선생님이 생각나서, 나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게 될 겁니다. 원문: 섬할 게시판 1425번 글

3) 아이들 눈높이, 아이들 문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까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 따름입니다. 아이들의 문화에 맞추어 아이들처럼 해야 할까요? 어른으로서 사회사업가로서 나이와 자리에 어울리게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글썩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눈높이도 사회사업가 눈높이에서 헤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실사 '아이들 눈높이'라는 게 있다 해도, 개인에 따라 따르고 그마저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찌 다 알 수 있겠으며 어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싶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아이 눈높이에 맞추어 복지를 이루어 주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눈으로 복지를 이루게 돕고 싶습니다. 아이 눈을 알고 있을지라도, 아이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아이가 아이 자신의 눈으로 복지를 이루게 도울 뿐입니다.

아이들 언어 행동 문화에 맞추어 아이들처럼 해야 할까요? 글썩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함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와 자리에 어울리게, 어른으로서 사회사업가로서, 그 본연을 지키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가답게, 각자 자기답게 하여 만날 일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사회사업가를 보며 배운 대로 어른이 되어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더욱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설 사회사업

1. 시설

1) 공간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입니다.

아무개 님, 그 사람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특정 입주자 아무개 님 그 사람이 사는 곳,
특정 입주자 아무개 님 그 사람의 집입니다.

자기 필요 자기 일정에 따라 출입하며 자기 인간관계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자기 생활 '사생활'을 영위하는 곳, 아무개 님 그 사람의 집입니다.

정부나 사회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든,
공간이나 세간을 따로 쓰든 함께 쓰든,
몇 가구가 들어 살든,
한 가구에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아무개 님의 집이 있는 곳, 그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단체 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참조: 177쪽

2) 조직

① 가구 시설 일부와 공유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라고 시설 관리를 전담하거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가구 시설은 으레 가구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공유 시설도 관리하는 데 입주자들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②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지원센터’입니다. 입주자 개개인의 의식주 직업 종교 여가 교육 미용 쇼핑 외식 여행 건강 문화 운동 따위의 복지를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지원센터입니다.

입주자가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는 입주자 지원센터입니다. 입주자가 가족 친지 이웃을 비롯한 둘레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되 그 관계에 따라 제구실을 잘하게 돕고, 입주자가 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로써 복지를 이루며 지역 주민 시민으로 살아가게 돕는, 입주자 지원센터입니다.

지역사회가 입주자와 함께 살아가게 돕는 지역사회 지원센터입니다. 입주자의 가족 친척 동료 친구 이웃을 비롯한 둘레 사람이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로, 지역사회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의 운영자나 종사자나 관계자들이 저마다 그 수단으로써, 입주자의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지역사회 지원센터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지원센터 조직의 대표는 ‘소장’이라 함이 좋겠습니다. ‘원장’이라 하면 입주자와의 관계가 대등하기 어렵습니다. 원장이 입주자 위에 있는 형세이기 쉽습니다.

2. 가구

가구는 시설의 일부 공간 설비 물품 서비스 따위를 공유하되 저마다 따로 자기네 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의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며 독립적인 생활 단위 또는 생활 집단'입니다.

1인 가구도 있고 다인 가구도 있는데, 다인 가구를 흔히 그룹홈이라 합니다. 그룹홈은 한 집에서 공간 설비 물품 생활 따위를 얼마쯤 공유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그런 집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단체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쯤 개인 물건, 개인 영역이 있고 무엇보다 '사생활'이 있습니다. 가구 사회사업가는 가구원 한 명 한 명 개별화하여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시설 가구도 그 구조나 집기나 용품이나 생활 양식을 여느 가구와 같거나 비슷하게 합니다. 지역사회와 상관함도 203호나 철수 씨네 집, 철수 씨, 이렇게 특정 가구나 개인 이름으로 합니다. 철수 씨 손님은 시설에 온다 하지 않고 철수 씨 집에 온다 합니다. 택배 물품도 시설 사무실이 아니라 철수 씨 집에 직접 배달하게 합니다. 조심스러울 수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되도록 지역사회 여느 가구처럼 살게 도와면 좋겠습니다.

가구는 공동주택(흔히 시설이라 부르는 곳, 협의의 시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두 사람 이상 함께 살면 다 그룹홈입니다. 시설 자체가 지역사회 공동주택 가운데 하나이고 가구는 그 주택에 들어 사는 그룹홈입니다. 가구가 어느 주택에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가구가 시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사회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있다고 바깥 그룹홈보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르게 도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시설 안에 있는 가구에서는 많은 입주자가 한 곳에 몰려 살기에 정서불안, 짜증, 탐욕, 도벽, 소란, 산만함, 이상행동, 다툼, 폭력 따위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단체 생활 하는 데서는 더욱 그럴 겁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할 때 여러 입주자가 한 곳

에 동시에 몰려 지역사회가 감당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많은
인상이나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에 모여 있는 가구들이 밖에 떨어져 있는 그룹홈에 비
해 불편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깥 그룹홈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기본 거주지는 공동주택 안에 두고 밖에서 일시적 거주를 다
양하게 지원하는, '가변형 주거 서비스'를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가구원 개인을 때때로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다 오거나 상당 기
간 다른 곳에 살아 보게 도울 수 없을까요? 어느 한 가구 전체를 일시
적으로 바깥 다른 곳에서 지원할 수 없을까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주거 서비스는 어떨까요?

① 둘째 사람의 집에서 하루쯤 지냅니다. 잘 적응하면 외박 횟수나
기간을 늘려 갑니다.

②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방학 휴가 때, 휴양림 펜션 피정센터 시골
집 수련원 연수원 야영장 고향집 같은 데서 며칠씩 지냅니다. 분원이
나 별장처럼 지내다 옵니다. 여행 휴양 피정 수련한다 할 수도 있겠
습니다. 한 가구 전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③ 일자리 따라 기숙사 여관 하숙집에 들거나 방 얻어 삽니다. 일시
적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이 더러 있으니 얼마 동안 한 가구 전
체 또는 여러 입주자가 함께 가서 일할 만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동
안 현지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게 출장 지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④ 부모형제 자녀 친척, 방문 여행 삼아 돌아가며 며칠씩 지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들도 동행한다면 '이동 가구'나 '출장 가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할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최대한 기
회를 살리고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3. 입주자

입주자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개인이고, 사람들과 어울려 가족 동료 이웃 시민으로 사람 구실 하며 사는 사회인입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싶은 사람, 사람이어야 할 사람, '사람'입니다.

1) 자주

① 입주자가 자기 복지의 주체로 행하게, 주인 되게, 돕습니다. 입주자의 복지에 관한 한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을 늘려 가고 그 수준을 높여 갑니다. '내 삶이 고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하는 일이 많아지게 합니다.

약한 만큼 거들어 줍니다. 거들고 또 거들다 다 해 주게 되더라도 그래도 당사자가 주인 되는 당사자의 일이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② 입주자가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시설 일과표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 생활이 아니라 입주자 개개인의 사생활 곧 자기 삶을 꾸려 나가게 합니다. 입주자를 프로그램에 끌어들이 돕기보다 입주자 개개인의 실제 생활 속에서 돕습니다.

자기 삶을 원하고 자기 삶을 꿈꾸고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자기 삶을 살아 보기는커녕 자기 삶을 꿈꾸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서비스에 따라 생존 연명할 뿐이라면, 얼마나 민망한 노릇일까요? 더디고 힘들고 어설피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다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삶을 살게|살아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빠르고 쉽고 세련되고 쾌적하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바꾸어 생존 연명케 해도 될까요?

2) 관계

둘레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특히 가족으로, 지역 주민 시민으로, 살아가게 돕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친척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데 힘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종 기회를 만들어, 서로 연락하고 방문하고 초대하고 들르고 머물고 축하하고 선물하고 문안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잔치하고 나들이하고, 함께 울고 웃고... 이렇게 가족으로|친척 친구 동료 이웃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함께하게, 주선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라서 찾아다니기 어려우면 그만큼 더 사람들이 찾아오게, 그만큼 더 연락을 주고받게, 주선하고 거들어 줍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 시민으로 살아가게 돕습니다.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게 주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되, 입주자의 둘레 사람 곧 평소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함이 좋습니다. 시간 날 때, 편찮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김에 같이 가게, 하는 김에 같이 하게 부탁함이 좋습니다. 운동하러 갈 때, 산책하러 갈 때,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갈 때, 시장 백화점 갈 때, 공연 영화 보러 갈 때, 공원이나 도서관 갈 때, 놀러 갈 때, 구경 갈 때, 한잔하러 갈 때, 뭐 먹으러 갈 때, 투표하러 갈 때, 축제나 주민회의 따위의 지역행사에 참여할 때, 교회나 학교 가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가는 김에 같이 가게, 하는 김에 같이 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3) 구실

사람 구실 하게 돕습니다. 갈수록 더 나은 구실을 더 많이 하게 돕습니다. 개인 생활, 사회생활에서 어느 사람이 그러하듯 차츰 덜 예외적인 구실, 더 책임 있는 구실, 더 평범한 구실을 하게 돕습니다.

사람은 구실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와 관계에 더하여 구실, 이것이 있어야 '산다' 할 수 있습니다. 참조: 복지광세 6쪽 '복지 원형'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 자존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구실이 있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따므로 사회사업은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는 데 제구실 잘하게 돕고, 관계에 따라 사람 구실 잘하게 돕습니다. 참조: 120쪽 '구실'

자존 욕구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증 장애인이라도 남을 도우려 하고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쁨과 자긍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당합니다. 표정만 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던 예전 미인가 시설에서는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대상화하여 받기만 하는 사람, 구실을 잃은(빼앗긴)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는 당당함이나 생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상자를 분류 분리해 놓은 시설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세분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인권 침해니 노동력 착취니 직무 유기니 하는 규정 따위를 들이대며 사회사업가로 하여금 입주자의 구실을 빼앗고 다 해 주게, 당사자가 할 수 있고 하기 원하는 일조차 못하게, 이렇게 몰아세워도 될까요? 입주자의 가족이나 감독 관청이 요구한다고 그저 따를 일이 아님니다. 구실을 살려 도우려는 뜻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돕는 일의 실체가 어떠한지 보여 줍니다.

참조: 179쪽 '중증 장애가 있는 입주자는?'

장애나 치매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구실을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
동시키며 개선 강화하는 데 힘씁니다.

자기 생활에서 제구실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그 관계
에 따라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어른 노릇, 친구 노릇, 집주인 노릇, 손
님 노릇, 회원 노릇, 시민 노릇 따위의 사람 구실을 잘하게 돕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 동료들 위해, 학교 직장 교회를 위해, 가구나 시설을
위해, 직원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 손님을 위해, 모임을 위해,
지역과 세상을 위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돕습니다.

입주자가 하는 구실, 그 격이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입
주자의 복장 외모, 사회사업가의 복장 품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복장이나 외모에 관한 한 개인 자유라 할 수 있으나 시설에서는
마냥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입주자 본인의 자아상과 행동, 입주
자에 대한 인상과 입주자를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입니다. 시설 입주자는 좋은 옷을 입고 잘 단장하면 좋겠습니다. 잘
차려입고 잘 단장하면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직원도 입주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언행을 삼갑니다. 외인도 입주자
를 귀하게 보고 품위 있게 대합니다.

② 직원의 복장 품행 언어도 중요합니다. 입주자의 인상을 좌우합니
다. 입주자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정하게 입은 직원이
입주자에게 품위 있게 말하면 입주자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외인도
입주자를 대하여 옷·몸·말 매무새를 가다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입주자와 사회사업가의 복장이나 품행이 입주자의 자아
상과 행동, 입주자에 대한 인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입
주자가 하는 구실, 입주자에게 기대하는 구실, 그 격이나 수준에 영
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은 구실의 격을 높이려고 평범하게 하는데, 더러는 오히려 다르
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긍정적 차별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
다. 대조: 11쪽 '평범하게 합니다.'

4. 시설 사회사업가

1) 가구 사회사업가

가구 사회사업가는 시설장입니다.

이를테면 OO빌라 2동 302호 그룹홈을 운영하는 겁니다.

2) 사무국 사회사업가

사무국 사회사업가는 가구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 잘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구 사회사업가를 대신하여 입주자를 직접 지원함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입주자를 모이게 하거나 단체로 움직이는 일이 거북합니다. 입주자 회의가 아니라면 또 입주자가 모일 일이 무엇일까요? 있을지라도 자주 그럴 일은 아닐 겁니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 좋은 점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으나 더러는,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집합 동원이나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집단생활을 호도하며 사생활을 침해 위축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후원자나 봉사자를 모집하여 가구나 입주자에게 배정하는 일도 꺼림칙합니다. 후원 봉사는 입주자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구차한 인상, 낙인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합니다. 입주자의 인간관계나 구실을 위축 변질케 합니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에 봉사자 끌어 들임은 이중으로 조심스럽습니다.

5. 봉사자

도움 주고받는 관계를 '봉사자 대 대상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봉사자를 연결하기보다 보통의 사회적 관계를 살려 돕게 함이 좋습니다. 다만, 봉사자를 폐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요?

1) 입주자 개인별 맞춤 봉사단

이를테면 '철수 씨를 돕는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기존 봉사자 가운데 철수 씨와 잘 맞는 봉사자를 영입하고, 철수 씨 필요에 맞추어 새로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요일별 과업별로 도움이 필요한 만큼 사람을 충분히 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철수 씨에게 제안 설명하고 묻고 의논한 후에 모집합니다. 철수 씨와 봉사자가 상호 면접합니다. 철수 씨가 면접을 잘 준비하게 돕고, 면접할 때 봉사자에게 인사 대접 잘하고 질문 의논 부탁 감사 잘하게 돕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철수 씨와 함께 '철수 씨 지원 안내서'를 봉사자에게 설명합니다. 봉사자는 도우면서 발견하는 철수 씨의 강점, 철수 씨에게 잘 맞는 환경 요소, 새로 터득하는 지원 방법 따위의 쓸 만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때때로 철수 씨와 봉사단과 관련 직원이 함께 의논하여 지원 안내서를 수정 보완합니다.

입주자 개인별 맞춤 봉사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은 가구 사회사업가가 주관합니다. 사무국 사회사업가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실습생도 입주자 맞춤 실습생으로 모집합니다. 먼저 실습에 대해 철수 씨에게 설명하고 실습생의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을 의논한 후에 그 일을 도울 실습생을 모집합니다. 철수 씨와 실습 지원자가 상호 면접합니다. 철수 씨가 면접을 잘 준비하게 돕고, 면접할 때 실습 지원자에게 인사 대접 잘하고 질문 의논 부탁 감사 잘하게 돕습니다.

2) 입주자와 봉사자

봉사자라면,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그에 맞는 사람을 모집함이 좋지 만, 봉사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 일감으로, 봉사거리로, 입주자를 연결해 준 온당치 않습니다. 입주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봉사자를 배치하는 처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흔히 단체 봉사자, 특히 기업 단체 봉사자를 선대합니다. 후원까지 팔려 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봉사 대상으로 대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주자를 팔아먹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프로그램 한다거나 대접한다고 입주자를 모이게 하는 일도 좋지 않습니다. 봉사자가 단체로 오더라도 입주자 개인이나 가구에 흠어져 돕게 함이 좋습니다. 공유 시설 봉사라면 입주자 회의에서 의논할 일도 있을 겁니다.

①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봉사자에 대해, 봉사자가 하겠다는 일에 대해,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그 도움을 받을지, 달리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묻고 의논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나 신청을 받아 봉사자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도움 받는 그 일에 주인 노릇 하게, 자기 몫을 하게 돕습니다. 봉사자에게 인사 대접 잘하고 의논 부탁 감사 잘하게 돕습니다.

② 봉사자를 지원합니다.

입주자에게 인사 잘하게, 입주자를 그 집 주인 그 일 당사자로 존중하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게, 당사자의 몫까지 대신 해주지 않게, 봉사자가 입주자를 이렇게 돕게 설명하고 당부합니다. 입주자 개인 별 지원 안내서나 지원 계획서를 일부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참조: 복지야성 51쪽 '자원봉사'

사례관리

1. 사례관리 구성

1) 복지 당사자

복지 욕구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참조: 111쪽 '당사자'
일시적 도움이나 한두 가지 자원이면 되는 사람도 있고,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을 도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 자원

복지 욕구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입니다. 참조: 146쪽 '강점'
당사자 쪽 자원도 있고 사회사업가 쪽 자원도 있습니다. 약자 전용 자원도 있고 일반 자원 보편적 자원도 있습니다.

3) 중개 서비스

복지 당사자와 자원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당사자에게 맞추어 자원을 연결하는 당사자 중심 중개 서비스도 있고 자원에 맞추어 대상자를 연결하는 자원 중심 중개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중개 서비스입니다. 상당 기간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을 도와야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당사자 중심 중개 서비스입니다.
당사자가 자원을 찾아 활용하게 도울 수도 있고, 자원을 찾아서 당사자에게 제공하거나 당사자를 자원 쪽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쪽 자원, 일반 자원을 연결할 수도 있고, 사회사업가 쪽 자원, 전용 자원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4) 사례관리자

복지 당사자와 자원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중개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도 있고, 직접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면서 중개 서비스까지 하는 사례관리자도 있습니다.

후자의 사례관리는 담당 서비스를 잘 활용하게 돕는 정도로 한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서비스에 충실해야 할 작은 기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관리자는 대개 본 사업만으로도 벅칩니다. 사례관리까지 하면서 본 사업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설피게 사례관리까지 직접 하려 들지 말고 본 사업이나 잘할 일입니다. 사례관리까지 해야 한다면 그만큼 본 사업을 줄이거나 인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자의 주 업무나 소속에 따라 이렇게 분담하면 좋겠습니다.

① 직접 서비스 기관 가운데 작은 곳이나 직접 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례관리자는, 당사자에 한해 그 곳의 자원이나 잘 활용하게 돕습니다. 더러 다른 곳의 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가족까지 도울 수 있으나 자주 할 일은 아닙니다. 책무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② 시설에서는, 입주자에 한해 다른 곳의 자원 활용까지 돕습니다. 더러 가족까지 그렇게 도울 수 있으나 자주 할 일은 아닙니다. 책무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③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도 포함하여 다른 곳의 자원 활용까지 도와야 한다면 지자체나 종합복지관이나 가정|가족지원센터가 적임이겠습니다.

2. 사례관리 개념

사례관리는 복지 당사자를 개별화하여 상당 기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을 돕는 일입니다.

1) 대상의 개별성

복지 당사자를 한 명씩 또는 가족 단위로 개별화하여 돕는 일입니다.

이 당사자나 가족을 사례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고 '몇 사례', '적정 사례 수', '이런 사례' 따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당사자가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일, 그로써 복지를 이루어 가는 일을 가리킵니다. 사례관리는 이 일이 잘되게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2) 기간의 지속성

상당 기간 | 일정 기간, 오랫동안 돕는 일입니다.

이 기간에 '긴급지원'을 할 때도 있는데, 어떤 자원을 긴급히 활용하게 돕는 행위라면 사례관리 과정상 일시적 방법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뿐 아니라 누구나 급할 때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이라면 사례관리 구성상 자원에 해당합니다. 사례관리와는 다른 사업입니다.

3) 자원의 다양성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을 돕는 일입니다.

욕구가 여러 가지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가 많지만, 이것이 사례관리의 진짜 요건은 아닙니다. 사례관리는 욕구가 여러 가지이든 한두 가지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그 여러 가지 자원을 스스로 찾아서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을 도와야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한두 가지 자원이면 되는데 사례관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례관리의 진짜 요건은 필요 자원의 다양성, 자원 활용의 복잡성입니다.

3. 사례관리 배경

1) 욕구를 해결해 가려면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찾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자원조차 잘 모르거나 알아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일'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당사자와 지역사회 쪽 자원은 대개 스스로 찾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둘레 사람이 알아서 제공하거나 주선했어 주었습니다. 사례관리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지기관이나 정부 쪽 자원은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자원을 몰아줄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봐야 할 만큼 다양하지 않았습다. 찾는 데 그리 어렵지 않았고 이용하는 데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다. 한 사람을 상당 기간 집중하여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사례관리까지 하기는 어려웠습다.

그러다 사정이 달라져서 사례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이 정체성의 위기를 만날 때면 전문성이니 차별화니 고유 영역이니 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사례관리도 그렇게 뜨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조: 복지야성 32쪽 '전문성의 상징'

3) 정부가 바뀌거나 약자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그럴듯한 간판을 달곤 하는데 사례관리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례관리가 아주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시설 입주자나 재가복지 대상자나 수급자와 같이 개인별로 상당 기간 지원하는 일이 있고 자연히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을 돕게 되는데 개인별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개인별 통합 지원 따위의 이름으로 해 오던 일입니다. 규모나 형식은 달라졌지만 전에 하던 일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4. 사례관리 방법

사회사업 근본 곧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맞게 합니다.

사회사업으로 하는 한 사례관리 방법이라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참조: 16쪽 '사회사업 방법'

대상자를 조사하는 일, 욕구를 선택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 사례회의를 계획 준비 진행하는 일,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일, 평가하고 조정하거나 종결하는 일, 이렇게 사례관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1) 대상자 선정 | 조사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함이 자칫 문제덩어리, 종합 대상자, 관리 대상자 따위로 낙인찍거나 낙인을 굳히거나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인이 되는 곳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함은 이중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꼭 '사례관리 대상자'로 만들어야 하는지 재삼 자문하여 삼가고 또 삼갈 일입니다. 특히 모든 입주자 이용자 참여자 회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사례관리를 하는 곳에서는 사례관리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편이 좋을까요?

문제의 복잡성 심각성을 기준으로 하면, 특별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면, 십중팔구 해결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공산이 큼니다. 만성적인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례관리자만 애매히 짓눌릴 게 뻔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한다 해도 기회비용이 너무 클 겁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자원 활용의 복잡성 곧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가중치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원 활용은 사례관리자가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고도 돌아서는 심정은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그래도 사례관리자로서 어찌해 볼 수 없거나 기회비용이 너무 커 보이는 문제라면 말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말을 수밖에 없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자 합니다. 한계를 인정합니다. 설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과정에서 주체의식과 역량, 관계와 소통이 살아나고 이해 존중 지지 감사받는 경험이 생기는데 이는 문제를 이기고 나아가는 바탕이 됩니다. 그 자체로도 소중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참조: 190쪽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조사'

2) 지원 계획

지원 계획은 욕구를 고르거나 욕구를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자원 활용까지 미리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당치도 않습니다. 당사자가 자원을 찾아 봐야 하고 자원의 주인이나 담당자와도 의논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이런저런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희망에 불과합니다.

욕구를 한꺼번에 다 다룰 수 없으면 욕구를 고릅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되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 사례관리자의 처지와 역량, 기회비용도 헤아려 이로써 다룰 만한 욕구, 잘 다룰 수 있는 욕구를 고릅니다. 참조: 21쪽 ‘당사자와 의견이 다를 때’

욕구는 좋지 않은 것을 해결하려는 소극적 복지 욕구도 있고, 좋은 것을 이루고 누리려는 적극적 복지 욕구도 있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문제 해결 같은 소극적 복지 욕구가 큼니다. 특히 사례관리 초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해도,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보다 문제와 상관없는 적극적 복지로서 문제를 희석 상쇄 무력화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148쪽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면’

사례관리 기간 내내 항상 문제만 다루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급한 문제와 상관없이 장기간|사실상무기한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보다 강점에 주목하고 적극적 복지를 위주로 돕는 편이 좋습니다. 급한 문제로 대상자가 되었을지라도 얼마쯤 지나면 급한 문제는 얼추 해결되거나 유아무야되고 다른 욕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때는 적극적 복지에 주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148쪽 ‘임의로 일을 만들 수 있다면’

3) 사례회의

사례회의는 어떤 사례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당사자와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격려 칭찬 감사하는 회의입니다. 특정 사례 곧 '당사자의 어떤 욕구, 어떤 복지를 위해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일'을 두고 하는 회의입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회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빼고, 나 없는 데서, 나에 대하여 알아보고 평가하고 내 일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내 삶 내 복지에 대하여 뭔가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당사자를 대상화하고 소외시키는 처사입니다.

혹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당사자의 일이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적어도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사례회의이게, 당 사례와 사례회의에 대해 미리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합니다. 회의를 위해 당사자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마저 여의치 않아서 사후에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사례회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해야 할 정도의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당사자나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되 굳이 회의라는 형식을 갖출 것도 없고 특별히 사례회의라 할 것도 없습니다. 사례회의 실적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와 함께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한 기록 가운데 몇 건을 골라 '문서'에 사례회의 실적으로 꾸며 넣으면 어떨까요?

사례회의 참석자는, 당사자와 의논하여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때와 곳도 당사자와 의논하되 그때그때 참석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4) 자원 활용

① 당사자가 자원을 찾아 활용하게 돕습니다.

참조: 29쪽 '사회사업가는 얻게 하는 사람'

② 당사자 쪽 자원, 지역사회 일반 자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게 돕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자원, 전용 자원을 위주로 하면 당장은 일을 쉽게 풀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당사자의 자주성이나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해치기 쉽습니다. 사례관리자는 빛나는데 당사자와 지역사회는 무색해지기 쉽습니다. 평지풍파 일어나기 쉽습니다.

참조: 15쪽 '당사자 쪽 강점과 사회사업가 쪽 강점', 11쪽 '보편적이게 합니다.', 12쪽 '바탕을 살리지 않으면', 29쪽 '평지풍파'

5) 평가

사례관리 원인이 해소되거나 일정 기한이 되면 평가하되 정합성 평가, 실리 평가, 감사 평가를 위주로 합니다. 참조: 76쪽 '사회사업 평가' 중결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 갑니다.

- ① 적극적 복지 욕구의 비중을 높입니다.
- ② 욕구의 수준을 높입니다.
- ③ 당사자 쪽 자원, 일반 자원의 비중을 높입니다.

6) 기록

- ① 초기 기록은 아주 기본적인 정보, 그때 필요한 정보만 넣습니다.
- ② 진행 기록은 이야기 형식이 좋습니다. 참조: 78쪽 '정합성의 증거'
- ③ 모든 기록은 '한 번' 입력으로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사회복지시 설정보시스템이든, 인트라넷이든, 기록은 여기에 '한 번만' 합니다. 다른 데 쓸 일이 있으면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모든 기록을 인쇄하여 개인별 문서철에 넣어 둡니다.

사회사업 조사

1. 정합성

1) 외부 정합성

사회사업 근본에 부합하게 합니다. 기관의 정책이나 정체성,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에 알맞게 합니다.

조사도 해석도 적용도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조사자의 지식 의도 처지 역량에 따라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해석도 해석하는 사람의 경험 지식 가치관 처지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 이상과 철학, 역량과 처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조사의 기획부터 해석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 ①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따위의 근본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 ② 기관의 정책과 형편을 살피고 자기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참조 : 124쪽 '복지요결 연구 방법 - 주관성'

2) 내부 정합성

서론 본문 결론이 호응하게 설계하고 기술합니다.

① 설문은 조사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구성합니다. 결론이나 제언에 써먹을 수 있게 구성합니다. 문항마다 왜 묻는지, 꼭 물어야 하는지, 응답을 어떻게 해석할지 무슨 근거로, 어떤 용도에 논리적 근거가 될 만한 문항인지, 따져 봅니다. 쓸데없는 문항, 써먹지도 못할 문항, 응답을 해석할 수 없는 문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될 문항은 빼는 편이 좋습니다.

② 본문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도표와 글로 보여 줄 때, 글로써는 도표 안의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설명합니다. 도표 내용을 단순히 풀어 쓴다면 종이와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③ 결론에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합니다. 설문 응답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이 결론과 짝을 이루게 합니다.

더러 서론에서는 대단한 걸 알아낼 것처럼 하고 본문에서는 현란한 통계 분석 기법을 들이대며 대단한 거라도 알아낸 양하는데... 결론에 가서는 각 문항의 응답이 결론에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응답이 어떤 점에서 이 결론의 근거가 되는지, 이 정도의 결론을 위해 이런 조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 그 분야 전문가들이 이미 해 오던 이야기, 다른 문헌에 있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결론은 민망합니다.

2. 욕구 조사와 강점 조사

1) 문제나 욕구는, 조사해도 실무에 반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고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나 욕구를 안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사 해결할 수 있다 해도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욕구 다른 일을 얼마나 포기해야 하는지, 이렇게 실무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나 욕구 외에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합니다. 사회사업 근본이나 현실과 상충하여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나 욕구, 조사까지 해 봐야 알 수 있을까요? 문제나 욕구, 뒷감당은 어찌할까요? 문제나 욕구를 조사하지 않으면 일을 잘 못할까요? 조사한다고 더 잘할까요? 조사 때문에 서비스 프로그램이 크게 달라질까요? 사회사업 실무에 문제나 욕구 조사가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자주,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문제나 욕구 조사도 나름이지만...

2) 욕구를 묻는다면 사회사업 근본에 어울리는 대안을 포함하여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욕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①복지관 목욕탕 ②이동목욕차량 ③목욕 봉사자' 이렇게만 묻는다면 사회사업 근본을 거스르기 쉽습니다.

욕구를 묻는다면 실용성 있게 묻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장소 이용료 교통편 같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욕구만 물으면 응답과 다르게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3) 조사를 한다면, 강점을 찾아내는 조사가 좋습니다. 당사자와 지역 사회의 자원 가능성 참여의사를 조사하는 겁니다.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4) 조사를 한다면, 그 기획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사회사업 근본에 맞게, 그 자체가 사회사업이게 합니다. 참조: 196쪽 '조사 사회사업'

사회사업 기획

1. 기획 원칙

1) 외부 정합성

사회사업 근본에 부합하게 합니다. 기관의 정책이나 정체성,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에 어울리게 합니다.

2) 적극적 복지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참조: 115쪽

3)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원으로써 이룰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합니다.

4)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평안을 잃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기획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이미 공부하고 알아보고 준비해 온 일로써 하는 기획이 좋습니다. 참조: 100쪽 '실무 준비 요령'

5) 당사자가 기획하게 돕거나 당사자와 함께 기획합니다. 특히 외부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참조: 75쪽

2. 기획서 쓰는 법

1) 구성

① 필요성 ② 목적 ③ 목표 ④ 원칙·방침 ⑤ 대책(수단 방법이 되는 행동. 흔히 '사업 내용'이라고 합니다.) ⑥ 추진 체계 ⑦ 추진 일정 ⑧ 예산

2) 내부 정합성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 대책이 호응하게 합니다. 목표는 필요성과 목적에 대응하게 짝을 맞추고, 대책은 목표를 이루는 데 유효하고 충분한 행동들로 구성합니다.

3) 위계와 표현 방식

기획서는 보통 목적 목표 대책, 이런 단계로 기술합니다. 여기에는 위계가 있으니, 대책보다 목표가 상급이고 목표보다 목적이 상급입니다.

다만, '관-항-목' 구조처럼 사업에도 위계가 있으니, '동일한 내용'이 사업 위계에 따라 목적이 되기도 하고 목표가 되기도 하고 대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가복지사업 계획서에 쓴 목표가 반찬사업 계획서에는 목적에 들어가지만 복지관 운영 계획서에서는 대책에 속하게 됩니다.

어쨌든 같은 단계에 나열하는 것은 등급이 같게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세 가지라면, 세 가지 목표가 동급이게 합니다.

표현 방식도 통일함이 좋습니다.

타동사형 : ~을 제고한다, ~을 경감한다, ~을 강화한다

명사형 : ~ 제고, ~ 경감, ~ 강화

자동사형 : ~이 높아진다, ~이 줄어든다, ~이 강화한다

4) 목적과 목표가 합리적이게 합니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는 데 유효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목표 중 이 사업은 특정 목표에 한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점, 곧 이 사업이 목표하는 바의 한계를 밝힙니다.

목적은 목표들을 종합하면 이룰 수 있을 만하게 합니다. 목표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럴 만한 수준의 목적이게 합니다. 비약이 되지 않게 합니다. 목적이 추상적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물론이고 목적도,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게 기술합니다.

5) 목적이나 목표는 하나씩 나누어 씁니다.

'~하고, ~하고, ~한다.', '~하며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기하지 않고 하나씩 나누어 씁니다.

6) 목적에는 목적만, 목표에는 목표만 씁니다.

목적에 '~을 통해, ~함으로써' 따위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건 목표나 계획에 씁니다.

목표에 '~을 위해'나 '~을 통해, ~함으로써' 따위를 쓰지 않습니다. '~을 위해'의 알맹이는 목적에 쓰고, '~을 통해, ~함으로써'의 알맹이는 하위목표나 계획에 씁니다.

7) 필요성에서는 기존사업이나 유사사업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대책 | 원칙·방침을 제시합니다.

참조 : 199쪽 '기획서 다듬기'

3. 지원신청

지원신청은 하지 않는 편이 좋지만, 한다면

1) 사업을 사회사업 근본에 맞게 기획합니다.

2) 지원신청 절차를 사회사업 근본에 맞게 합니다.

기획부터 신청까지 당사자가 하게 돕거나 당사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대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 이계, 그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며 진행합니다. 지금 당사자가 없고 나중에 모집해야 한다면 혹 모르나, 당사자가 있는데도 당사자 모르게 또는 당사자의 참여 없이 사업을 만들어 외부 지원을 신청하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3) 되도록 적극적 복지 사업으로써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를 약자도 살 만하게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게 하는 사업,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사업, 이로써 좋지 않은 것을 해소 완화 보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참조 : 115쪽 '적극적 복지사업', 148쪽 '임의로 일을 만들 수 있다면'

4) 지원 단체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살펴 지원함이 좋겠습니다.

① 사업을 기획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 하여 당사자를 기획 신청하는 일에 주체로 세웠는가? 적어도 당사자가 알고 동의하거나 요청했는가?

② 당사자가 실행 주체로 참여하게 계획했는가? 기획 신청하는 과정에 당사자가 없었더라도, 실행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참조 : 202쪽 '지원신청'

사회사업 평가

1. 개요

1) 평가 개념

평가는 따져 보고 성찰하고 헤아려 보는 행위입니다.

기획이 그럴듯한지 적절한지 괜찮은지 따져 보고,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성과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2) 평가 시기

사업을 만들 때, 실행하는 동안에, 사업을 마칠 때 평가합니다.

사업을 만들 때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 명분과 실리를 따집니다. 실행하는 동안에 명분과 실리에 맞게 하고 있는지 정합성을 챙깁니다. 마치고는 얻은 명분과 실리를 헤아려 그 성과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감사합니다.

외부 평가라면 기획이 타당했는지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사후에라도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부 평가에서 사후에 이렇게 따지는 건 민망합니다. 내부 평가라면 사업을 만들 때나 실행하는 동안에 명분과 실리를 꼼꼼히 따져서 챙기고, 마치고는 그렇게 챙긴 명분과 실리를 꼼꼼히 찾아내어 자랑 칭찬 축하 감사하고 배움과 희망을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2. 정합성 평가

1) 외부 정합성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같은 근본과 기관 정책이나 정체성에 들어맞는지 평가합니다. 사회사업 실체가 여기에 들어맞아야, 사회사업 제대로 한다, 제대로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상과 철학에 맞게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없다면, 정체성에 맞게 제구실 잘하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좋아하고 남들이 칭찬한들 어찌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참조: 복지야성 36쪽 '소진과 타성'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이야기하는가? '복지사업'을 이야기하는가? 어느 쪽을 빛내는가? 어느 쪽에 중심이 있는가? 이로써 평가합니다. 참조: 124쪽 '사회사업 독법'

복지를 이루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자랑스럽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돌아가야, 사회사업 잘한다,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하여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될 때, 사회사업 정말 잘한다, 잘했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최고의 평가는, '사람 사는 것 같다.' 바로 이것입니다.

2) 내부 정합성

계획서에 밝힌 대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합니다. 단, 목표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참조: 73쪽 '기획서 쓰는 법' 목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이런 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는 무익합니다.

목표 수치의 근거가 허술하거나 달성 수치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으면 '목표 대비 실적 평가'도 무익합니다. 측정할 수 있게 목표를 계량화하라? 글쎄요. 목표를 왜 그렇게 세웠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만한 실적이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목표 대비 실적이 높으면 목표를 잘못 설정했다 할까요? 괜히 초과 달성해서 평지풍과 일으킨다 할까요? 얼마쯤이면 잘했다 못했다 괜찮다 할 수 있을까요?

사전 사후 비교 평가도 뜻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 사후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만큼 시간 예산 인력 들여서 이 정도밖에 좋아지지 않았다고 할까요? 이 정도면 잘했다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좋아졌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예산과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와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방식으로 하든 대개 사후에 좋아졌다고 하니,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별 뜻이 없습니다.

3) 정합성의 증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해 주는 이야기,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자랑스럽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하게 되는 이야기,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어떻게 도왔으며 왜 그렇게 도왔는지 방법과 근거를 말해 주는 이야기, 사회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과 형편,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 기회비용 따위의 '근본과 현실'을 헤아려 연구 선택 실행 성찰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가의 생각|고민 열정 감동 감사 깨달음 이 드러나는 '사회사업'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합성의 증거는 수치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수치에서는 감동도 의미도 찾기 어렵습니다. 숫자놀음에 그치기 쉽습니다. 복지사업 자랑하듯 인원 횡수 접수 따위나 늘어놓는다면 이는 부끄러운 평가, 민망한 보고서입니다.

3. 평가회

다음 주제 가운데 몇 가지를 정하여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주제마다 몇 줄 또는 몇 낱말이라도 원고를 써서 나누는 겁니다. 참조: 95쪽 ‘평가회 준비 작업’

인원이 많으면 부서가 고루 섞이게 몇 명씩 조를 짜서 각 조에서 나눕니다.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나누면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조 구성원이 적으면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아도 우선 각각 한 가지씩만 나눕니다. 말할 기회를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겁니다.

1) 추억

즐거웠던 일, 그리워지는 일, 아름다운 풍경 낭만 정취, 재미있는 일화 사진 동영상 따위를 나눕니다. 이렇게 즐겁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잘 누렸다고 자랑합니다.

팀별로 발표한다면,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이 발표하고 동료들이 맞장구치거나 보태 줍니다.

2) 사례

자기 사업에서 잘된 사례를 하나 이상 나눕니다. 그 사업의 계획서, 서식, 기록, 사진이나 영상, 보고서, 참고 문헌, 공부 노트 따위의 관련된 자료를 모두 가져와서 동료들에게 보여 줍니다.

동료들은 잘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줍니다. 보았거나 느낀 것을 보태어 맞장구쳐 줍니다. 그 사례의 의미를 찾아 세워 줍니다. 공감 칭찬 보충 강화해 줍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이나 기관 정책이나 사업 목적에 비추어 정합성의 작은 단서라도 민감하게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참조: 205쪽 ‘부족한 점 고칠 점은? 비판과 조언은?’

발표자를 안아 줍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참~ 귀하다고. 나도 그렇게 해 보고 싶다고...

시간이 되면, 조에서 나는 사례 가운데 몇 가지를 전체 앞에서 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3) 배움

보았거나 들었거나 체험하여 얻은 지식 기술 지혜, 절차탁마해 온 지식 기술 지혜, 발전 숙련 심화한 지식 기술 지혜, 이런 배움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어 가지씩 나눕니다.

4) 강점

잘 발휘되었거나 새로 발견한 자신의 강점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동료와 기관과 복지 당사자들과 지역사회의 강점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동료를 세워 주고 기관과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품는 겁니다. 그 강점 가능성으로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참조: 91쪽 '강점 워크숍'

5) 희망

희망이나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추억 사례 배움 강점을 공유하면서 생긴 욕구 희망 구상까지 보태어 이야기하면 더 좋습니다. 동료들이 안아 주며 응원 축복합니다. 참조: 89쪽 '비전 워크숍'

6) 감사

서로 고마운 일을 이야기하며 감사합니다. 관심 배려 친절 수고 희생 섬김 도움 나눔을 알아주는 겁니다. 꾸민 말이나 이벤트로 하지 않고 그저 진심을 담아 '소박하게' 표현함이 좋습니다. 고마웠던 일 그 구체적인 이야기로써 표현함이 좋습니다.

대학생 실습 평가회에서는 수료식도 합니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자기 수료사를 낭송합니다. 끝으로 실무자가 학생 한 명씩 수료증을 읽어 주고 건네주고 안아 줍니다. 동료들끼리도 서로 안아 줍니다. 수료증은 실무자가 쓴 수료사와 감사와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직원 평가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수필 한 편씩 쓰는 겁니다. 부서장은 부서 직원에게, 기관장은 전 직원|간부 직원에게 각각 '감사와 축복의 이야기' 한 편씩 써 주는 겁니다. 참조: 95쪽 '수료사'

평가회를 이렇게 하면 넉넉하고 재미있습니다. 사랑과 감동이 넘칩니다. 지식이 더하고 지혜가 깊어집니다.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잘하고 싶은 의욕과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과 동료와 기관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평가회에서는 나누는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 해 보면 다음 6개월이나 1년 동안, 다음 사업을 하는 동안, 다음 평가회에서 나눌 내용을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뒷사람도 직원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안 잘 배우고 누리고 성장하게, 다음 평가회에서 나눌 거리가 풍성해지게, 직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처럼 직원이 많지 않은 곳은 다른 센터와 연합으로 하면 좋습니다. 센터별로 고루 쉬어서 조를 만듭니다. '추억 사례 배움 희망'은 연합으로 나누고 '강점 감사'는 센터별로 나눔이 좋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구상한다는 명분으로 며칠 문 닫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돈 많이 쓰지 않고 소박하게, 아름다운 곳으로 평가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부서별로 한다면 종종 할 수 있을 겁니다. 근사한 찻집에서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나누어도 좋겠고, 가까운 펜션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나누고 와도 좋겠습니다.

평가회는 축제입니다.

대학생 실습지도

1. 과정

1) 실습생 구하기

기관의 인맥을 통해 대학 수업시간을 빌리거나 따로 사례 특강을 엽니다.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습니다. 여러 실무자가 함께 가서 조금씩 나누어 발표해도 좋습니다. 기관의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과 그에 맞게 잘해 온 일의 사례를 발표합니다. 뜻있게 사회사업 잘해 보고 싶은 학생, 방학에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회사업해 보자고 권유합니다. 경청 잘하거나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을 눈여겨보았다가 따로 만납니다. 교수님께 좋은 학생 추천받아 따로 만납니다. 대학생 모임도 찾아다니며 이와 같이 합니다.

2) 실습 지원서(83쪽) 접수 :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지원서를 써 본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유익하게 지도합니다.

3) 면접 :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면접을 준비 진행하게 돕습니다. 실습 대상 복지 당사자들과 면접하고, 기관 실무자와 면접합니다. 면접에서 떨어지더라도 면접 경험 자체가 지원자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유익하게, 면접 자체가 사회사업이게 합니다. 참조 : 58쪽 '시설 입주자 면접', 173쪽 '지역아동센터 아동 면접'

4) 격려 글 받기 : 면접까지 합격하면 격려 글(88쪽)을 받게 합니다. 연수 때부터 실습 마칠 때까지 매주 한 번은 읽고 나누게 합니다.

5) 연수하고(89쪽), 실습하고, 평가회와 수료식(95쪽)을 합니다. 실습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 다니기로 시작하고 감사 인사 다니기로 마칩니다.

2. 자기소개서와 격려 글

정보원 활동에 지원할 때 쓰는 자기소개서 양식과 면접에 합격한 후에 둘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격려 글 양식입니다.

1) 표지

OO 지원서

지원하는 때와 곳과 활동 명칭을 쓰고 + 지원서

인상 좋은 사진 한 장, 자기 수식어와 이름, 지원사 한마디쯤 넣어서 표지를 꾸밉니다. 표지 어딘가에 명함 같은 영역을 만들어서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따위를 씁니다.

2) 지원사

이번 활동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번 활동을 위하여 어떻게 생활하려는지, 이번 활동에서 어떻게 즐기고 누리고 배우려는지, 기관과 동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각오나 약속이나 구상을 밝힙니다. 그 근거가 될 만한 강점, 이번 활동을 잘할 수 있겠다고 볼 만한 강점을 밝힙니다.

기관 쪽에서는 무엇을 알고 싶을까?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한 눈에 보고 싶을까? 이런 관점으로 씁니다. 활동 중에 때때로 읽고 초심을 살릴 수 있도록, 스스로 다잡거나 힘을 낼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지원사를 잘 씁니다.

3) 자기소개서 요약 표

성 명	나 복 지	학교	○○대학교 ○○학과 ○○학번
전 화			이메일
인 맥	알고 지내는 현장의 사회복지사 성함, 소속, 직함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커뮤니티	자주 어울리는 모임, 동아리		
	자주 가는 카페, 블로그		
자원봉사 실습	기 간	내 용	
		
		
		
		
		
		
		

	기 간	내 용
행사 특강 세미나 학술대회 연수 캠프 수련회 견학		
읽은 책	서명, 저자, 핵심어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은 '자기소개서'를 요약하는 표입니다. 여기에 채울 내용을 1학년 때부터 만들어 갑니다. 한 건씩 보낼 때마다 자기소개서 본문에 한 건당 반 쪽 이상씩 자세히 써넣습니다. 졸업할 때쯤엔 요약 표가 여러 장이 될 정도로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4) 자기소개서 본문

자 기 소 개 서

글을 쓰는 자신에게 유익하고 읽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도록 자세히 씁니다.

○○대학교 ○○○○학과 ○○학번 나 복 지

1. 사회사업하게 된 배경·과정·동기

2. 앞으로 해 보고 싶은 일, 구상, 희망

졸업 후 사회사업 구상이나 희망, 졸업하기 전에 해 보고 싶은 일, 이번 활동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씁니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바를 자세히 씁니다.

3. 실천(자원봉사·실습) 경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활동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사진까지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 활동이 사회사업가로 성장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씁니다. 경험마다 한 건당 반 쪽 이상 자세히 씁니다. 정리하는 자신에게 유익하고, 읽는 사람이 그렇게 해 보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충실히 씁니다.

평소 여기 해당하는 활동을 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해 놓습니다. 당시에 자료나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자세히 쓰기 어려운 경험은 이제라도 생각나는 만큼 씁니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활동만 가려서 소개합니다.

4. 교육(세미나·특강·연수·학술대회, 캠프·수련회), 행사, 견학 경험

교육 행사명, 때와 장소, 주최기관 같은 개요를 소개합니다. 사진까지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사회사업가로 성장하는데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거기에서 얻은 배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한 건당 반 쪽 이상 자세히 씁니다. 정리하는 자신에게 유익하고, 읽는 사람이 그렇게 해 보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충실히 씁니다.

평소 여기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해 놓습니다. 당시에 자료나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자세히 쓰기 어려운 경험은 이제라도 생각나는 만큼 씁니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활동만 가려서 소개합니다.

5. 의미 있게 읽은 책

의미 있게 읽은 책을 소개합니다. 기본 도서 정보를 소개하고, 사회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거기에서 얻은 배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책마다 반 쪽 이상 자세히 씁니다. 평소 책을 읽을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해 놓습니다. 읽은 그 당시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책은 이제라도 정리하되, 인터넷에서 그 책의 사진과 서지정보를 구하여 소개하고 소감이나 배움 따위를 생각나는 만큼 씁니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책만 가려서 소개합니다.

6. 사회사업 인맥

내 사회사업 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회사업가, 존경하며 따르는 사회사업가, 알고 지내는 사회사업가, 종종 만나거나 통화하는 사회사업가를 소개합니다. 성함, 소속과 직함, 관계를 밝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점에서 존경하며 따르는지, 어떻게 교류하는지, 내역을 이야기합니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사람만 가려서 소개합니다.

7. 커뮤니티 활동

자주 어울리는 모임이나 동아리, 자주 가는 블로그나 카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어떻게 참여·활용·활동하는지 소개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나누고 배우는 이야기, 커뮤니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 커뮤니티에 쓰는 글을 추려서 꾸준히 한글 파일로 정리해 놓습니다.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것만 가려서 소개합니다.

8. 강점

사회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강점 곧 자신의 장점 가능성 자원을 최대한 많이 씁니다. 되도록 그 강점이 잘 발휘된 경험과 함께 소개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하는 활동에 살려 쓸 만한 강점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강점은 더욱 정성껏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강점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지, 강점을 어떻게 살려 쓰고 싶은지, 그 기대나 구상까지 쓰면 더욱 좋습니다. 평소에 강점을 발견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 그 업무에 유리한 강점만 가려서 소개합니다.

격려 글

지원자	○○대학교 ○○학과 ○학년 나복지
위 사람은 평소 사회사업에 꿈과 열정을 갖고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귀 기관의 활동을 잘 해내고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좋은 사회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 위 학생에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추천자	소속과 직책, 연락처, 관계

1. 기관에 하시고 싶은 말씀

2. 지원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 칭찬, 지지·격려, 조언·당부, 축복
활동하는 동안 때때로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거나 힘을 냅니다. 두고두고 읽고 싶도록, 이 글을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성껏, 알차게 써 주십시오. 분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뒷면 까지 채워 주시면 더 좋습니다.

3. 실습생 연수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3~4시간	대학생활 실무준비	복지요결	복지요결	복지요결
2시간	배움 나눔	배움 나눔	배움 나눔	배움 나눔
3시간 이상	워크숍 자료 다듬기	비전 워크숍	강점 워크숍	프로그램 워크숍

1) 강의 : 경청 훈련, 자기소개서, 실무 준비와 구직, 복지요결

2) 배움 나눔

- ① 먼저 10분쯤 각자 밑줄 치고 메모하며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 ② 오늘 강의한 단원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논점'을 정확히 짚어 말하고, 그래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요지'를 찾아 낭독합니다.
- ③ 자기 이야기 나누기 : 저마다 밑줄 친 대목 가운데 두어 군데씩 골라 소리내어 읽고 왜 그 대목을 골랐는지 그에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며, 묻고 답하고 토론합니다. 복지야성 복지소학이나 기관 자료집에서 관련 글을 찾아 읽고 나눕니다.

3) 비전 워크숍

① 기관의 정체성과 이번 실습의 구상

실습지도자가 기관의 정체성이나 사명과 이번 실습의 주요 목표와 구상을 설명합니다. (한 명씩 이것을 외워서 말하게 합니다.) 모든 활동을 이것에 부합하게 해야 하니 반복하여 숙지시킵니다.

② 개인 비전

졸업 후 사회사업 인생 비전과 졸업하기 전 남은 학창시절 비전 가운데 한두 가지를 소개하되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갈 생각인지 비전 실현 계획도 이야기합니다. 이번 실습 기간의 개인 목표 한두 가지를 소개하되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갈 생각인지 실현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선생님과 동료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실습 기간 권장 비전 : 실습 마치고 개학하기 전에 ‘책’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 두꺼운 클리어파일로 책의 일개를 만들어 옵니다. 파일의 앞표지와 측면에 책이름을 쓰고 꾸밈니다. 속지에 서문과 목차를 쓰고 본문 적당한 곳에 큰 제목 중간 제목을 써넣습니다.

첫째, 관련 문헌을 두루 찾아 읽되 유용한 문장을 복사하거나 초록하여 파일의 적당한 곳에 넣습니다. 꾸준히 보태고 다듬습니다.

둘째, 실습지도자와 기관 실무자에게 자세히 묻고 잘 듣고 자료를 얻어서 이것도 분류 정리하되 꾸준히 보태고 다듬습니다. 관련 현장을 두루 견학하거나 선배에게 물어서, 실무자나 실습생이나 복지 당사자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조사 면접 토론하여, 관련 사례 경험 지식 의견 따위를 모아 파일에 보탬니다.

셋째, 실천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여 파일에 넣고 다듬어 갑니다.

이와 같이 자료와 기록을 축적하고 다듬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세워 공부하고 궁리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바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배운 사람의 사회사업이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회사업입니다.

동료의 비전을 잘 들어 주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명씩 발표를 마칠 때마다 실습지도자와 동료들이 모두 안아 줍니다. 비전 워크숍에서 나눈 이야기를 전지에 잘 정리하여 기관에 붙여 놓고 종종 읽습니다. 때때로 동료의 비전에 관심을 표현하고 응원하고 축하해 줍니다.

4) 강점 워크숍

① 기관의 강점

실습지도자가 기관의 강점, 이번 실습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과 지역 사회의 강점을 설명하고 이번 실습을 위해 어떻게 살려 쓰면 좋을지 이야기합니다.

② 개인 강점

자기 강점 가운데 두어 가지를 소개하고 그 강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나 그 강점이 잘 쓰였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번 실습에 잘 살려 쓰고 싶은 강점을 골라서 어떻게 살려 쓰고 싶은지 구상이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강점을 잘 살려 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동료가 자기 강점을 소개할 때 맞장구치거나 보충해 주고, 지지 격려해 주고, 동료의 강점이 어떻게 쓰이길 바라는지, 어떻게 협력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반응해 줍니다. 자신과 동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나눕니다. 한 명씩 발표를 마칠 때마다 모두 안아 줍니다.

5) 프로그램 워크숍

① 실습을 위해 기관이 선정한 사업을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구상한 사업을 발표하고 다듬고 조정하기도 합니다.

② 확정된 사업은 (주·부) 담당자를 정하여 분담합니다. 실습지도자와 동료들이 안아 주며 응원 축복합니다.

③ 달력 만들기: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을 담아 달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22일에 캠프를 한다면, 일주일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달력에 주요 활동을 표기하고, 그 활동을 위한 준비과제들을 해당 날짜에 써넣는 겁니다. 시나리오 같은 겁니다. 모든 실습생이 주요 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한 명씩 확인합니다.

4. 실습생 연수 준비 과제

1) 비전 워크숍 준비

① 자기 소개서에 쓴 졸업 후 사회사업 인생 비전과 졸업하기 전 남은 학창시절 비전 가운데 한두 가지를 골라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비전을 이루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비전 실현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 봅니다.

② 이번 실습 기간의 개인 목표 두어 가지를 설정하고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그 목표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실현 계획을 구체적으로 써 봅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동료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동료들에게 부탁할 바를 구체적으로 써 봅니다. 실습 목표를 세워 공부하고 궁리하고 실천하고 성찰하고 기록하여 ‘책’을 만드는 비전이면 좋겠습니다.

③ 실습 동료들의 비전을 요약 정리합니다. 동료의 비전 실현을 위해 도움 일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면 좋을지 궁리해 봅니다. 별지에 요약 정리해도 좋고, 동료의 소개서 여백에 메모하거나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도 좋습니다.

2) 강점 워크숍 준비

① 자기 소개서에 쓴 강점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릅니다. 그 강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나 그 강점을 잘 발휘한 경험을 써 봅니다.

② 위의 세 가지 강점 가운데 특히 이번 실습에 잘 살려 쓰고 싶은 강점을 한두 가지 골라서 어떻게 살려 쓰고 싶은지 써 봅니다. 그 강점을 잘 살려 쓰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이야기 형식으로 시나리오를 써 보면 더욱 좋겠습니다.

③ 실습 동료들의 강점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각각 두어 가지씩 정리합니다. 이번 실습에서 동료가 그 강점을 어떻게 살려 쓰면 좋을지, 나는 어떻게 협력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별지에 요약 정리해도 좋고, 동료의 소개서 여백에 메모하거나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도 좋습니다.

3) 프로그램 워크숍 준비

이번 실습에서 자신이 진행해 보고 싶은 사업을 기획합니다. 사례를 모으고 참고 문헌을 정리하고 자신의 구상을 기술합니다. 현지에서 채택될 수도 폐기될 수도 수정될 수도 있고, 이미 사업이 정해진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기획합니다. 이것 자체가 실무를 익히는 일입니다.

4) 준비물

① 명찰 : 자기 취향대로 개성 있게 만들되, 목걸이 명찰은 뒤집어져도 보이게 앞뒤로 똑같이 만듭니다. 명함으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② 자기 정보가 있는 편지지 50장 이상 - 동료나 실무자나 복지당사자나 지역주민에게 쓸 엽서 같은 것입니다. * 규격 : A5 세로.

* 자기 정보 : 얼굴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사진', 학교, 학번,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자신을 설명하는 문장,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정보, 강점, 비전 따위를 긍정적으로 소개합니다. 반쪽 분량 정도 써도 좋고, 한 면을 모두 채워도 좋습니다.

③ 클리어 파일 : 세워두어도 넘어지지 않게 표지가 두꺼운 파일에 다음 자료를 넣어 옵니다. 나중에 동료들이 써 주는 편지도 넣고, 프로그램 계획서와 진행 기록과 보고서, 배움 기록도 넣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격려 글 : 낱장으로 넣습니다.

동료들 소개서 : 1인분씩 묶어서 넣습니다.

연수 참가자 명단, 워크숍 준비 과제, 자기 정보가 있는 편지지, 복지인의 노래 악보나 가사, 생활 수첩

5) 실습생 연수를 위한 실습지도자 과제

① 정보원의 자기소개서와 격려 글 양식을 사용하여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고 면접 후에는 격려 글을 받게 합니다.

② 비전 워크숍, 강점 워크숍, 프로그램 워크숍 준비 과제물에 대해 합동연수 이전에 첨삭 지도를 합니다.

③ 비전 워크숍 준비 : 기관의 정체성이나 미션비전, 이번 실습의 구상(주제나 목표나 방침이나 핵심사업)을 단순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똑 떨어지는 문장으로 만듭니다.

④ 강점 워크숍 준비 : 이번 실습에서 살려 쓸 강점 곧 기관의 강점, 당사자들의 강점, 지역사회의 강점을 정리합니다.

⑤ 프로그램 워크숍 준비

기관 각 부서의 사업 가운데 각각 한두 가지 사업을 선정합니다. 연습용 사업이 아니라 진짜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직접 다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 정성껏 설명하고 부탁드립니다. 실습생과 같이 해 보고 싶은, 해 볼 만한, 단위 사업 한두 건을 제안해 달라고, 부서장이나 사업 담당자를 따로 만나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실습에 적합한 사업을 찾아보고 구상한 후에, 일종의 실습제안서 같은 걸 들고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사업을 실습생들에게 공지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쓴 기안 문서나 기획서나 보고서를 두어 건씩 제시합니다.

실습생이 해 보고 싶은 사업을 선택하여, 습작 수준이라도, 기획안을 써 보게 합니다. 이를 위해 실습생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다른 기관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것까지 참고하여 기획하게 주선합니다. 실무자가 이미 그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했더라도 실습 과제로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5. 실습 수료회

실리 평가, 감사 평가와 수료식을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료회 준비 과제를 주는데, 주제별로 짚막하게라도 발표 원고를 준비하게 합니다. 참조 : 79쪽 '실리 평가, 감사 평가'

1) 추억

어떻게 즐기고 누렸는지, 이곳은 이렇게 즐겁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잘 누렸다고, 자랑할 이야기 한두 가지씩 준비합니다.

2) 사례

각자 담당했던 사업에서 잘한 일이나 잘된 일을 찾아봅니다. 그 가운데 동료들과 나누고 싶은 사례 한 가지씩 정하여 발표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 사업의 계획서, 서식, 기록, 사진이나 영상, 댓글, 보고서, 참고 문헌, 공부 노트 따위의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옵니다.

3) 배움

이번 실습을 준비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얻은 배움, 곧 책에서 보았거나 강의를 들었거나 실습지도자와 동료에게 배웠거나 체험하여 터득한, 발전 숙련 심화한, 절차탁마해 온, 지식 기술 지혜 따위의 배움 가운데 두어 가지 골라서 동료들과 나눌 이야기 자료를 준비합니다. 단순히 책에서 보았거나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여 체득한 것, 곧 자기 이야기가 있는 배움을 위주로 씁니다.

4) 강점

실습하면서 잘 발휘되었거나 새로 발견한 자신의 강점 가능성을 씁니다. 동료와 기관과 복지 당사자들과 지역사회의 강점 가능성까지 쓰면 더욱 좋습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동료를 세워 주고 기관과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긍정하는 겁니다. 그 강점 가능성으로써 미래를 상상, 구상해 봅니다.

5) 희망

학교에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봅니다. 남은 학창시절을 어떻게 배우고 누리고 싶은지, 졸업 후에 사회 사업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희망이나 구상을 몇 가지 써 봅니다.

6) 감사

실습지도자와 동료의 관심 배려 친절 수고 희생 섬김 도움 나눔을 생각하고 감사할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진심을 담아 '소박하게' 표현함이 좋습니다. 고마웠던 일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엽서에 고마운 일 '이야기'와 사진을 넣어 선물하면 어떨까요?

7) 수료사

수료식에서 낭송할 수료사를 준비합니다. 실습을 지원하고 면접하고 격려 글을 받고 연수하고 실습하고 수료하기까지 그간의 일들과 소회를 이야기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수필을 씁니다. 어떻게 배우고 누리고 성장했는지, 사회사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넣으면 좋습니다. 두고두고 읽고 또 읽어도 좋을 그런 이야기 수필 한 편 씁니다.

8) 수료증

실습지도자도 수료사를 씁니다. 실습을 기획하고 실습생을 모집하고 면접하고 연수하고, 실습을 진행하고 수료하기까지 그간의 일들과 소회를 이야기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수필을 씁니다. 더하여 실습생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그 학생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추억과 감사와 축복의 이야기를 씁니다. 왼쪽에는 실습지도자의 수료사, 오른쪽에는 실습생 개인에게 쓴 이야기를 넣어 수료증을 만듭니다. 두고두고 읽고 또 읽어도 좋을 그런 이야기 수료증을 만듭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써 주는 수료증까지 보태면 더욱 좋습니다.

6. 복지요결 읽기

1) 머리말과 맺음말에서 주제와 의도, 구성과 맥락을 살핍니다.

2) 낭독할 때는

- ① 문장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자기 생각의 속도로 찬찬히 읽습니다.
- ② '핵심어'를 강하게 읽습니다.
- ③ 쉽표에서는 쉬고, 마침표에서는 문장을 갈무리하고, 물음표에서는 생각해 봅니다. 문단이 바뀌는 곳에서는 문단 내용을 갈무리하며 쉬어 가되, 문단 간격만큼 쉬어 갑니다.
- ④ 이해되지 않는 문장, 소화되지 않는 대목에서는 그 의문을 소리내어 말하고 잠깐 생각해 본 후에, 맥락을 헤아려 다시 읽어 봅니다.

3) 읽고 나눌 때는

- ① 요점 정리하기: 한 단원씩 나누면 좋습니다. 우선 그 단원의 요점을 찾아 낭독하거나 외워 말합니다. 복지요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맺음말'을 찬찬히 낭독하거나 외웁니다.
- ② 소감과 적용 나누기: 밑줄 친 곳 가운데 한두 군데를 골라서 낭독하고, 그 대목에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에서 돌아보거나 구상하게 된 일, 그 대목에서 얻은 배움이나 의문을 이야기합니다.
- ③ 동료 발표할 때는 비판이나 조언을 삼갑니다. 동료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리고 시각이나 논리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사회사업에 관한 한 어느 설이든 교조처럼 따를 것이 없습니다. 복지요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문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과 다르든 같든, 스스로 마땅하다 여기는 바를 좇을 일입니다.

7. 경청 훈련

듣는 자세, 사회사업가의 자질은 이로써 아주 크게 좌우됩니다. 사회사업가다움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경청 잘하면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특히 약자가 말할 때 예를 갖추어 정성껏 잘 들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회사업가이겠다 싶습니다.

경청만 잘해도 사회사업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때 경청 훈련, 이거 하나만 잘해도 사회사업 실력은 태반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 방법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인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할지라도 경청하지 않으면 잘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은 잘 들어야 잘됩니다.

'군자는 권세 있거나 부유한 사람을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않으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조심한다. 약자에게는 정성과 예의를 더욱 두터이 한다.' 했습니다. 사회사업가는 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이 약자일수록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참조: 24쪽 '약자일수록 더욱'

약자에게 예를 갖추어 정성스럽게 대하는 태도 가운데 으뜸이 경청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어린아이,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술 중독자, 행색이 초라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눌한 사람이 말할 때 더욱 집중하여 경청합니다. 누군가 옆에 오더라도,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양해를 구하여 잠시 대화를 멈추고 불일을 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경청을 훈련합니다. 강의나 발표를 들을 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경청을 훈련해 봅시다.

- 1)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들어가 앞자리에 앉습니다.
- 2) 말하는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 축복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눈을

맞추고 들습니다. 진지하게 들되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고개를 끄덕임으로, 때로는 어렵다는 표정으로, 적절히 반응합니다.

3) 말하고 있을 때는 자료를 이리저리 넘겨보지 않습니다. 필기보다 듣는 데 집중합니다. '남이 말하는데 무심히 듣거나 다른 일에 정신 팔려 딴 생각하며 듣는다면 이는 매우 거친 짓'이라 했습니다.

4) 문소리가 나도, 누군가 일어서거나 지나가거나 드나들어도,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가 있더라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5) 졸리면 양해를 구하고 일어서거나 세수하고 옵니다. 일어나서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하면 졸음이 달아납니다. '정말요?' '아~' 이렇게 소리 내어 반응하거나 '선생님~ 10초만 쉬어요. 선생님 강의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휴식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늦게 들어오거나 들락거리는 사람, 팔짱끼고 듣는 사람, 기대거나 옆드려 자는 사람, 핸드폰 쓰는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7)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합니다. 하신 말씀 가운데 특정 대목을 들어 질문합니다. 잘 아실 만한 것을 묻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적당한 선에서 질문을 그칩니다.

8) '강의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듯한 표현을 삼갑니다. 어떤 말씀이 어떻게 와 닿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동료와 나눌 때도 자신의 배움과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동료가 발표할 때는 비판이나 조언을 삼갑니다. 이전 발표와 비슷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이로써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동료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9) '볼 때마다 새로 알게 되는 것이 있으면 학문이 진보했음이고, 의문하지 않던 내용을 의문하게 되면 비로소 진보한 것'이라 했습니다. 같은 주제나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듣더라도 그때마다 새롭게 깨닫거나 적용하게 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공부에 진보가 없었거나 교만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8. 실무 준비와 구직

1) 지식

해당 분야 전문도서와 논문, 자료집을 몇 권씩 읽습니다. 전문도서는 두어 권이면 족합니다. 최신 논문은 10여 편이면 해당 분야 최신 이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권위 있는 연수 세미나 대회의 최근 자료집 5권 정도 보면 실무 현장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안내서나 지자체의 사업지침서, 잘한다는 기관 두어 군데의 사업보고서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현장 실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정보

해당 분야 관련 법령을 꼼꼼히 읽고, 정부의 시책을 외우고, 주요 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를 살펴봅니다. 법령은 대개 5~10가지에 불과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분야에 상관없이 읽습니다. 정부 시책은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까지 암기합니다. 민간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는 직능단체나 유명 기관 웹사이트 몇 군데 살펴보면 됩니다.

3) 기술

해당 분야 현장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체험하고, 나아가 자신이 그 업무를 맡는다면 어떻게 할지 습작해 봅니다. 계절별, 월별 사업을 골고루 경험하고 습작함이 좋습니다. 현장 실무는 대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무 준비에 1년은 걸립니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을 더 잘 숙달하려면 '사회사업 습작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매 주 당번을 정하여 사업 계획서 습작품을 발표합니다. 당번은 현장 선배에게 특정 사업의 계획서와 관련 문서를 구해 습작품을 만들고, 회

원 수만큼 복사해 옵니다. 동아리에서 습작품을 함께 다듬어서 가상으로 실행해 봅니다. 실체를 상상하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한 학기에 열 번만 해도 1년이면 20건의 습작품과 관련 문서를 얻으니 실무 자료를 풍부하게 갖추게 됩니다. 사업 기획에 익숙해집니다. 사업별로 클리어파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관련 문서를 담습니다. 졸업할 때쯤이면 책꽂이에 수십 개의 파일이 꽂히겠지요.

4) 인맥

해당 분야 행사에 자주 가서 명함을 드리며 인사합니다. 인사드려야 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행사에 몇 번만 참석해 보면 그 분야 주요 인물을 곧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한두 번 인사해서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미안해서라도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한두 분만 친해지면 그분들을 통해서 주요 인물들과 연결됩니다.

해당 분야 주요 카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 분야 사회사업가들의 블로그에 댓글을 자주 남깁니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행사에 참가하거나 실습·봉사할 때마다 후기를 올립니다.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인사함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하며 그간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활동기록이나 기획서가 있으면 드립니다. 업무에 방해될 수 있으니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취업하면 그 분야 그 지역의 좋은 사회사업가들을 두루 찾아뵙고 인사합니다. 그 분야의 일이나 그 지역에 대해 여쭙고 의논합니다. 신입이나 전입은 인사 다니며 여쭙고 의논하기에 좋은 명분입니다.

해당 분야 당사자들과의 인맥도 이와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5) 구직

해당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어떤 강점이 있는지 밝히고 그 분야와 그 기관에 대한 관심 애정 의지 열정이 어떠한지 드러내는, 지원사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참조: 83쪽 '지원사와 자기소개서'

먼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설명합니다. 자료와 격식을 갖추어 설명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 기회를 보아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뜻을 세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는데 끝까지 말리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하고 싶은 기관에 제안합니다. 구인광고를 보고 응합이 아니라 이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원하려는 기관과 그 업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보를 찾아보고 직원이나 다른 선배들에게 묻고, 자원봉사나 실습을 하면서 직접 살펴봅니다. 이렇게 기관에 대하여 잘 알고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면 좋을지 궁리한 후에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실무를 준비하고 제안하여 취업합니다. 일하면서 다음에 할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여 제안합니다. 이것이 사회사업 넉넉하게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길이고, 자기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다만, 지식 정보 기술 인맥뿐 아니라 좋은 성품과 태도, 좋은 표정, 인문 교양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참조: 193쪽 '학창시절을 즐겁게'

이러므로 졸업 학년이 되어서도 일할 분야를 확정하지 못했다면 휴학하고 두루 살펴 일할 분야를 정한 후에 적어도 1년은 실무 준비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좋은 성품과 태도, 좋은 표정, 인문 교양을 어지간히 갖추지 못했다면 조금 더 수양 공부 훈련한 후에 구직함이 좋겠습니다.

현장을 우습게 여기면, 현장도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사회사업 현장은 연습장이 아닙니다.

적용

1. 변화! 누가 시작하는 편이 좋을까?

본인으로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도나 조직이 좌우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시작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고 조직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자는 제도나 윗사람 탓하지 않고, 기관장은 직원들 탓하지 않고, 팀장은 팀원이나 관리자 탓하지 않고, 저마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해 보는 겁니다.

끝내 뜻을 이룰 수 없다면...

참조: 복지광세 166쪽 '떠나야 하는가?'

2. 조건부 사고와 방법론 사고

‘~라면|~이 아니라면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조건부 사고

윗사람 때문에 못하고, 직원들이 따라 주지 않아서 못하고, 규정 때문에 못하고, 평가 때문에 못하고, 돈이 없어 못하고, 사람이 없어 못하고, 시간이 없어 못하고... 이렇게 막히고 걸리고 갇히고 매여서 안 된다 못한다 합니다.

실현할 수 없는 일 얻을 수 없는 자원을 공상하며,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자원조차 쓰지 못합니다. 자기에게서 해결책을 찾기 보다 다른 사람의 변화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남 탓, 핑계, 변명하거나 조건 타령을 늘어놓습니다. 제 두레박줄 짧은 줄은 모르고 우물 깊다 불평합니다.

방법론 사고는, 있으면 선용하고 없으면 변통합니다. 산에 가면 산을 누리고 바다에 가면 바다를 누립니다. 자원과 가능성을 볼 줄 알고 목표와 해결책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행하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돌이켜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사회사업 현장은 그래도 재량으로 융통할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찾아보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약조건 같은데 다르게 보면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해 보면 되겠다!’ 하면서 강점 자원 기회 가능성에 주목하고 방법을 찾는 방법론 사고로 일해 봅시다.

3. 때를 기다려야

새로운 사람이 자기주장을 펴며 바꾸려 들면 먼저 계신 분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거부감이나 경계심이 들지 않을까요? 더구나 아랫사람이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끼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요? 조용히 천천히 바꾸어도 변화엔 저항이 따르기 십상인데, 드러나게 갑자기 바꾸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므로 우선은 전임자 선배 동료가 어떻게 해 왔는지 전례를 살피고 그 뜻을 헤아리고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신중하게 천천히 시간을 두고 도모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인격 실력 관계를 쌓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삼가고 참고 내려놓고 감출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사업 ‘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가 되기 전에는 자기주장을 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장하는 바가 옳다 해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반발만 사게 됩니다. 다만, 명분과 진정성은 그 시간을 단축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이유를 밝혀 잘 설명하면, 진정으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바로 그때에도 잘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이 ‘자기 방식’을 바꾸려 할 때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갖추어 정성껏 이야기하면 곧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의 일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더 마땅해 보이는 다른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떠했든, 새롭게 잘해 보겠다고, 진정으로 이야기하면 어찌 양해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돕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성실했다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4. 전임자와 후임자

1) 어떤 일을 이어 맡으면 전임자에게 인사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 사업을 만들었는지, 어떤 원칙 방법으로 해 왔는지, 어떤 성과와 배움이 있었는지, 문제나 한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하려 했는지, 후임자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어떤 강점 자원 가능성이 있는지, 잘 묻고 잘 듣습니다. 전임자의 좋은 뜻과 방법과 성과와 배움, 축적한 자산을 알아주고 감사하고 계승합니다. 자기 구상에 대해서 자문하고 조언 협조를 구합니다.

법인이나 기관의 정체성 정신 사명 발전계획 따위의 정책 문건이 있다면 자세히 읽고 이해 구상한 바로써 법인 대표나 기관장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기관이나 부서를 옮기면, 그곳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지역을 옮기면 그 지역 사회사업가들에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합니다.

2) 무모함 실수 불협화 좌충우돌 결레...신참의 이런 모습, 너그럽게 적당히 봐주면 좋겠습니다. 열정 의욕 자신감 소신 도전 개혁... 신참의 이런 장점을 잘 살려 쓸 방도나 궁리하면 좋겠습니다.

3) 기존 현장에 책임자로 들어간다면, 1년쯤 기다림이 좋겠습니다. 기존 사업이나 방식을 이해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전임자에게 묻고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뜻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갈 생각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 보고 싶은지, 잘 묻고 잘 듣습니다. 직원의 업무를 파악하고 개개인 성향과 강점과 처지를 파악합니다. 대안을 생각한다면, 묻고 의논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직원 스스로 느끼고 그의 말로 표현하게 돕습니다. 직원의 계획이게 돕습니다.

5. 변통, 여지

사회사업은 대상도 사안도 환경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실체는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사업에 절대 원칙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사회사업 원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생명 존중 원칙'은 어떨까요? 이 생명을 살리면 저 생명이 위협하거나 저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 이쪽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쪽 생명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게 있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존 연명시킬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존엄하게 살고 죽고 싶은 욕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끝내고 싶은 욕구에 반하여 생존 연명시킬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옳게 여기는 바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남에게 가르치거나 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마다 생각이 있고 사정이 있음을 헤아리고, 대개 한두 번 말하여 듣지 않으면 그만 두는 게 좋을지 모릅니다. 자칫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 무례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니며 저도 그 상황에선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미처 생각조차 못한 뜻이 있을지 모르고, 그 행위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는 최선이었을지 모릅니다.

다름을 생각합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여지를 둡니다.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더하면 달라질지 모른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변통을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응하고 처지에 맞게 행하자 합니다.

참조: 복지광세 108쪽 '좋고 나쁨에 때가 있다', 111쪽 '하나는 이러하고' | 복지소학 62쪽 '和而不同', '隨緣素位', 63쪽 '時中之義'

이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때때로 이로써 자성하고 경계합니다. 이런 자세로 사회사업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도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1) 이런 논리의 가치는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관용,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에 끝어다 쏟은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다만 다를 뿐'이라 하여 반성도 변화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고 소통은 절로 멀어질 겁니다.

2) 이쪽을 인정하면 저쪽이 부정되는 상황, 이 가치를 따르면 저 가치를 거스르게 되는 상황, 사회사업에는 이러한 갈등이 상존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저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 양립할 수 없는 둘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둘을 겸하여 취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3) 사람 놀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선택, 실행해야 하는 사회사업 현실에서 "자네 말이 옳네.", "자네 말도 옳아.", "당신 말 씀도 옳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4) '절대 원칙이 있다는 주장,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다른 방식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까지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고집하지 말자' 함도 일종의 고집입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는 말처럼 모순입니다.

5) 상대를 지나치게 인정 존중 배려하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항상 좋을까요? 이것저것 다 인정하다가가는 운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 방식에 대한 평가는 운동 주제, 운동 목표나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약자를 위협 억압 착취하는 세력, 약자의 인권이나 복지에 반하는 일,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는 행위까지 인정하고 존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6. 공동작업

1) 발제

담당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야기합니다. 즐거웠던 경험 잘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업이 자신에게 어떤 뜻이 있었는지, 어떻게 누리고 배우고 성장했는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 해 오면서 잘 발휘되었거나 발견한 자기 강점 가능성을 이야기하되 동료와 기관과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가능성까지 자랑하면 더 좋습니다.

2) 토론

이런 점이 참 좋아 보인다, 더욱 살려 보자, 이건 이렇게 보완하면 어떨까? 그 강점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 보면 어떨까?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복지관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지금 생각났는데 이런 건 어떨까, 이렇게 각자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조별로 토론한 후 그 성과물을 전체 앞에서 발표합니다.

동료들이 담당자를 안아주며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담당자는 동료들의 경험 공부 생각으로써 자기 일을 발전시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단위 사업만 다루되 한 주 또는 한 달에 한두 시간씩 꾸준히 하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도 동료들도 사회사업 근본을 헤아려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7. 티핑 포인트

1) 티핑 포인트 : 조금씩 발전하다가 그때까지 쌓인 것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컨대 99도의 물이 100도가 될 때 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때가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까지는 더디고 힘들 수 있지만, 일단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적은 비용 노력으로도 쉽고 빠르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다 보면 사회사업에 문리가 트여서(19쪽) 그 후로는 일을 쉽게 이룰 수 있는데, 문리가 트이는 그 때가 바로 사회사업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흔히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방법도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까지는 더디고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디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고 수월합니다.

2) 네트워크 효과 : 메신저나 카페처럼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효용이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다 보면, 당사자와 둘레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지역사회 속에 복지 기능이 내장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효용이 곱셈하듯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사회사업가들의 실천 방법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서 이렇게 하려는 동지가 늘어납니다.

3) 고착화 : 어떤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요금을 부과하거나 올려도,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와도,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고착화라고 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방식을 몇 번 경험해 보면 복지 당사자나 사회사업가나 이 방식을 바꾸려 들지 않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마땅함 수월함 재미 감동 알게 되니 여간해서는 이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용어

1. 복지 당사자

복지 수요자 곧 복지 욕구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저런 복지 기능으로 도움을 받는|받으면 좋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지 당사자'라 밝혀 쓴 곳도 있으나 대개는 그냥 '당사자'라고 씁니다.

문맥에 따라 그냥 사람, 수요자 이용자 참가자 입주자, 수혜자, 아동 장애인 노인, 수급자, 어려운 사람, 약자, 지역 주민 따위로 쓰기도 합니다.

대상자?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대상화하게 될까 조심스러워서 꺼립니다. 소비자나 고객? 정으로 하는 복지는 어떡하나 싶고 상업 논리로 빠지지 않을까 싶어 이것도 꺼립니다.

대상화

대상자 자체는 중립적 용어입니다. 대상화가 문제입니다.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복지인데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가 하게 돕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한편 어떤 대상자는 그런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불가촉천민이나 전염병자나 흉악범 격리하듯 따로 떼어 돕는 대상자, '분류배출'하듯 '분리수거'하듯 하는 집단 이주 대상자나 수용 보호 대상자, 멀쩡한 사람까지 환자 취급하는 치료 사업 대상자, 향시 약자 종합 대상자 취급하는 사례관리 대상자, 후원 개발한다고 불쌍하게 묘사하는 대상자, 지원신청 한다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기술하는 대상자, 이렇게 대상자 격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2. 약자

사회사업 주 대상은 '약자'입니다. 사회사업은 흔히 사회적 약자 곧 그 사회 여느 사람이나 다른 계층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불리한 쪽에 속하는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약자만 돕는가? 여느 사람을 위한 사업도 합니다. 다만 이용료 수입을 약자를 돕는 데 쓸 수도 있고,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약자를 만나거나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약자를 내세우지 않는 사업으로도 대개 약자에게 좋은 복지 환경, 복지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회사업 대상으로서의 약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상황적 약자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상황적 약자'입니다. 이리므로

1)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사회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적 약자가 대개 사회적 약자이고 실제 사회사업이 사회적 약자를 주로 돕기 때문에, 보통은 사회사업 대상으로서의 '약자'를 '사회적 약자'로 읽어도 됩니다.

2) 도움 받는 그 때 그 일에서만 약자입니다. 항시 약자나 종합 대상자가 아닙니다. 장기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약자는 아닙니다.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약자인 것처럼 온갖 문제를 캐묻거나 온갖 일에 관리자 보호자 전문가 지도자 선생인 양 주관하려 들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 대 대상자 관계는 일시라도 좋지 않고, 늘 이런 식으로 대함은 더욱 온당치 않습니다. 그 때 그 일에서 그런 것이지 사람 자체가 전문가나 약자는 아닙니다.

3. 지역사회

1) 당사자의 지역사회

① 물리적 범위

당사자가 살고 있는 곳, 당사자가 '우리 마을 우리 동네'라 부르거나 그렇게 느끼는 곳입니다.

② 사회적 범위

당사자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비롯한 둘레 사람, 당사자가 이용하는|이용하면 좋을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복지 수단과 그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2) 기관의 지역사회

① 물리적 범위

기관이 속한 행정구역이나 정관 법령 조례 따위로 규정한 구역입니다. 물리적 범위를 가리켜 말할 때는 그냥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② 사회적 범위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지역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복지 수단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4. 복지

1) 복지

복지는 '복스러운 것 또는 복스러운 경지'입니다. 사회복지에는 '사회의 복스러운 것 또는 복스러운 경지'입니다.

이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경험 지식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니 주관적입니다. 때와 곳에 따라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대적입니다.

복지나 사회복지에는 사회사업을 넘어서는 주제입니다. 인생을 논함과 같고 천하 경륜을 논함과 같습니다. 참조: 복지야성 43쪽 '한계'

2) 복지 기능

복지를 이루는 행위 또는 복지에 기여하는 구실이나 작용입니다.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의 복지 기능도 있고, 당사자나 지역사회의 복지 기능도 있습니다. 복지 기능을 그냥 '복지'라고 쓰곤 합니다.

3) 복지사업

복지사업은 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업이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 복지사업만 그렇다거나 특히 복지사업이 그렇다 할 속성을 밝혀 다른 사업과 구별되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업 또는 복지시설에서 하는 사업' 이쯤이 그나마 실정에 가까운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4) 복지와 복지사업

복지사업은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복지는 복지사업의 목표나 효과입니다. 보통은 복지사업도 그냥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가 복지사업과 복지, 양쪽으로 통합합니다.

5)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소극적 복지사업은 문제에 대응하는 일, 좋지 않은 것을 해소 완화 보완 예방하거나 극복하게 돕는 일입니다. 소극적 복지는 그런 일의 목표나 효과입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당사자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낙인을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제이거나 사회사업가는 빛나는데 당사자는 무색해지기 쉽습니다. 문제를 굳히거나 키우기도 하고 좋은 것을 해치기도 합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문제와 상관없이 벌이는 일, 좋은 것을 살리거나 누리게 돕는 일입니다. 적극적 복지는 그런 일의 목표나 효과입니다.

적극적 복지사업은 당사자의 격을 높이고 좋은 인상을 갖게 합니다. 당사자가 버젓해지고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돌아가게 합니다. 적극적 복지를 이루고 누리는 경험은 문제를 희석 상쇄 무력화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한 힘이 됩니다. 다른 복지를 이루는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참조: 149쪽 '대안 강점'

6) 사회적 복지와 비사회적 복지

사회적(복지)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는 일,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사회적 복지는 그런 일의 목표나 효과로서 사회적으로 누리는 복지입니다. 사회의 일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서 누리는 복지,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지입니다.

비사회적(복지)사업은 비사회적으로|물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복지전용체계 안에서 복지를 이루는 일, 관계와 무관하게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비사회적 복지는 그런 일의 목표나 효과로 복지전용체계 안에서 누리는 복지, 관계와 무관하게 누리는 복지입니다.

7)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입니다.

그 가운데 사회사업가의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복지'를 위한 실천입니다. 사회의 일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고 사람 사이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를 사회적 복지로 보면, 사회복지실천이나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사업과 같은 말이 됩니다. 흔히 구분하지 않고 섞어 씁니다.

8)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실천

사회사업이 추구하는 지역사회복지|지역복지는 지역의 사회적 복지입니다. 지역사회 속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지역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 흐르는 복지,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복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실천, 지역의 사회적 복지를 위한 실천입니다. 지역사회 속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 곧 지역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지역사회를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곳이게 하는 일입니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사회실천 지역사회사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지역사회복지나 지역복지라 하기도 합니다. 흔히 이렇게 통용합니다.

다만 구분하자면, 지역사회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지역사회복지나 지역복지는 그런 일의 목표나 효과로서 '되는 것'입니다. 지역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실천이나 지역사회사업도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참조: 35쪽 '지역사회조직'

5.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사회복지는 복지이고 사회사업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으로써 이루려는 '복지'이고,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의 복지를 이루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와 사업은 크기나 넓이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크든 작든 복지는 복지고 사업은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도 크기나 넓이로 구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광의든 협의든, 사회복지의 복지이고 사회사업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의 목표나 효과이고,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의 과정이나 수단입니다. 사회복지의 사회사업으로써 '되는 것'이고,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의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하여 '하는 일'은 많습니다. 사회사업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회정책도 복지행정도 기업 경영도 농수산업도 예술 활동도 사회복지의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의 이런 일들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사업하다'는 있어도 '복지하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만든다면 '사회사업하다' 해야지 '사회복지하다' 할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회복지하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듣는 사람은 '사회사업하다'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의 혼용 통용합니다.

사회복지사와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라고 다 사회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의 심중팔구는 사회사업가가 아닙니다.

6. 복지사업과 사회사업

사회사업은 복지사업이지만, 복지사업이 다 사회사업은 아닙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복지사업이 사회사업입니다. 이 방법과 목표가 사회사업의 핵심 속성입니다.

영역이나 소재만으로는 다른 일, 일반 복지사업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에 전속하는 영역이나 사회사업에 고유한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교육복지, 의료복지, 직업복지, 결혼복지, 주거복지, 사교복지, 여가복지... 어느 것 하나 사회사업 고유 영역이라 할 게 없지만, 어느 영역에서나 사회사업할 수 있습니다.

놀이, 학습, 건강, 안전, 의식주, 환경, 사랑, 사교, 예술, 신앙, 인문, 인권, 시민권, 자치, 직업, 육아, 여가, 취미, 일상생활... 어느 것 하나 사회사업만의 소재라 할 게 없지만, 무엇으로든 사회사업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이렇게 어느 영역에서든 어떤 소재로든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어느 영역 어떤 소재로든 그로써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도모합니다. ‘이웃과 인정’ 그 정겨운 사람살이를 살리려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무엇으로든 사회사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사회사업 영역 사회사업 소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에 속하는 일이나 가족을 떼어 놓는 일은 삼가고, 이름과 감상에 비추어 그럼직한 영역이나 소재를 선택함이 좋겠습니다.

참조: 121쪽 ‘경쟁과 자립’ | 복지야성 43쪽 ‘선택과 한계’

7. 자원봉사와 사회사업

사회사업가는 돕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자와 차이가 다르다 합니다. 권한이나 책임, 지식이나 기술이 다르다 합니다. 이런 것이 본질적 차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1) 방법

자원봉사는 봉사자가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고 당사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하게 도와야 사회사업답습니다.

2) 목표

자원봉사는 당사자의 특정 '복지'를 이룹니다.

사회사업도 당사자의 특정 '복지'를 이루지만 그보다 더욱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과 인정이 있어 누구나 정 붙이고 살 만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사회사업에서는 공생이 근본이고 복지는 말단입니다. 복지를 이룰 뿐 아니라 더불어 살게 도와야 사회사업답습니다.

자원봉사도 사회사업처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사회사업은 사회사업다워야 하지 않을까요?

8. 구실

구실 :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바 책임

역할 → 구실, 소임, 할 일로 순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구실과 자유 의지와 관계, 이는 존재의 조건이고 사람의 조건이며 인간의 조건입니다. 존재 가치이고 인격적 생명이며 사회적 생명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산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고 누리는 삶의 알맹이입니다. 실로 복지의 필요 충분조건이라 할 만합니다.” 참조: 복지광세 6쪽 ‘복지 원형’

‘사람은 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적용할 때 복지관과 시설이 다르고 지역아동센터는 그 중간쯤 됩니다.

1) 복지관에서는, 특정 사업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일에서 당사자가 자기 구실을 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그밖에 다른 곳 다른 일 다른 때에 구실이 있고 없음에 상관함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할 권한도 책임도 없습니다. 진로 지도, 부모교실, 아버지 모임처럼 구실을 찾거나 잘하도록 돕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일도 대개 그때 그 구실에 한해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에서는, 입주자의 삶 전반에 걸쳐 구실을 살리려 합니다. 자기 일에서 제구실하게 돕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그 관계에 따라 사람 구실 잘하게 돕습니다. 참조: 55쪽 ‘시설 사회사업 - 입주자 구실’

3)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의 생활과 인생 전반을 챙겨야 할 책임은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곳 이 일이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의 삶에 대해 얼마쯤 선생으로서의 구실이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그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제 구실 잘하게 얼마쯤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 자립과 자주

자립은 자력으로써 섬이고

자주는 자기 삶의 주인 자기 복지의 주체로서 행함입니다.

자립은 자력, 곧 수단에 달려 있고

자주는 주체, 곧 자격에 달려 있습니다.

1) 자립은 어려워도 자주케 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됩니다.

2) 자립 여부로 사람답다거나 사람답지 않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는 사람다움의 필수 요소입니다. 주는 대로 먹는 짐승이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자주하지 않으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3) 자립이 사회사업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자립이 경쟁에서 살아남거나 남을 딛고 서는 것으로 보이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사업은 경쟁이 아니라 공생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이 자립을 도울 수도 있고 실제 자립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회사업이 자립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그래도 되는지, 확신이 없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사회사업 본분을 생각하고 역량과 기회비용을 헤아리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사업가의 마음은 '서로 기대어 사는 인간'에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여 살리며 사는 사람살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립도 좋지만 사회사업가는 상호의존을 더욱 가치 있게 여깁니다.

5) 사회사업에 자립을 목표하는 사업이 없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이 더 많습니다. 자립은 일부 사업의 목표이고 자주는 모든 사업의 원칙입니다.

속 이야기

1. 근본 물음

사회사업 바르게 하려면 근본을 세우고, 근본을 좇아 행하고, 근본으로써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본을 세우지 않으면 애당초 바르게 할 수 없고, 근본을 좇아 행하지 않거나 근본으로써 성찰하지 않으면 끝내 바르게 되지 않을 테니까요.

사회사업, 근본도 없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다움이 무엇이며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복지의 바탕은 무엇인지, 원리도 헤아리지 않고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상과 철학도 없이 달음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사회사업 잘했다 할 것인지, 기준도 없이 그저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오래 하지는 못할 일입니다. 생각지 못하고 몰랐을 때는 혹 그렇게 했을지라도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 그렇게 하는 까닭, 자기 실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나침반과 지도가 없고 닻이 없어 이리저리 바람에 밀리고 물결에 휩쓸리는 배와 같습니다.

참조: 복지야성 64쪽 '근본이 없으면'

2. 복지요결 연구 방법

1) 순서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따라 사회사업 방법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더 들어가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은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보는 인간관과 사회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따라서 먼저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탐구하고 그로써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을 밝혀 사회사업 방법을 찾습니다.

2) 열쇠 : 당사자와 지역사회

농사의 씨앗과 땅처럼 사람과 사회가, 특히 약자와 지역사회가, 사회사업 핵심 원소입니다. 복지요결은 이를 당사자와 지역사회라 하고, 사회사업 온갖 주제를 대개 이 두 원소로써 풀어냅니다.

3) 기본명제 :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람다움 사회다움'으로부터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을 끌어냅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관점에서 사회사업 개념을 정의하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에서 사회사업 가치를 찾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전제로 이상과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살리는 주안점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4) 시선 :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복지관 사회사업, 시설 사회사업, 사례관리, 사회사업 조사 기획 평가... 어느 것이든 모두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라는 동일한 실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목에 따라 묘사하는 면이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피사체는 하나인데 렌즈나 각도만 바뀌 촬영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고자 하는가? ‘복지사업’을 이루고자 하는가? 어느 쪽을 바라보는가? 어느 쪽에서 비롯하며 어느 쪽에 중심이 있는가?

사회사업은 이로써 아주 달라집니다. 사회사업 이론과 실체가 대개 이로써 좌우됩니다. 사회사업 온갖 행태를 이로써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로 사회사업의 만능 해법, 만능 독법이라 할 만합니다.

5) 주관성

사회사업 근본이든 현실이든 그 본질이나 실재를 모두 헤아릴 수 없고 그 자체 그대로 그려 낼 수도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일부만 주관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마저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복지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옳은지, 무엇을 마땅하다거나 평범하다거나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런 판단 선택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주관에 충실하되, 여지를 두고 탐구합니다.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다른 관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달라질 수 있다고, 다른 때 다른 데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계를 의식합니다.

주관에 충실하되, 논리를 갖추려 합니다. 말이 되는가? 문장이 되는가? 살피고 또 살핍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과 말에서 관점과 논리를 취하여 저를 비판하곤 합니다. 이로써 주관을 다듬어 갑니다.

객관도 아주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주관적 객관화에 불과할지라도 객관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림직하겠다 싶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뜻있게 행하려는 사회사업가, 학문이 높거나 경험이 많은 사회사업가, 뒤에 올 사회사업가, 당사자와 지역사회, 세상의 지식인 지성인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를 의식하며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6) 정합성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 그리고 사회사업 실체가 서로 꼭 들어맞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 그렇게 하는 까닭, 자기 실천의 근거로 나름대로 내세우는 요소들이 서로 모순이 없고 따로 놀지 않게 하고 사회사업 실제와도 일치하게 합니다.

7) 실용성

실무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쉽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로써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나 낱말에 비추어 그림직한 이야기, 우리 처지와 역량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 소용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사업 이상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는 일이나 처지와 역량, 그 현실이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항상 같지는 않으니 여느 사회사업 현실에서도 적용할 만하게 어지간한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8) 다중 원천 : 영감 전통 근본 이성 경험

기도와 묵상으로 영감을 얻습니다. 사회사업 문헌을 참고합니다. 성경과 한문고전과 근본 담론에서 배웁니다. 이성으로써 궁리하고 따져봅니다. 사회사업 현장과 사회와 자연과 생활 속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봅니다.

9) 위기지학

저를 위한 공부이게 합니다. 제 실천에 효용이 있게 합니다. 지금 제 일이 아니라도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탐구합니다.

10) 동료

동료들을 보며 배웁니다. 동료들과 나누며 깨닫습니다. 동료들을 생각하며 다듬습니다. 동료들과 문답 토론하며 절차탁마합니다.

3. 사람다움, 사회다움

1) 사회사업의 원초적 근본

사회사업은 사람과 사회에 대하여 그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탐구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 이는 사회사업의 원초적 근본입니다. 사회사업 개념과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과 방법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고 이로써 좌우됩니다.

2) 사람을 돕는 일인데...

사람다움을 생각하지 않고도 사람을 사람답게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람답게 돕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람다움을 생각지 않는다면 애당초 사람답게 도우려는 뜻이 없음이고, 사람다움을 생각할지라도 그를 좇아 행하지 않거나 그로써 성찰하지 않는다면 끝내 사람다움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이니, 이것이야말로 사회사업 부정명의 극치입니다.

참조: 복지소학 4쪽 '正名', 54쪽 '犬馬之養'

3)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사업가로서는 무어라 할까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러해야지, 이래야 사람 사는 사회라 할 수 있지' 하는 속성 가운데,

사회사업으로써 크게 좌우되는 속성, 사회사업가의 처지와 역량으로써 잘 살릴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회사업'은 '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참조: 4쪽 '사회사업 개념'

4)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은 사회사업으로써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일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사자의 복지인데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가 이루게 돕지 않고, 사회사업가가 이루어 주는 일이 많습니다. 당사자를 대상화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사업으로 인해 당사자가 자기 복지 자기 삶에서조차 소외되곤 합니다.

참조: 111쪽 '대상화' | 복지야성 6쪽 '소외 모순', 7쪽 '자주 모순'

5)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어울려 사는 관계는 사회사업으로써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일에 둘레 사람과 함께하여 이루게, 당사자와 둘레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사자와 둘레 사람이 어울려 사는 관계, 이 관계 밖에서 따로 돕는 일이 많습니다. 이 관계에 미칠 영향을 헤아리지 않고 서비스 자원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둘레 사람을 봉사자로 동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사업으로 인해 둘레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사회적 지지체계, 안전망이 허술해지는 겁니다. 사실상 천륜이 끊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불평등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변질하기도 합니다.

참조: 15쪽 '관계' | 복지야성 8쪽 '공생 모순과 소유·존재 모순'

6) 사람 사는 사회는 약자도 살 만해야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①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사회사업은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딱 좋은 일입니다. 약자를 도울 때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주선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흔히 약자 전용 수단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과 약자가 서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약자는 여느 사람과 다른 곳 다른 것을 이용하는 양상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②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 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약자를 만나고 돕는 사회입니다.

사회사업은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딱 좋은 일입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하기보다 저마다 제자리에서 자기 일로써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게 주선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흔히 약자를 따로 떼어 돕습니다. 약자를 분류 분리하는 일을 주도하거나 방조하곤 합니다. 약자 별천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유배 수용 고려장 인종청소나 다름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사업으로 인해 사람들은 약자와 멀어지고 약자 감수성이 줄어듭니다. 제 마당 제 삶터에서 약자를 도울 일은커녕 만날 일조차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약자를 사람 사이 바깥 곧 지역사회 변방이나 별천지로 밀어내고 떼어 놓는 사회는 말 그대로 비인간적 사회입니다. 약자를 복지 기관에 내맡기고 후원 봉사나 하계 하는 사회사업도 인간적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 복지여성 5쪽 '사람을 떼어 놓는 복지기계', 8쪽 '공생 모순', 51쪽 '넘비형 후원 봉사'

7) 사람 사는 사회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데 사회사업은 딱 좋은 일입니다. 복지를 이룬다는 명분, 특히 약자의 복지를 이루는 일로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살아납니다. 정겨운 사람살이가 살아납니다. '아! 사람 사는 것 같다. 그래!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사업이 이웃 인정을 대신하곤 합니다. 이런 사회사업 성할수록 이웃 멀어지고 인정 쇠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이웃 인정을 대신하는 인공복지 많아질수록 선진 복지국가라 하는 말까지 나뉩니다.

이웃과 인정은 사람 사는 사회의 생명력인데 이를 버리고 인공복지로 연명한다면 이는 식물사회입니다. 사실상 죽은 사회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공상 영화에 나오는 사회가 더러 이러합니다. 차별 가난 고통이 없는 사회, 의식주는 물론이고 직업 교육 의료 따위의 복지를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사회, 그런데 이웃이 없고 인정이 없습니다.

관계의 질이나 소통의 양은 다를지라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이웃과 인정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사람도 많고 사람들에게 물질도 능력도 많습니다. 이웃과 인정으로써 복지를 이루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웃과 인정이 약해졌다면 더욱 이웃과 인정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과 인정이 살고 이웃과 인정이 있는 사회라야 약자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인정이 약해졌다고 대신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면, 가깝게는 이웃과 인정을 마저 허물어 버리는 일이고 멀게는 복지 바탕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웃과 인정이 없는 곳에서는 약자가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8) 공생 : 어울려 산다, 더불어 산다, 함께 산다.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구분하여 쓰는 편입니다.

① 어울려 산다

사람들을 만나다 사귀다 가까이한다, 사람들 속에 끼인다 섞인다는 정도의 공생입니다. 예: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둘레 사람과 어울려 살게 돕습니다.

② 더불어 산다

상대를 배려하고 도우며 사는 공생입니다. 예: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약자를 만나고 돕는 사회입니다.

③ 함께 산다

어울려 산다, 더불어 산다 할 자리에 대신 써도 괜찮아 보이는, 간결해서 좋아 보이는,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나 좀 느슨하다 싶은 공생입니다. 어울려 산다거나 더불어 산다 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관심이 없고 교류가 없고 상대를 배려하거나 돕지 않아도, 그저 동거 공존할 뿐이라도, 함께 산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수준의 공생입니다.

9) 약자도 살 만한 사회,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약자도 살 만한 사회는 소극적 형식적 기계적 공생에 가깝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적극적 실질적 인간적 공생에 가깝습니다.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는 한마디로 약자와 함께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자를 돕는 적극적 행위까지 담아내기에는 '함께 산다'보다 '더불어 산다'가 더 알맞은 것 같습니다.

4. 사회사업 개념

1) 사회사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하여 깨닫는 만큼 사회사업에 대하여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사업가의 길은 수도자의 길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복이나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일로 본다면 사회사업은 참으로 ‘불가지 불가해’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며 이상향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 곳을 모릅니다. 갈 곳을 모르는데 길은 어찌 알겠습니까?

정의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본디 정답이 없는데, 누군가 불쑥 사회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누가 선뜻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하듯 묻는다면,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대답하고 싶겠습니까? 대답하더라도 때에 따라 응할 터이니 어찌 일정한 대답이 있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누구이며 왜 묻는지, 어떤 수준으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이런 맥락을 살펴 그때그때 달리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대답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답하기 꺼리는 이유가 있거나,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답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회사업가라면, 대답할 말을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 제게 사회사업은 그저 우리네 사람살이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덕이고 지혜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평범한 삶 속에 있는 도움 나눔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돕는 일이 사회사업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 사회사업에 본디 그렇다 할 개념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의할 뿐입니다. 다만 제대로 정의하려면, 사회사업만 그렇다거나 특히 사회사업이 그렇다 할 만한 속성을 밝혀 다른 일과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은 다 그렇다거나 대개 그렇다 할 만한 속성으로써 사회사업을 어지간히 아우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첫째, 다른 일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일들도 복지에 기여합니다. 대상도 소재도 방법도 사회사업만 그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사회사업을 포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회사업은 때와 곳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아우르기에는 그 실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이러므로 특정 관점에서 나름대로 정의할 뿐입니다. 결국 누가 어떻게 정의하든 그것만 사회사업이라 할 수 없고 다른 건 사회사업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 개념을 정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념도 없이 실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참조: 복지야성 64쪽 '개념이 없으면'

복지요결은 일반인 관점, 전공자 관점, 생태 관점, 사회 관점, 근본 관점, 이렇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사회사업을 정의합니다.

① 일반인 관점 : 사회사업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회사업을 이렇게 봅니다. 참조: 112쪽 '어려운 사람' 정보원 공통계시관 2103 '사람들이 사회사업가를 누구라고 하는가?' 김종원

② 전공자 관점 :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로서 돕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돕는다면 어떤 곳이든 사회사업 현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사회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영상을 좋아한다면 비디오 가게를 사회복지사 사무소로 삼아 사회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주부 모임, 영상을 만들거나 영화로 공부하는 청소년 동아리는 어떨까요?

주부 사회복지사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로서 동네를 돌아보면, 동네의 이런저런 공간과 사람들이, 동네에서 보고 듣는 일들이, 사회사업 의미를 띠게 되지 않을까요? 미생물이 흙 속을 헤집고 다니며 생기를 소통시키듯, 사람 사이 두루 다니며 인정을 소통시키고 좋은 일을 주선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동네 그 마을은 정붙이고 살만 하지 않을까요? 참조: 복지경영 '자비량 사회사업가'

③ 생태 관점: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환경 사이를 좋게 하는 일입니다. 당사자와 환경 사이 그 생태를 좋게 하는 일, 곧 당사자와 들레 사람이 잘 어울리고 당사자와 지역사회 복지 수단이 잘 맞게 하는 일입니다.

④ 사회 관점: 사회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일, 사회적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사회사업은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일입니다. 비사회적으로 물적·물리적·기술적으로? 복지를 이루는 사업, 인간관계와 무관하게 복지기관에서 금품이나 기술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는 사업 곧 물적 사업, 기술적 사업도 하지만 이것이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아닙니다.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사회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돕고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 '사회적 사업'입니다.

사회사업은 사회적 복지를 도모하는 일 곧 사회 속에, 사람들 사이에, 복지가 흐르게 하는 일입니다. 비사회적 복지 곧 복지전용체계 안에서 누리는 복지, 관계와 무관하게 누리는 복지도 제공하지만 이것이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아닙니다. 사회사업 핵심 소관은 사회적으로 누리는 복지 곧 사회의 일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속에서 누리는 복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지, '사회적 복지'입니다. 참조: 115쪽 '사회적 사업, 사회적 복지'

⑤ 근본 관점: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참조: 4쪽 이는 일반인 관점, 전공자 관점, 생태 관점, 사회 관점의 사회사업 속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3) 사회사업 알짜

사회사업이 줄어듭니다.

자치단체나 종교단체가 가져가고 시장과 사회정책이 흡수하고 자원봉사자가 대신하고 다른 전문직이 가져가고, 다른 이름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사회사업 이름으로 제공해 온 많은 서비스가 시장과 사회정책 안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겁니다. 사회사업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나 사회사업 말단에 놓이게 될 겁니다.

결국 사회사업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끝까지 남을 사회사업 뿌리와 그루터기, 사회사업 고갱이가 무엇일까요?

사회사업이 늘어납니다.

사회사업이 다변화하거나 저변이 확대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쪽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폭넓게 융합한다, 다양한 영역으로 스며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사업을 더욱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과 융합해도 변할 수 없는 사회사업 본질, 어떤 영역에 들어가도 놓을 수 없는 사회사업가의 본분, 그 알짜가 무엇일까요?

더불어 살게 돕는 일,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사회사업 뿌리이고 본질이며 사회사업가의 핵심 본분입니다.

참조: 4쪽 사회사업은 한마디로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 복지야성 44쪽 '사회사업 본분' | 복지소학 6쪽 '親民之道'

5. 사회사업 가치

1)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가치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은 복지를 이루는 데 유용하거나 바람직한 속성입니다. 복지요결은 이를 사회사업 가치라 합니다. 엄밀히 보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회사업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2) 주체의식과 자주성

주체의식은 내면의 속성입니다. 자기 삶 자기 복지라고 여기고 주관하려는 의지입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려는 생각,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주성은 외형의 속성입니다. 자기 삶, 자기 복지에서 실제 주인 노릇 하는 정도, 주인 되는 정도를 가리킵니다.

흔히 자주성과 주체의식을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자주성을 종종 내면의 속성을 가리키는 데 쓰기도 합니다. 주체성도 이와 같아서 흔히 주체성과 자주성을 넘나들며 섞어 씁니다.

사회사업 실제에서 자주성은 당사자의 주체의식보다 사회사업 방식에 의해 더 좌우됩니다. 주체의식이 강해도 사회사업가가 일방적으로 도우면 자주성은 낮아집니다. 주체의식이 약해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는 방식으로 도우면 자주성은 높아집니다.

3) 공생성

공생성은 함께 사는 속성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 양쪽의 속성을 아우릅니다. 당사자가 둘레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아울러 '지역사회 공생성'이라고 했습니다. 참조: 130쪽 '공생'

4) 자주성의 한계

복지를 이루는 데 자주케 한다거나 자주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는다 합니다. 어떤 복지를 이루는 '그 때 그 일'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은 어떤 일이든 '그 일로써' 자주성을 살린다?

'그 때 그 일에서' 자주케 할 뿐입니다.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길 바라지만 거기까지 사회사업가의 책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를 항상 약자나 종합 대상자로 보지 않음과 같습니다. 참조: 112쪽 '약자'

자주성에 대한 사회사업의 한계, 자주케 해야 할 '그 때 그 일'의 범위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관과 시설이 크게 다르고 지역아동센터는 그 중간쯤 됩니다. 참조: 120쪽 '구실'

6. 사회사업 이상

1) 이상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목표만 보면 지치기 쉽고 방향으로만 보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어느 일로든 얼마쯤 이룰 수 있을 만한 목표, 언제나 여전히 '저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방향, 이렇게 목표와 방향 양쪽으로 보면 지치거나 느슨해지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2) 사회사업 이상도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서 찾습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보다 복지사업을 더 크게 보고 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상을 거슬러 눈앞의 이익, 복지사업에 한눈판다면 이는 '진짜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우매한 생각입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3) 사회사업 이상도 현실을 헤아려 실용성 있게 구체화합니다. 현실 곧 실제 하는 일에 닿을 만큼 가깝게,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그림자 하에 설정합니다.

다만 하는 일이나 처지와 역량, 그 현실이 다 같지는 않으니 다른 사회사업 현실에서도 바라본직한 수준으로 어지간히 높여 잡습니다. 목표로는 지금 이 현실에서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방향으로는 어느 현실에서나 '저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멀게 함과 같습니다.

4) 사회사업 이상은 사회사업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최상의 지침이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어찌 나아갈 수 있으며, 이상을 거슬러 달음질한다면 그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참조 : 72쪽 '사회사업 기획', 77쪽 '정합성 평가' | 복지야성 62쪽 '엄중한 현실' | 복지소학 16쪽 '定向 正道', 10쪽 '立志'

5) 남녀노소 빈부강약이 어울려 사는 사회

우리가 하는 일에 닿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일로써 닿을 수 있을까 하여 사회사업 이상으로 쓰지 못했으나, 바라는 바입니다.

사회사업은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사회'를 지향한다 할 때 '누구나'를 작게 쓴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6) 문제가 없는 세상은?

① 개인의 삶도 사회의 사람살이도 이런저런 문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삶의 총체인데, 문제가 없으면 좋기만 할까요? 확신이 없습니다.

② 자신도 없습니다. 세상 문제나 지역사회 문제는 물론이고 한 사람의 문제도 감당키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③ 문제 해결이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일이고 단위 사업에는 중요한 목표일 수 있지만 사회사업 이상이라 하기에는 너무 낮아 보입니다. 사회사업에서는 공생이 근본이고 복지는 말단인데, 문제 해결은 복지, 그것도 소극적 복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가로서 꿈꾸는 세상은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 살 만한 곳, 괴로움도 함께하며 사람 사는 듯 사는 곳, '사람 냄새' 나는 곳, 인간적인 세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복지사회와 다릅니다. 인공복지 늘어나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에서 멀어질수록 선진 복지국가라 하는 전문가주의 이상과 아주 다릅니다. 참조: 복지야성 15쪽 '전문가주의'

7) 발전

소박해짐이 발전입니다.

소박해야 뜻이 맑아지고 인정이 자랍니다.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이 발전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어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진미는 물처럼 담박하고 지극한 문장은 평범할 뿐이라 했습니다.

사회사업도, 복지도, 그럴 겁니다.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소박할 겁니다.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 그저 평범한 일상일 겁니다.

참조: 복지소학 40쪽 '발전'

뜻은 사람다움의 알맹이이고 인정은 사회다움의 알맹이입니다. 그런데 대개 소박해야 뜻이 맑아지고 소박한 데서 인정이 자라니, 이러므로 소박해짐이 발전이라 합니다.

발전하더라도 화려하거나 복잡한 일, 특별하거나 인위적인 일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지극한 경지의 사회사업은 대개 소박하고 단순할 겁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러울 겁니다.

당사자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돕는 일은, 예컨대 시설 사회사업은, 발전에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주하는 일, 곧 '내 삶이고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짐이 발전입니다. 둘레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 풍성해지고 평범해지고 자연스러워짐이 발전입니다. 갈수록 더 나은 구실, 곧 덜 예외적이고 더 책임 있고 더 평범한 구실을 하게 됨이 발전입니다. 참조: 53쪽 '입주자'

8) 사회사업 하수와 고수

① 사회사업 하수는 새롭거나 특별한 일을 찾습니다. 나만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와~ 기발하다!' 합니다.

사회사업 고수는 옛것이든 새것이든, 남과 다르든 같은, 다만 마땅함을 좇아 행하되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② 사회사업 하수가 주선하는 관계는 봉사자 대 대상자, 후원자 대 대상자, 이런 관계이기 쉽습니다.

사회사업 고수가 주선하는 관계는 보통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도와 주었다고 봉사자라 하지 않고 도움 받았다고 대상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이고 친척이고 동료이고 친구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③ 사회사업 하수는 복지를 이루어 줍니다. 복지를 이룸이 '복지사업'으로 보입니다. 사회사업가는 빛나는데 당사자는 구차해 보이거나 사회사업가가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이기 쉽습니다.

사회사업 고수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복지를 이룸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로 보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돌아갑니다.

④ 사회사업 하수가 하면 사람들은, 그가 이룬 일 복지사업을 보고 감탄합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냈을까?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런 자원을 개발했을까? 정말 대단하다.' 합니다.

사회사업 고수가 하면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드러나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보고 감동합니다.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합니다. 당사자의 인격이 살아 있고 지역사회 사람 사이에 정겨운 관계가 살아 있는, 그렇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에 흐뭇해지고 몽클해지고 따뜻해지고 촉촉해집니다.

7. 사회사업 철학

1) 복지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예전에는 복지가 평범한 이웃 관계 속에 보이지 않게 소통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격과 자존심을 지켜 호혜적 관계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음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사람살이였을 뿐, 복지사업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 복지를 보편적이게 합니다.

① 보편적 설계

일반 복지 수단을 애당초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겁니다. 장애인 노인이나 시골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같은 사회적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겁니다.

② 보완책

기존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보완하는 겁니다. 기존 복지 수단에 특수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요금을 감면하거나 비용을 보조하고, 장애인에게 보조 기기나 도우미를 지원하고, 노인에게 우선권을 제공하고, 소수자에게 특별로 할당하는 조치 따위가 그러합니다.

③ 보편적 서비스 = 보편적 설계 + 보완책

일반 복지 수단을 애당초 보편적으로 설계하거나 기존 일반 복지 수단을 보완하여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④ 약자를 분류 분리하여 약자 전용 복지 수단으로써 돕는 복지사업, 대상자가 불가촉천민입니까 흉악범입니까 전염병자입니까? 교도소에서든 의식주 챙겨줍니다. 운동, 학습지도, 컴퓨터 교육, 직업 훈련, 오락, 치료, 상담, 온갖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사회사업 주안점 - 생태

1) 업계의 생태를 살펴보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분야의 사업 생태 곧 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봉사단체 공공기관의 서비스 생태를 헤아리고 시장 생태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 생태를 헤아리지 않으면 동종·유사 사업 주체들과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곳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견제를 받기도 합니다. 대상자 쟁탈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제공하는 우리 서비스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도 있습니다.

2) 생선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생선을 얻지 못하니 생선을 주겠다? 고기 잡을 줄 몰라서 생선을 얻지 못하니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생선을 줌으로써 죽할 수도 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줌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생선을 주거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일도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생선 문제가 당사자만의 문제? 생태 관점이라면?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어구를 장만하고 어로 비용을 마련하게 돕는다. 가난해도 생선을 얻을 수 있는 제도나 문화, 어장에 장애나 차별 없이 접근하여 고기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생선을 사야 한다면 유통 정보 제공, 구매 비용 지원, 시장 접근성과 유통 질서 개선... 한편, 생선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체제 세계질서와 얽혀 있다면?) 생선 사회사업이라면?

① 당사자에게 생선을 준다. → 생선을 얻게 합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 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거나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돕습니다.

② 지역사회에서 생선을 후원 받아 전달한다. → 생선을 주게 합니다. 고기를 잡거나 생선을 살 때 조금 더 잡거나 사서 나누게 합니다. 따로 시간 내서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줄 봉사자나 강사를 찾는다. → 생업이나 취미활동으로 고기 잡는 김에 가르쳐 주게 합니다.

3) 문제와 해결책

문제는 일종의 생태 현상입니다. 좋지 않은 생태 현상입니다. 이쪽과 저쪽이 잘 맞지 않는 현상, 상대와 맞지 않아서 경험하는 불편고통 갈등 따위의 어려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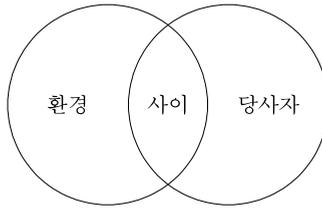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는 어떤 기능이 손상·결핍된 사람이 그 기능이 필요한 환경을 만날 때 겪는 어려움, 당사자의 이 역량·자원으로 저 과업·욕구를 이루려 할 때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당사자와 환경이 잘 맞지 않거나 당사자의 내부 요소들이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좋지 않은 생태 현상입니다.

흔히 가난 질병 기능장애 노화 독거 결손 중독, 특이한 성격 외모 행동, 환경의 위협 재해 장애 같은 한쪽 조건 자체를 문제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조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한쪽 조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쪽 조건이 나빠도 다른 쪽에 감당할 만한 탄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탄력성은 외부 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저력입니다. 맺집 융통성 회복력입니다. 문제를 예방 해소 완화 극복하는 강점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생태 현상으로 보면 해결 경로를 여러 갈래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환경 가운데, 당사자 쪽에 주력할 수도 있고 환경 쪽에 주력할 수도 있습니다. 약점과 강점 가운데, 약점을 다스리는 데 주력할 수도 있고, 강점을 살리는 데 주력할 수도 있습니다. 욕구와 역량 가운데, 욕구를 낮출 수도 있고 역량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공유영역의 문제 현상과 양쪽의 복지 바탕 가운데, 문제 현상에 대응할 수도 있고 양쪽의 복지 바탕을 살리는 데 주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개입하든 사회사업은 결국 이쪽과 저쪽이 잘 맞게 해 주는 일입니다. 이쪽과 저쪽 사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 이쪽과 저쪽 사이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4) 이념과 관점



① 개인 관점

당사자 쪽 조건에 주목합니다. 당사자 쪽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당사자를 치료 교육 후원하여 환경에 적응하게 돕는 겁니다.

② 환경 관점

환경 쪽 조건에 주목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편의시설 따위의 물리적 조건과 인식 문화 제도 따위의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여 당사자 쪽에 적응하게 돕는 겁니다.

③ 생태 관점

당사자와 환경 양쪽을 헤아려 그 사이를 좋게 합니다. 한쪽의 적응보다 상호 적응을 도모합니다. 당사자를 직접 도울 뿐 아니라 환경을 바꾸기도 하여 이쪽과 저쪽이 잘 맞게 하는 겁니다.

1950~1970년대 사회사업 전공자는 우파 색이 짙어 보입니다.

1980년 전후로는 좌파 성향을 보이더니 지금은 우파에 가깝거나 이념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전공은 중도, 주장은 좌파, 실천은 우파?

5) 생태복지와 복지생태

① 생태복지는 자연 생태에 좋은 복지사업입니다.

자연 생태와 조화로운 복지사업, 자연 생태를 좋게 하는 복지사업, 자연 생태에 덜 해로운 방식의 복지사업, 자연 생태를 활용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예컨대 친환경 설계와 자재로 시설을 짓습니다. 복지사업 하는 데 자원을 덜 쓰고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물품을 쓰되 되도록 지역에서 생산자와 직거래합니다. 생태 조사, 녹색가게나 벼룩시장, 재활용 교실, 동물보호나 자연보호 활동, 천연 비누 만들기, 하천 청소 봉사 활동, 차 없는 거리 행사, 도시농업 동호회, 텃밭 가꾸기, 생태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운동, 이런 활동에 동참하거나 이런 활동을 복지사업으로 만듭니다. 숲 속 프로그램, 공기 좋은 곳에서의 요양 사업처럼 자연을 활용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복지사업으로 만듭니다.

② 복지생태는 복지에 좋은 사회 생태입니다.

지역사회 속에, 사람들 사이에, 복지가 흐르는 '사회 생태'입니다.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한, 지역사회 사람살이 생태입니다.

복지생태를 지향하는 사회사업은 당사자의 곳에서,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으로써 복지를 이루되 소박하게 이루게 돕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생태에도 좋습니다. 자연 생태 따로 챙기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생태복지가 절로 이루어집니다.

생태복지가 복지생태에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자연 생태에 좋은 사업이라도 복지기관에서 복지기관의 자원으로써 하면 사람살이 생태를 해칠 수 있습니다. 생태적이라는 방식 때문에 오히려 여느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복지기관에서 복지기관의 것으로써 한다면 생태복지사업도 실은 생태적일 수 없습니다. 시설을 유지하는 데 많은 자원을 쓸 뿐 아니라 사람들의 욕구를 부추기고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9. 사회사업 주안점 - 강점

1) 강점과 약점

사회사업에서 강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이롭거나 쓸모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사전은 강점을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이라 하는데 사회사업은 남과 비교하길 꺼립니다.

약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불리하거나 문제에 취약한 점, 문제를 야기 유지 악화하는 조건입니다. 약점을 다스린다 함은 이를 보강하거나 제거 약화하거나 바꾼다는 말입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난 질병 장애 노화 독거 결손 중독, 특이한 성격 외모 행동 같은 조건이 약점이 되곤 합니다. 약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흔히 약점을 그냥 문제라고 합니다. 참조: 143쪽 '생태 관점 문제'

2) 장점과 단점 | 문제

장점은 좋은 점이나 잘하는 점, 어떤 가치관이나 눈높이에서 그렇다고 보는 점입니다. 사회사업에서 흔히 장점을 살려 복지를 이루는데 그러면 장점이 곧 강점이 되는 셈이라, 보통은 장점과 강점을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다만, 장점이라고 다 살려 쓸 건 아닙니다. 어떤 장점은 복지를 이루는 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재주가 있다고 다 부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재주는 그 사람을 수고롭게 하고 더 소중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원도 있다고 다 쓸 일이 아닙니다. 자원을 쓰느라 일의 핵심이나 소중한 가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좋지 않은 점 또는 모자라거나 못하는 점, 어떤 가치관이나 눈높이에서 그렇다고 보는 점입니다. 사람 사안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단점이 곧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사업 실제에서는 흔히 단점을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점과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문제'라고 합니다. 참조: 143쪽 '생태 관점 문제'

3) 당사자 쪽 강점과 사회사업가 쪽 강점

당사자의 경험 지식 재주 물질 인간관계, 당사자의 희망 의지 노력, 당사자가 좋아하는 일, 잘했거나 잘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저력, 잠재력, 가능성... 당사자 본인의 이런 강점과 돌레 사람의 강점이 '당사자 쪽 강점'입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은 사회사업가의 지식 정보 재주 인맥, 복지기관의 시설 예산 서비스 프로그램, 후원금품과 봉사자, 국가나 지자체의 복지 시책 자원 따위입니다.

4) 직접 강점과 간접 강점

직접 강점은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보이는 강점입니다. 직접 강점을 동원하면 대상자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낙인을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간접 강점은 문제와 상관없어보이는데 문제를 희석 상쇄 무력화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하는 강점입니다.

복지사업을 강점으로 활용할 경우, 적극적 복지사업은 간접 강점에 속하고 소극적 복지사업은 대개 직접 강점에 속합니다.

참조 : 115쪽 '소극적 복지사업과 적극적 복지사업'

5) 임의로 일을 만들 수 있다면

① 적극적 복지 사업 + 당사자 쪽 강점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하여,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적극적 복지사업을 벌임이 최선입니다.

참조 : 115쪽 '소극적 복지사업과 적극적 복지사업'

② 소극적 복지사업 + 당사자 쪽 강점

문제를 다루더라도 당사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해결하게 돕는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 모르는 척 묻어 두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당사자 쪽 강점이 보일 때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③ 적극적 복지사업 + 사회사업가 쪽 강점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는 일은 적극적 복지사업이라도 조심스럽습니다.

④ 소극적 복지사업 + 사회사업가 쪽 강점

당사자의 문제에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들이대기, 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당사자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6)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면

약점을 다스려 해결하려 들기보다 강점을 살려 해결 극복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 쪽' 강점, 간접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극복하게 도움이 좋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이나 직접 강점의 활용은 삼가되 활용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활용합니다.

7) 대안 강점

새로운 강점입니다. 어떤 복지를 이루기 위해 개발하거나 복지를 이룰 때 생겨나는 새로운 강점입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당사자에게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인격적으로 귀하게 대접받는 경험, 주체로서 무엇인가 이루어 내는 경험 그 성취감, 그로써 칭찬 감사받고 그로써 얻는 자존감, 이런 강점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저력이 되고, 복지를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지역사회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강점이 생겨납니다. 남을 돕는 경험, 그로써 느끼는 보람 재미 감동, 사람 사는 맛, 풍성해지는 이웃 관계, 애정 욕구 자존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충족, 이런 강점이 생깁니다. 이것이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약자도 살 만하게 하는 바탕이 되고 누구나 정붙이고 살 만하게 하는 복지 간접 자본이 됩니다.

8) 남의 삶에 개입하는 일, 특히 '문제'를 건드리는 일은 조심스럽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 일이 과연 약인지 독인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릅니다. 당사자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문제 나뉘이지만, 다루기 조심스럽습니다. 그 문제를 꼭 다루어야 하는지, 지금 다루어야 하는지, 잘 다룰 수 있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신중히 헤아려 자신 없으면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처지 역량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는 모르는 척하고 짐짓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일, 문제를 희석 상쇄해 버릴 만한 일, 적극적 복지를 이루고 누리는 일, 이런 일을 벌여서 그 경험 그 힘으로써 문제를 감당 극복 초월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된 문제가 대개 그러합니다.

참조: 151쪽 '문제와 사람', 154쪽 '문제에 대한 인식', 175쪽 '문제를 따돌리기' | 복지야성 61쪽 '문제와 씨름함이 현실적일까요?' | 복지소확 23쪽 '樂以忘憂'

9) 강점 관점, 강점 중심, 해결 중심

강점 관점이 아니면 무슨 관점일까요? 강점 관점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관점은 무슨 관점일까요?

① 임의로 일을 만들 때는, 무엇을 보고 일을 벌이는가 곧 무엇을 중심으로 일을 벌이는가에 따라 강점 관점과 문제 관점으로 나눌 수 있고, 강점 중심 사업과 문제 중심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②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실천 유형이든 문제를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모두 문제 관점이고 모두 문제 중심 사업입니다. 강점 관점, 강점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실천 유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편, 문제는 약점을 다스려 해결할 수도 있고 강점을 살려 해결할 수도 있으니 이 때는 강점 관점의 반대가 약점 관점이고, 강점 중심 접근의 반대가 약점 중심 접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문제를 다룰 때는 강점 관점의 대안이 약점 관점일 수는 있어도 문제 관점일 수는 없습니다. 참조: 146쪽 '강점과 약점', 143쪽 '생태 관점 해결 경로'

다만, 사회사업 실제에서 문제를 다룰 때 더 흔히 볼 수 있는 '강점 관점의 반대 관점'은? '강점 관점'입니다. 당사자 쪽 강점에 주목하여 그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돕는가? 사회사업가 쪽 강점에 주목하여 그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곧 어느 쪽 강점에 주목하는가? 어느 쪽 강점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는가? 이런 차이입니다.

③ 이미 문제를 다루기로 한 마당에 어떤 방식만 특별히 '해결 중심' 또는 '해결책 중심'이라고 해도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일인데 '해결 중심'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문제를 다룰 때는 모두 해결책 중심으로 일하고 대개 강점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어떤 실천 방식에 특유한 속성인 양 '해결 중심'이니 '강점 중심'이니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10) 문제와 사람

보지 않거나 덮어두는 편이 나은 문제도 있습니다.

지능이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 이상행동이나 틱 증상이나 좋지 않은 버릇이 만성화한 사람, 술 담배 도박 오락 약물 따위의 중독증이 있는 사람, 문제아 취급당하는 사람...

자기 존재가 문제와 동일시될 정도로 오랫동안 둘레 사람들의 낙인 눈총 구박 미움 잔소리 멸시 천대에 이리저리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미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별 효험이 없었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받은 고통과 상처가 이미 족할지도 모릅니다. 숨 쉴 곳도 없을 만큼 내몰리거나 휘둘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회사업가마저 문제를 보고 달려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문제 나름이고 방법 나름이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사회사업가만이라도 이런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고 좋은 점을 알아주고 강점을 살려 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강점으로써 문제를 희석 상쇄할 만한 일, 자존감을 살려 줄 만한 일, 둘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일,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한 일, 살맛 나는 일, 이런 일을 하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참조: 복지야성 47쪽 '치료라니...'

어떡하든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다루겠지만, 더러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곤 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한다 해도 기회비용이 큼니다. 사회사업가가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부담감에 짓눌리거나 무력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당사자는 두고두고 낙인이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으레 그러려니 해 버리거나 아예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11) 문제와 강점

① 사이렌과 오르페우스

지중해 어느 섬에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가 지나가면 감미로운 노래로 유혹했습니다. 요정 노래에 홀린 선원들이 그리로 다가가다가 좌초하여 요정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무사히 통과한 배가 두 척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맹한 영웅 율리시스가 이끌었습니다. 율리시스는 섬을 지나는 동안에 선원들 귀를 밀랍으로 막아 요정 노래를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몸은 돛대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아서 지나갔습니다. 요정 유혹과 고통스럽게 싸워 이긴 셈입니다.

또 하나는 음악 영웅 오르페우스가 이끌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사이렌 노래보다 더욱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선원들은 요정 노래에 홀리지 않고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오르페우스 연주를 가까이하니 요정 노래는 절로 멀어진 겁니다. 그리스신화

② 바위와 강물

양쯔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위를 만났습니다.

“바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위를 없애 주랴, 강물이 불어나게 해 주랴?”

중국인 워치만 리가 기도하다 본 환상 이야기라고 합니다.

문제 없애기 : 바위와 씨름합니다. 바위를 깨뜨리거나 치워줍니다. 배를 들어 줍니다. 우회 수로를 만들어 줍니다. 이는 미봉책입니다. 지금 이 바위를 해결해 주면 이곳은 지나가겠지만, 긴 항해에 이 바위뿐이겠습니까?

강점 살리기 : 바위를 무시하고 따돌립니다. 지금 이 바위뿐 아니라 다른 바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듭니다. 배와 강의 탄력성으로써 바위의 영향을 희석 상쇄 무력화하는 겁니다.

바위를 상대하지 않고 배와 상관합니다. 어떤 바위도 넘을 수 있는 구조나 장치를 갖추게 합니다. 배의 탄력성으로써 바위를 넘게 하는 겁니다.

바위와 씨름하지 않고 강물과 상관합니다. 강물을 불립니다. 강의 탄력성으로써 배를 띄우는 겁니다.

③ Dream vs. St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fantasy, to help me through reality.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 Abba

어려운 일이 없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난관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길이 험하거나 멀지 않고 현실의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미래가 절로 다가와 주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꿈이 있고 부를 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강을 건널 수 있고, 때로 실패할지라도 끝내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멀고 험한 길이라도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돕고 싶습니까? ①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하거나 문제마다 해결해 준다. ② 문제를 만나도 살아갈 수 있는 강점을 갖추게 돕는다.

12)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문제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더 성숙하고, 그만큼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공동체 결속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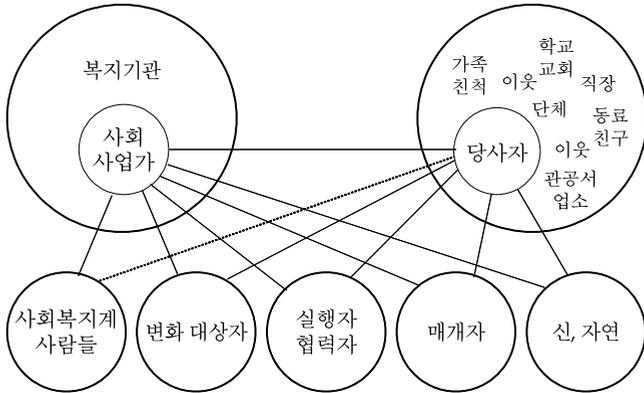
② 잠초 벌레 죽이듯 문제를 해치우려는 일이 꼭 좋을 거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개입으로 인해 한 개인의 인생도 지역사회 사람살이도 그 총체성을 잃어 가는 것 같습니다.

③ 문제의 근원을 다스리는 방책이 아니라면, 문제를 보고 덤벼드는 일이 그야말로 뒤치다꺼리에 그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실상을 가려서 오히려 문제의 시너 노릇 숙주 노릇 하며 문제를 굳히거나 키울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앞세워 약자를 더욱 약자 되게 하거나 문제를 지속시키는 세력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약자를 착취하는 사람을 방조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누구나 경험하는 일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자칫 그것을 문제라 규정하고 전문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무례를 범하기 쉽습니다. 어설픈 지식이나 관심으로 멀쩡한 사람을 복지대상자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니 돌아섭니다. 긴급하거나 치명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돌아서는 심정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물러서니 비겁한 사람, 편협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섭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돕고, 할 수 있는 만큼 돕습니다. 지금 제 수준에서는 이것이 최선인가 합니다.

10. 사회사업 주안점 - 관계



1) 당사자 쪽 관계

사회사업이 주력하여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해야 할 관계는 당사자 쪽 관계입니다. 당사자 쪽 관계야말로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지탱하는 근본 관계이고 항산적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쪽 관계는 당사자가 속한 지역사회 사람 사이의 관계, 당사자와 이웃의 관계, 당사자와 가족·친지의 관계입니다. 당사자 쪽 관계 가운데 자연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만 자연과의 관계나 신과의 관계나 자아와의 관계는 전문하여 다루는 직업이 따로 있으니, 사회사업가 자리는 ‘사람 사이 관계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① 봉사자 대 대상자

당사자 쪽 인간관계를 ‘봉사자 대 대상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에서는 대상자 쪽의 격이 떨어져 보이기 쉽습니다.

봉사자는 천사처럼 보이는데 대상자는 구차해 보입니다. 봉사자의 명예와 대상자의 불명예가 비례합니다. 봉사자 대 대상자 관계는 불평등하기 쉽습니다. 봉사자는 높고 봉사 대상자는 낮은 형세이기 십상입니다. 봉사 대상자라가 ‘애 같은 노릇, 약자 노릇, 환자 노릇’ 하기 쉽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꺼림칙하고 조심스럽습니다.

평범한 이웃을 봉사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으로서,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게 함이 좋습니다. 어느 인간관계에서는 돕는 사람을 봉사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이고 친척이고 친구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당사자 쪽 인간관계를, 도움 주고받는 관계를, 이처럼 보통의 사회적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이게 돕습니다.

② 이웃 관계의 독립

이웃 관계의 독립은 가능할까요? 바람직할까요? 이웃 관계를 주선한 후에는 개입을 종결해도 될까요? 종결해야 좋을까요? 관계 나뉘고, 상황 사안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선뜻 그렇다 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이웃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지거나 부적절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주선한 후에도 조정 중재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때로 살펴서 칭찬 감사로써 응원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관계를 주선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웃이 바뀌기도 하고 다른 대상자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문제나 욕구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돕는 이웃이 많아도, 그 관계를 살피고 유지 보수하고 거두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그물에 ‘벼리’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삼천 코라도, 그것을 꿰어 생동시키는 벼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회사업가는 관계의 선을 만들 뿐 아니라, 거미처럼 어부처럼 선들을 엮어서 그물을 만들고 보수하고 작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참조: 168쪽 ‘주민조직의 독립’

③ 힘들게 하는 관계

관계가 있으므로 오히려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해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괴로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여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말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건 어찌면 이런 관계까지 끌어안고 부대끼며 산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미운 정’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관계조차 없는 약자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정붙일 데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라는 겁니다. 관계가 없거나 빈약하여 약자가 소외·방치되는 상황 - 이것이야말로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회복 개발하고 유지 생동시키며 개선 강화하기, 이런 일도 부작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버리고 달리 무엇으로 사람을 돕겠습니까? 사회사업가가 말입니다. 사회사업가가 관계를 대체하거나 관계와 무관하게 돕자 할 수는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입니다.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입니다.

괴로운 관계까지 주선하거나 옹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사에 반하여 관계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면 괴로운 관계를 피하거나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관계가 약해졌으니 관계 대신 복지제도 복지시설 복지사업으로써 돕자 합니다. 이는 관계를 아주 허물어 버리거나 퇴화시켜 결국 복지의 바탕을 죽이는 일입니다. 관계가 죽은 사회에서는 약자가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관계를 버리고 인공복지로 연명하는 사회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2)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사자 쪽 관계 곧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에 비하면 이것은 복지사업에 종속하는 일시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사회사업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관계입니다.

정보, 지식, 기획, 준비, 자원, 재주, 모두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좋으면, 능력이 좀 부족해도 내용이 좀 부실해도, 잘될 수 있습니다. 잘됩니다.

① 불평등한 관계

사회사업가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기 쉽고, 당사자는 구차히 약자 노릇 하는 처지가 되기 쉽습니다. 이는 사회사업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입니다. 참조: 복지야성 26쪽 '사회사업 3대 위험'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당사자보다 높은 곳에 두지 않고, 전문가인 양 행세하지 않고, 당사자를 존중하여 그 삶의 주인 복지의 주체로 받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조: 복지소학 13쪽 '誠意正心'

② 인간적 관계

인간적 관계가 없으면 가슴이 식어 버리기 쉽습니다.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을 위험이 높습니다. 사회사업 재미없어집니다. 복지인생 건조해집니다.

정이 통하는 인간적 관계가 있어야 사회사업 축축하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의 좋은 관계는 당사자를 잘 돕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실은 사회사업가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참조: 복지야성 20쪽 '약자와 사회사업가', 37쪽 '당사자가 주는 힘과 자극'

3) 사회사업가 쪽 관계

사회사업가 홀로 사회사업 잘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나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사회복지계 사람들, 본 사업의 실행자와 협력자, 변화 대상자, 이런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로 적절하게 소통해야 사회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 ① 사회복지계의 좋은 동료들과 지지와 격려, 자극과 도전,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오래 잘할 수 있습니다. 참조: 복지여성 37쪽 '에너지와 자극'
- ② 변화 대상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대 관계가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이런 사람일수록 정중하게 대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의를 갖추어 부드럽게 말하고 오래 참으면 그 사람 스스로 변하는 일이 많습니다.
- ③ 사회사업가와 복지 수요자를 이어 주는 사람, 사회사업가와 지역 사회의 사람 자원 기회 따위를 맺어 주는 사람, 이렇게 다리 구실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4) 근본 관계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특정 복지사업에 종속하는 일시적 관계에 가깝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관계는 특정 복지사업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복지사업 쪽 자산이고, 관계 자체가 일시적이지는 않지만 대개 '그 자리에 있을 동안 또는 사회사업하는 동안'에 한정되는 사회사업가의 개인 자산에 가깝습니다.

당사자 쪽 관계야말로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지탱하는 근본 관계이고 향산적 바탕입니다.

그런데 이론은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고, 실무에서는 사회사업가 쪽 관계에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

럴까요? 사회사업가와 복지기관 그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 아닐까요?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보는가? ‘복지사업’을 보는가? 사회사업 이론과 실체가 대개 이로써 좌우되는데 관계론도 그러합니다. 복지사업을 보면 사회사업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거나 사회사업가 쪽 관계에 주력하게 되지만,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보면 당사자 쪽 관계를 주로 이야기하고 당사자 쪽 관계에 주력하게 됩니다.

당사자 쪽 관계를 살려 그로써 복지를 이루게 도우면, 복지사업보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더 돋보입니다. 사회사업가보다 당사자가 더 빛나고 복지기관보다 지역사회가 더 빛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이 더 돌아갑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 쪽 관계를 앞세웁니다. 당사자 쪽 관계를 살리는 데 주력합니다. 사회사업가 쪽 관계망을 동원하여 복지를 이루어 주기보다 되도록 당사자 쪽 관계를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고 부족한 만큼 거둡니다.

5) 생태와 관계

생태를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생태의 구성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사업론은 곧 관계론이다.’ 할 수 있을 만큼 사회사업론에서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니다. 생태에 넣어 다루기에 관계는 너무 크고 중요합니다. 오히려 생태를 관계의 결과나 관계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므로 복지요결은 생태와 관계를 나누어 다루되, 생태 편에서는 ‘관계와 상호작용’이라는 개념보다 ‘어울림 또는 조화’라는 개념에 더 의미를 두어 이야기합니다.

11. 사회사업 방법

1) 사회사업 동료들이 바쁘게 일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재미와 감동을 잃어 갑니다.

그래서 수월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소진되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고, 사회사업 오래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감동 감사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사업 방법을 생각합니다.

문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니 수월하고 편안합니다. 근본에 합당한 방법이라 근본에 맞게 제대로 일하고 있음을 확인 확신할 수 있으니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복지를 이루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모습에 사회사업하는 재미와 감동이 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경쟁은 끝이 없고 구차하니,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점은 내세우기 꺼림칙합니다.

2) 사회사업가는 천사 같아 보이는데 당사자는 구차해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당당할 수 있고 당사자의 품격 자존심 염치가 살고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돌아갈 수 있는 사회사업 방법을 생각합니다.

문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니 당사자가 버젓해 집니다. 당사자의 품격 자존심 염치가 삽니다.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돌아갑니다.

3) 대학에서 사회사업을 전공한다고 별다른 지식이나 기술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에 별다른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게 있을까 의문이고, 있다 한들 보통의 사회사업 전공자가 그런 것을 제대로 배우고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몇 가지, 아니

몇 문장 몇 단어나 이해하고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대학 교육을 받고 일반적인 복지기관의 일선에서 실무 담당하는 사회사업가, 보통의 사회사업가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회사업 방법을 생각합니다.

쉽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사업 방법, 알고 나면 한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사회사업 방법을 생각합니다. 한 문장 아니 한 마디만 기억하고 적용해도 좋을 사회사업 방법, 많아야 세 마디를 넘지 않는 사회사업 방법을 생각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가 그러합니다.

쉽고 짧습니다. 알고 나면 ‘결언’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언’ 한 마디만 기억하고 적용해도 좋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이렇게만 해도 잘됩니다. 참조: 복지소학 48쪽 ‘乞言’

4)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은 나무의 본성을 살피고 나무의 본성을 따라 나무가 그 본성을 이루게 할 뿐이라 한답니다. 훌륭한 목수는 나무가 자란 환경, 나무의 성질, 나무의 생김새, 나무의 빛깔과 결을 살피고 그 자연을 따를 뿐, 감히 거스르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복지의 ‘자연’을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회의 복지 본성을 생각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 그 삶 그 사람살이의 본연과 순리를 생각합니다. 그 본성 본연을 살리고 그 순리에 따르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기계를 덜 쓰고 인위를 덜 가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본질에 가깝게, 되도록 ‘자연’ 그대로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입니다.

참조: 복지광세 6쪽 ‘복지 원형’, 68쪽 ‘하나님의 형상’ | 복지소학 29쪽 ‘以鳥養養鳥’, 31쪽 ‘順木之天’, 43쪽 ‘我自然’

5)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태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되 때에 맞게 합니다. 예와 성으로써 합니다. 경청합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데 잘되지 않으면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때에 맞게 했는지, 언어복장 태도가 적절했는지, 정성스러웠는지, 상대를 존중 배려했는지, 경청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럴 만한 때가 아닌데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제 편하고자 남을 수고롭게 한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거절하거나 마지못해 응할 겁니다. 사회사업 '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럴 만한 관계가 되기 전에는 삼갑니다. 다만, 명분과 진정성은 그 시간을 단축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이유를 밝혀 잘 설명하면, 진정으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바로 그때에도 잘될 수 있습니다.

정성스럽지 않으면? → 복지소학 14쪽 '誠意正心하지 않고 乞言하면'

경청하지 않으면? → 98쪽 '경청 훈련'

검소하지 않으면? → 복지소학 57쪽 '使民以時'

일이 맞지 않거나 그 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호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때에 다른 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이 좋겠습니다. 참조: 197쪽 '십중팔구가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6)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순서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 모르게, 당사자의 동의 요청 없이,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은지 신중히 해야합니다. 당사자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욱 삼가고 조심합니다.

당사자에게 먼저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도, 당사자가 하게 돕거나 같이 합니다. 대신 한다면 당사자가 알고 동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심부름하듯 합니다.

참조: 67쪽 '사례회의', 72쪽 '사회사업 기획 원칙', 75쪽 '지원신청'

7) 지역사회 기반

장수는 먼저 싸움의 명분을 밝히고 전략을 세우고 보루와 병참을 확보합니다. 기사는 포석부터 합니다.

사회사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정붙이고 살 만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명분입니다. 지역사회 이웃과 인정을 살림이 문제의 근원을 막고 복지의 바탕을 다지는 사회사업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포석부터 함이 정석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문제 내일의 문제 다른 사람 문제까지 포함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역사회는 문제를 막고 복지를 지키는 터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문제만 아니라 다른 때 다른 사람 다른 복지 수요까지 두루 대응할 수 있는 향산입니다. 참조: 복지소학 21쪽 '향산'

지역사회를 놓아두고 복지전용체계의 시설 예산 인력으로써 밀어붙임은 무모한 것입니다. 불 위에 쏘을 던짐과 같습니다. 잠시 꺼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나 실은 문제를 키웁니다. 악성으로 만듭니다. 복지의 바탕을 해칩니다.

8)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이 사회사업에 그다지 와 닿지 않습니다.

사회사업은 복지 당사자와 그를 돕는 사람이 관련된 일입니다.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는 데 함께하거나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사업가 한 사람은 있습니다. 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가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사업은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는 데 상대방이 있는 일입니다. 당사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는데 ‘일방이 결정’한다니 불편합니다. ‘권리’라 하니 더욱 불편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도 의견을 말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라거나 그것을 ‘의무’라 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그 일에 주인 노릇 하게, 주인 되게, 돕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당사자가 결정하는 대로, 그저 따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기관의 정책과 형편, 사회사업가의 권한과 역량, 가용 자원과 기회비용 따위를 헤아려 의논하는 겁니다.

사회사업가 따위의 상대방이 없는 일이라면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의 도움을 받을지 말지, 이것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은 사회사업 ‘밖’에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이 사회사업에 그다지 와 닿지 않음이 이리합니다.

12. 복지관 사회사업

1) 정책 행정에서 복지관을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라 합니다. 복지관도 스스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기구로서'의 목표를 내세웁니다. 협회

이런 기능을 부정할 수 없고 전달도 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사회사업가로서는 아쉽습니다. 제공한다 함도 꺼림칙한 점이 없지 않은데 전달한다 하니 더욱 그러합니다.

복지관을 시설이라 함도 마땅치 않습니다. 복지관 '건물'을 가리켜 '서비스 제공 시설'이라 함도 아쉬운데 복지관 자체를 그렇게 정의하니 민망합니다.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는 '기관' 정체성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시설도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의 복지 활동을 하는, 지역 주민의 공간이게, 그렇게 주선하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2) 복지관 공간을 가리켜 시설이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복지관을 시설로 분류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가 행정시설 그 청사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지만 그렇다고 '청사 건물이 곧 복지부입니다.' 할 수 없고 '복지부 정체는 행정시설입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지관을 이용시설이니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니 여가시설이니, 이렇게 시설로 분류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런 명칭은 복지관에 대하여 시설 중심 서비스를 기대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지관에 데려다가 행사 프로그램 치료 교육 보호 상담 급식 따위를 했느냐는 식의 실적 평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복지관을 시설이라 하니 서비스 내용과 방식도 시설 중심으로 되기 쉽습니다. 복지관 정체성이 복지관 사회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좌우하는 겁니다.

복지관 정체성은 건물이나 공간으로서의 '시설'이 아니라 사회사업 조직으로서의 '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장애인복지를 이루게 도우며 장애인도 살 만한 지역사회,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과 지역사회가 노인복지를 이루게 도우며 노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노인이 어른답게 사는 지역사회, 노소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3) 공간으로서 복지관을 이용시설이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시설? 전혀 그렇지 않다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주로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시설입니다. 지역주민이 이용 주체인 시설입니다. 복지관 조직 특히 사회사업가는 대개 지역주민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게, 주선할 일입니다.

① 복지관은 당사자가,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복지 활동을 제안하거나 선택하여 직접 준비 실행하거나 참여 이용하는 곳입니다. 사람도 사귀고 동아리도 만들고 정보도 나누고 경험도 공유하고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위로 격려도 주고받고, 서로 돕고 배우는 공간입니다. 사회사업가는 당사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게, 주선합니다.

② 복지관은 지역사회 곧 당사자의 둘레 사람과 이런저런 복지 수단에 관련된 사람, 당사자를 돕고자 하는 사람, 도움 만한 사람, 돕고 있는 사람이, 당사자의 복지를 위해 이런저런 복지 활동을 제안하거나 선택하여 직접 준비 실행하거나 참여 이용하는 곳입니다. 당사자의 복지를 이루는 데 소용되는 대로 모임도 만들고 공동사업도 하는 곳입니다. 사람도 사귀고 정보도 나누고 경험도 공유하고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위로 격려도 주고받고, 서로 돕고 배우는 공간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게, 주선합니다.

13. 주민조직의 독립

1) 그럴 수 있을까요?

주민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게 한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 생업이나 자기 가족 일이 아니면 마음 쓰기 어렵습니다. 주도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괜히 나서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꼭 좋은 말만 듣는 건 아니고 이런저런 오해 질시 비교 비판 구설수가 따르기도 합니다. 하다 보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한때 마음과 여력이 있어 의욕적으로 참여했을지라도 꾸준히 해 나가는 어렵습니다. 책임지고 이어가야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손대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런 조직은 인간관계에 민감합니다. 지도자가 바뀌거나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조직이 깨져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가 걸린 일이 아니거나 의무가 아니라면 책임지고 지키려는 의지도 약하겠지요. 싫으면 그만입니다. 하지 않겠다면 그만입니다. 참조: 156쪽 '이웃 관계의 독립'

2) 그렇게 함이 좋을까요?

① 조직은 이웃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평범한 행위를 특별한 후원 봉사로 만들어 생색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의 사업으로 하려 하고 지도부 업적으로 내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낙인찍기 쉽습니다. 낙인을 확대 재생산하기 쉽습니다. 대상자로 하여금 자존심 죽이고 짐짓 불쌍한 모습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가 부자연스럽거나 불평등해지기 쉽습니다. 이웃이 개인적으로 도와주면 오는 정 가는 정으로 서로 살리며 사는 살림살이가 되지만, 조직의 사업으로서 도와면 그저 받기만 하기 쉽습니다.

② 주민조직의 활동을 주민이 책임지고 잘해 나가려면, 자기 일에 소홀해지거나 여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 본연의 일과 자연스

럽게 연결되지 않는 특별한 활동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리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살이 바탕이 튼실해지고 약자의 복지도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독립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조직도 있습니다.

① 사회사업가가 빠지고도 책임성과 지속성을 보이는 조직이라면, 아마도 사회사업가 같은 실무자가 생겨서일 겁니다. 이런 조직은 독립할 수 있고 독립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는 '주민조직'의 독립이라기보다 '사회복지 조직'의 신설에 가깝습니다.

② 지역사회 일이 아니라 자기 이익 취미 학습 사교를 위한 조직이라면 대개 자생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조직하더라도 계속 개입할 명분이 약합니다. 사회사업가가 빠져도 되는 게 아니라 빠져야 하는 조직입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자치 조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4) 주민조직의 독립이나 지속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런 조직도 있고 저런 조직도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이 조직을 위한 수단이 되는 조직, 조직의 사업을 위해 구성원을 동원하는 조직, 구성원이 자기 생활과 별도로 뭔가 해야 하는 조직, 이런 조직은 되지 않게 함이 좋겠습니다.

저는 대체로 일시적 조직, 일종의 과업 조직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아예 조직을 만들지 않고 그저 함께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저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그러합니다. 회칙이나 회비나 임원조직이 없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모임이고, 저마다 자기 삶에 충실하면 동아리활동도 저절로 충실해지는 모임입니다. 동아리를 위하여 따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참조: 복지경영 '대학생 동아리'

14. 지역 주민이어야 하는가?

1) 지역 주민 처지에서 지역 주민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처지에서 내 시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주민 시각'이라는 게 있긴 있을까요?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마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을 모르지 않으나 무리한 요구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 주민이라야 주민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사회사업은 지역과 주민을 알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잘 알아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알든 모르든 그저 두루 인사하고 묻고 의논할 일입니다.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다 보면 알아야 할 것 알게 됩니다. 사회사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할 만큼은 알게 됩니다. 참조: 복지야성 34쪽 '알아야 할 도울 수 있을까요?'

2) 사회사업가가 지역 주민이면 유리할까요?

사회사업가가 자기 지역에서 일하면 더 잘될까요?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일도 기왕이면 같은 지역 사람으로서 하면 더 잘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위 높은 사람이 어른이고, 마을에서는 나이 많은 분이 어른이라 했습니다. 그 지역 사회사업가가 이런 점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도 수틀리면 누구네 아들, 아무개네 동생, 선배, 후배, 이놈 저놈, 개가, 그놈아가, 아이고 형님도 참, 너나들이, 해 버릴 수 있습니다. 사적 인간관계가 공적 업무 관계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사적 인간관계 자체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같은 지역 사람으로서 일한다면 사적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사회사업가가 어떤 사업의 이해관계자로 엮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도 한두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이이니 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전후좌우로 살펴 그 이해관계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일이나 도와주는 일이나 아는 사이라서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중에서 사회사업가가 되어 같은 처지의 당사자들을 돕는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장애인 사회사업가가 비장애인 사회사업가보다 장애인을 더 잘 알고 더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사회사업가보다 장애인 사회사업가를 선호하거나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도 장애 종류와 정도가 다르고 욕구가 다르고 학력이나 가정 형편 같은 온갖 조건이 다른데, 장애인이기에 장애인을 안다 함은 개별화를 중시하는 사회사업가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한편 장애인 사회사업가는 본인이 장애인이라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회사업가가 자기들과 같은 장애인이라서 더 많이 요구하거나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 해도 그리 대수로운 정도는 아닙니다. 주민이든 아니든, 사회사업은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두루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잘됩니다.

15.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

1) 학교 마치고 센터로, 센터에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센터에서 프로그램하고 센터에서 놀고 센터에서 저녁 먹고...

마을에 동네에 골목에 아이들이 있고 노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살아나는데,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식구인데, 같이 먹고 나눠 먹는 데서 인정이 자라고 인간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일상생활에서 아동을 만나고 돕는 지역사회, 동네마다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른들이 미소 짓고 그렇게 아이 어른 어울려 사람 사는 듯 사는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지역사회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2)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새롭고 특별한 것만을 찾으려 한다면 프로그램 기획은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발전은 마땅한 삶에 다가가고 기본에 충실해지는 것이지, 무엇인가 새롭고 다르고 특별한 것을 좇는 게 아닙니다. 평소의 언행, 인간관계, 일상생활을 바르게 아니하고서 새로운 것, 특별한 것, 신기한 것, 재미있는 것을 탐닉한다면 아이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3) 아이가 참여한 활동, 그 과정에서 만든 문서나 작품,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모집 안내문, 신청서, 활동 기록, 감사 기록, 발표회나 평가회 자료, 편지, 사진, 수료증 따위를 모으면 보통 한 학기에 파일 1~3권이 됩니다. 방학 중 활동만으로도 파일 한 권은 됩니다.

복사하여 학교에 한 부 보내고 센터에 한 부 보관하고, 원본은 아이에게 줍니다.

4) 후원 봉사

센터 아이들은 너무 자주 특별한 후원을 받습니다. 흔히 소외된 이웃, 불쌍한 아이들, 자선 대상, 이렇게 낙인찍혀서 받습니다. 걱정됩니다. 불쌍한 아이로 초라해지지 않을까, 자존심 염치 체면 버리고 구차히 받으려 하지 않을까, 인격 품위 잃어 가고 감사하는 마음조차 무디어지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습니다.

이러므로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아이들과 의논합니다. 후원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받는 데 익숙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인격 자존심 염치 품위 당당함 이런 것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외부 지원이 필요하면 아이들이 선택하거나 섭외하고, 아이들이 유치하거나 획득하고, 아이들이 활용하게 함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일방적 시혜 대상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주인 노릇 잘하게 도와야 합니다.

방학 활동을 도와줄 대학생을 모집할 때 아이들이 대학생을 면접합니다.

아이들이 면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면접위원 아이들이 미리 대학생 한 명 한 명의 자기소개서와 대학생이 해 보고 싶다는 프로그램 안을 꼼꼼히 읽고 요약하고 질문지를 만듭니다. 아이들이 면접실과 자료와 대접할 음료를 준비해 놓고, 나가서 마중하고 안내합니다. 지원하고 찾아와 주어 고맙다 인사합니다. 정성껏 대접합니다.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진지하게, 면접합니다. 보통 1박 2일 이상 함께 지내면서 서로 탐색합니다.

이렇게 봉사자를 받아들이는 일에도, 당사자인 아이들이 주인 노릇하게 합니다. 봉사자가 다 준비해 오고 아이들은 그저 받기만 하는 방식이라면 곤란합니다. 봉사자들이 준비한 게 있더라도 그에 관해 아이들에게 설명하여 아이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5) 빈곤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를 '빈곤 아동 중심의 회원제 시설'처럼 해도 될까요?
출석률 따위로 구속해도 될까요?

지역아동센터를 '빈곤 아동 중심 회원제 기관'으로 꾸며야 한다면,
수급자 차상위 조손 편부모 다문화 장애 따위로 아동을 분류하고 선
별해야 한다면, 출석률이니 타 시설 중복 이용 금지니 하는 규정 따
위로 아동을 구속해야 한다면, '돌봄 서비스 신청서' 따위로 통제해
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① 정원과 비율

행정 문서에는 적격? 아동을 선별하여 일정 수 | 비율 이상 채워 넣습
니다. 실제 이용하는 아동 가운데 적격 아동이 부족하면 한 며칠 열
심히 찾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봅니다.

② 돌봄 서비스 신청서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증빙서류도 이리저리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③ 출석률

이것도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출석으로
인정할 만한 '가상 활동'을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가
는 곳, 갈 만한 곳, 가고 싶어 하는 곳, 가야 할 곳, 견학·탐방·답사하기
좋은 곳, 자기 집, 친척 집, 친구 집, 가족의 일터, 학교, 동네, 산, 바다,
강, 들, 놀이터, 도서관, 오락실, 서점, 논밭, 인터넷 같은 곳에서 하는
현지 활동, 재택 활동, 사이버 활동을 다양하게 개설해 두면, 아동이
센터에 안 오거나 못 오는 날,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활동하고, 오
는 날 출석부에 표시하는 겁니다.

평소 아동과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함
으로 해 왔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요식 행위도 묻고 의논하
고 부탁하면 이 과정 자체가 사회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2012. 2

6) 문제를 따돌리기

왕따 문제도 있었습니다. 도벽이 심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산만하여 학습이나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이 암담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혹 이런저런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으로 해결한다 해도 자칫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이로 낙인찍거나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 꺼렸습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대신 문제를 따돌리고 좋은 일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함께 만들고 배우고 즐기는 프로그램, 함께 놀고 먹고 돌아다니는 프로그램, 문화 예술 프로그램, 둘레 사람을 돌아보고 만나고 배려하고 섬기는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만들거나 선택 참여하게 했습니다. 정성껏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칭찬할 점 고마운 점 찾기에 힘썼습니다. 작은 변화와 선행에도 잘했다고 감사, 칭찬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이로써 인격적으로 귀하게 존중받는 경험, 개인적 관심과 따뜻한 사랑, 자신이 주체가 되어 무엇인가 선택하고 참여하고 이루어 내는 경험, 형 동생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누리고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경험, 칭찬 감사 격려 받는 경험이 생겼습니다. 이는 문제를 희석시켜 버릴 만한 맑은 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두루 다니며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로써 가족이나 지역 어른들과의 관계와 소통을 살렸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막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왕따 문제 도벽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친구 가족과 아는 사이가 되니 친구를 괴롭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따돌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 나쁜 것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도둑질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남을 괴롭히거나 훔치는 것보다 나은 재미와 감동과 행복을 맛보니 왕따나 도벽 따위는 시시해졌을 겁니다.

산만하던 아이가 절제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묻고 의논하니 조심하려 했을 겁니다.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로써 부탁하니 활력이 그쪽으로 쓰였을 겁니다. 암담한 가정환경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받은 경험, 자주한 경험, 인격적 경험... 이것이 문제를 이기고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참조:152쪽 '문제와 강점'

참조: 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 실천 사례

사회복지정보원 - 적용 사례- '자연주의 사회사업 사례집' 파일에 철암세상 지역아동센터와 생영지역아동센터 사회사업(광활, 섬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6. 시설 사회사업

1) 안전하고 편리하고 재미있고 풍족할지라도 단체 생활을 한다면, 입소한다는 곳 - 수용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시설 생활은 곧 단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입주자를 단체로 대하고 단체로 움직이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 입주자는 단체 생활 시켜도 된다는 듯, 단체로 관리 통제? 할 수밖에 없다는 듯, 단체 생활이 이상할 게 없다는 듯…

2) 시설 주택 이름

① OO원, 사랑 평안 나눔 은혜 은총 평화… 시설 티 납니다. OO마을 OO동네는 약자들의 집단 거주지로 보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OO센터도 주택 이름으로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푸르시오, 자이, 래미안… 시설도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다만 이런 건 시설|주택 이름이라, 조직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타운 힐스테이트 하이페리온 같은 OO아파트가 있고 'OO건설'이라는 조직이 있는 것처럼 시설 이름과 조직 이름을 달리함도 좋겠습니다.

② 이름을 바꾸기 어려우면 공문서용 이름과 생활용 이름을 달리함이 어떨까요? 개명한다면 입주자들과 의논합니다. 신뢰나 인지도처럼 기존 명칭으로 쌓아온 소중한 자산도 고려합니다. 기간을 정하여 시범 사용하거나 구 명칭을 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3) 생활 용어도 평범하면 좋겠습니다. 참조: 11쪽 '평범하게 합니다.'

① 입소 → 입주, 전입, 이사 오다. ② 이용자, 생활인 → 입주자

③ 원 가정, 보호자, 원 가족 → 본가, 친정, 부모 배우자 형제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자… 부를 때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남편 분, 부인, 형님, 언니, 동생, 아드님, 따님, 사위, 며느님 따위로 부릅니다. 성인에 대하여 누군가를 '보호자'라 함은 조심스럽습니다.

④ 집에 다녀와? → 부모님 댁, 고향집, 본가, 친정, 아들네 집, 딸네 집, 시댁, 처가, 친척집, 친구네 집, 아는 집, 이웃집에 다녀옵니다. 미성년자라면 몰라도, 성인이라면 지금 사는 이곳이 자기 집일 테니 다른 곳은 이와 같이 수식어를 붙여 부름이 좋겠습니다.

⑤ 면회 와? 봉사하러 와? → 아들네 집, 딸네 집, 부모님 댁, 친구네 집, 교우가정, 동료나 회원의 집, 아는 집, 이웃집에 놀러 옵니다. 밥 먹으러, 차 마시러, 뭐 갖다 주거나 빌리러, 도와주러, 같이 공부하러, 이야기하러, 얼굴 보러, 문안 축하 위로 심방하러 옵니다. 그냥 옵니다.

⑥ 공동체니 한 식구니 하는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시설을 통째로 우리 집이라 하거나 입주자를 집단으로 우리 식구,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따위로 부름이 꺼림칙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뜻을 모르지 않고 공동체 생활의 가치도 이해하지만... 참조: 182쪽 '공동체'

4) 그룹홈 시설장, 가구 사회사업가

예전 시설장들은 대개 사회복지 전공자가 아니었고 정부 지원도 없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씩 만들어 가며 수십 명씩 도왔습니다. 지금 그룹홈 시설장들은 대개 사회복지 전공자이고 집과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그리고 사무국의 온갖 지원을 받습니다. 가구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5) 사무국은 입주자를 직접 돕기보다 가구 그룹홈의 사회사업가를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가구 사회사업가를 단위 시설장으로 본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무국이 집단 활동 프로그램 따위로 입주자를 직접 돕는다면 단체 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입주자 개개인의 사생활을 해칠 수 있습니다.

6) 프로그램과 후원과 봉사

이로써 입주자의 삶이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인간관계와 구실, 입주자의 품격이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사람살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7) 시설 사회사업은 입주자의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일이라, 발전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실로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먹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먹는 때와 곳, 식탁과 의자와 식기, 팔 받침대의 재질 높이 각도, 숟가락의 길이 크기, 보조기기 따위를 조금씩 바꾸어 보며 개선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입거나 벗을 수 있게, 품위 있다거나 멋있다고 느끼게, 옷감과 옷 모양을 조금씩 바꿔 봅니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정보를 검색하고 문헌을 찾아봅니다.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조기기 전문가, 의료기상, 의류 디자이너, 옷 수선 전문가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발전이 없다면 아무리 대우가 좋아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나아진 게 없는데 직급이 오르고 보수를 더 받는다면, 오히려 부끄럽고 괴로울 겁니다. 배우는 재미, 연구하는 재미, 개선 개발 공유하는 재미, 이런 재미가 없다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참조: 139쪽 '발전'

8)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의사소통은 안 되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한 명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할 일은 많고, 사람들은 꺼리고 귀찮아하고... 이렇게 중증 장애인의 사정은 너무도 어려워서 지역사회 사람살이는 고사하고 당사자의 삶이게 돕기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돕는 게 좋을지,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괴롭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삶이고 사람살이이게, 조금이라도 자기 삶을 살아 보게, 어설 프게라도 어울려 살아 보게,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 보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잘 안 되어 고뇌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릴지라도, 눈총 맞고 징계 받고 쫓겨날지라도...

9) 인권실태 조사 유감

아무 때고 부르면 달려오는 제집 똥개로 아는지 약속도 없이 다짜고 짜 쳐들어와서 오라 가라 하다니... 인권실태 조사단의 부하입니까 피고인입니까? 개도 부른다고 아무한테나 가지는 않는데...

개만도 못한 꼴 당하는 입주자, 아무 말 못 하고 불려가 대령하는 신세라니, 민망합니다. 인권실태 조사단의 하수인이라도 되는 듯 입주자를 불려다 그들 앞에 대령시키는 건 또 뭐니까? 입주자의 인권을 지켜야 할 사회사업가가...

만나려는 입주자, 당사자에게 잘 알아듣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시간 좀 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지 않아도, 약속 시간 잡지 않아도, 인권실태 조사단이 원하면 아무 때나 가서 조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시설 입주자한테는 그래도 괜찮다는 걸까요?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무시 능멸하는 처사입니다. 이렇고도 인권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입니다. 인권실태 조사단은 필시 시설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무시 능멸하는 태도가 더 고약합니다.

사회사업가도 잘못이 없다 하기 어렵습니다. 입주자를 낮에도 시설 안에서 지내게, 수용보호 하듯, 단체 생활 시키듯, 그렇게 했으니 그런 꼴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도왔다면, 조사단이 쳐들어오는 낮 시간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당사자와 약속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원문 : 정보원 카페 복지요결 게시판 355번

약속하셨는지요? 누가, 무슨 일로 오셨다고 할까요?

10) 시설 견학

①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이나 방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시설 입주자의 집이나 방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입주자가 그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약자라면…

여느 사람에게도 부당하지만 시설 입주자 같은 약자에게는 더욱 못할 것입니다.

② 누가 입주자의 허락 없이 그 집이나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가구를 맡은 직원이라도 조심스러울 텐데…

시설장이라도,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시설 만들고 자기 돈으로 운영한다 해도, 삼가 조심할 일입니다.

③ 여럿이 몰려다니며 구경하듯 살피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입주자가 외출했다면, 아무도 없으니 둘러보아도 괜찮을까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라니…

방 문틈이나 창문으로 들여다보아서도 안 됩니다. 남의 집 담이나 벽이 비록 허술해도 엿보지 말라 했습니다.

시설장이나 그 가구 담당 직원이 안내하면 따라 들어가도 될까요?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이 허락하더라도 삼가고 조심할 일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리저리 둘러보지 말며 기물을 함부로 만져 보지 말라 했습니다.

11) 공동체

생태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자급자족 공동체, 행복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공동체에 좋은 점이 있고 공동체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끌릴 만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들을 모아 또는 사회적 약자들끼리 모여 이런 공동체를 꾸리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어디 조용한 곳’에서 별친지 같이 따로 살아가는 약자들의 공동체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약자들끼리 집단으로 살아가는 곳은, 잘 꾸며 놓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도 좋게 보이기 어렵습니다. 향 소 부곡 같은 인상으로 약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굳히거나 키울 수 있습니다. 사생활은 거의 없고 사실상 ‘단체 생활’ 하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공조직으로서 정부 예산을 받는 복지시설에 합당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사업 철학과도 사뭇 다릅니다. 특별한 곳에만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이 힘써 만들어야 할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사업가라면, 남녀노소 빈부강약이 어울려 살아가게 돕는 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자체를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이게 하는 겁니다. 이는 약자도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고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약자를 만나고 돕게 하는 일입니다.

12) 온갖 활동을 시설 안에서 하면 그야말로 ‘시설 사람’ 됩니다. 미용도 목욕도 시설에서 하고, 교육 직업 종교 활동도 시설에서 하고, 운동도 치료도 시설에서 하고, 취미 여가 활동도 시설에서 하는, 이런 일이 입주자를 시설 사람으로 만듭니다.

13) 프로그램 복지와 생활 복지

의사나 간호사는 급성기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케어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안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요법사는 마비된 손발을 치료하는 방법, 굳은 관절을 펴는 방법은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비되어 굳은 관절로 '어떻게 생활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케어 담당자들은 기존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 중략 -

케어 현장은 '환자'라는 수동적인 치료대상 대신에 '생활의 주체'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형성되는 곳이다. - 중략 - 의사와 간호사는 주체가 되고 환자는 수동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 - 생명과 관련될 때는 그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 아니라 노화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케어는 다르다. 환자에서 생활인으로, 의료 케어에서 생활케어로! 노화나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각자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게 하자. - 중략 -

T 씨 70세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6년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했다. 그러나 매일 기능훈련은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왕성한 훈련의욕을 생활의욕으로 바꾸기로 했다. 먼저 외출이라는 이름으로 꽃놀이, 1박 여행, 음주 등을 시작했다. 그러자 훈련으로 고통스러웠던 얼굴 표정이 생기 있게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손발이 마비되어도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 범위도 넓어지면서 신체기능도 좋아졌다.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와 미요시 하루키, 김영주 옮김, 그린홈, 2005년

구구절절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로 보고 치료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안정시키려 들기보다, 사람으로 보고 '생활'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글을 그대로 사회사업에 옮겨 읽어도 좋겠습니다.

전문가라 하는 어떤 사람들은 복지사업으로 치료 교육하거나 안정 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사회사업가에게 필요한 건 당사자가 '자기 삶으로 생활'하게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사회사업 현장은 후원 봉사 대상자, 보호 대상자, 교육 훈련 대상자, 치료 대상자, 생활지도 대상자, 관리 대상자... 대상자를 늘려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 자기 복지의 주체, 사람살이의 주체로 세워 가는 곳입니다. -중략-

보호 대상자에서 생활 주체로,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 복지로, 당사자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혁명」에서도 일본과 유럽의 케어가 이렇게 달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을 ‘안정’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 대상으로 연명시킨 겁니다.

유럽에서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세요. 우리가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활’하시게 도운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시게 한 겁니다.

14) 노인요양시설

첫째, 생활보다는 프로그램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노인 시설 사회사업가.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쫓기는 모양새입니다. 사회사업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 개발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보고하고...

노인은 프로그램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전문적이라는 프로그램일 수록 평범한 생활에서 멀고 자주성에서 먼 것 같습니다.

살아오신 환경과 사뭇 다른 곳에서 첨단 기구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드리는 연명시켜 드리는 생활은 너무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생존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찍이 산림과 강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동물원에서 보호받으며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 되는 동물 같다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당사자에게 익숙한 환경, 당사자의 물건, 가족 친지 이웃 같은 당사의 인간관계, 당사자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모시고 받들고 거들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당신 생활에 가깝게, 여느 노인의 생활에 가깝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당신 택에 사실 때와 너무 다르지 않게 부득이 다른 점이 있더라도 여전히 당신이 주체가 되어 누리는 당신 삶이 되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프로그램보다 '당사자의 삶'이 더욱 귀합니다.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 복지로!

요양시설 사회사업을 이렇게 바꿀 수 없을까요?

둘째, 너무 많은 분이 기저귀를 차고 계십니다.

기저귀 차는 노인의 자존심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기저귀를 차는 편이 좋은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밤에 화장실 다니시는 시어머니가 넘어져 다칠까 봐 잠을 잘 못 자던 며느리 “어머니, 밤에만 기저귀 차실래요?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저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저귀는 수면제예요.”

‘우선은 내가 차고 있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시어머니도 똑같이 기저귀를 차게 해 드렸다. 피부에 닿는 촉감과 배뇨 뒤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기저귀를 차고 주무시게 됐다.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니께 기저귀의 효과를 여쭙 보았다. 시어머니는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신경 쓰지 않고 꼭 주무신 것 같았다. 나도 꼭 잤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기뻐하셨다.’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90~92쪽, 하나리 사치코 지음, 최태자·심명숙 옮김, 2010년 도서출판 창해

그래도 되도록 기저귀를 쓰지 않고도 용변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한 장애노인이나 치매노인은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그런데 초보 케어 담당자들은 차츰 기저귀를 벗기고 침상에서 탈출시켰다. 기저귀 떼기는 안정을 강요하는 케어를 대신한 새로운 케어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진 케어 방법을 모아서 만든 것이 1988년의 기저귀 떼기 학회이다.”

「환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와 미요시 하루키, 김영주 옮김, 그린홈, 2005년

우리 노인들은 기저귀를 채울 수밖에 없는 중증 노인들이라고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책 저자가 기저귀 떼기를 시도한 곳은

경증 노인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치매·중풍 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곳 '치매노인이나 장애인'은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저귀를 땄 수 있었던 건 노인의 자존감을 지켜 주려는 정신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시설 노인들보다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인복지혁명」 저자는 유럽 노인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몸져누운 노인이 없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85년에 아사히신문 논설에 “일찍이 고령사회에 들어선 국가에는 ‘몸져누운 노인’이라는 낱말이 없다. 일본에서는 침상에 누워있어야 할 사람들도 그곳에선 휠체어에 타거나 보행기를 이용해 걷고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일본 노인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 뭔가 잘못 알고 있든지 어떤 조작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쪽 사람들이 좋은 것만 보여주었든지 아니면 보는 사람이 구석구석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치매·중풍 전문요양시설 노인들은 치매·중풍 증상이 중하여 기저귀를 채우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같이 말할 것 같습니다. 기저귀 떼기 학회 회원들이 돌본 노인들은 경증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06.10.23

노인복지 분야 사회사업가 추천 도서

- ① 노인복지혁명, 오쿠마 유키코,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②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 선빌리지, 시니어커뮤니케이션 2006
- ③ 똥꽃, 전희식, 그물코 2008
- ④ 환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 동학사 2005
- ⑤ 케어 실천을 지탱해 주는 원리와 방식 KOMI 이론과 KOMI 차트 시스템
- ⑥ 노인수발에는 교과서가 없다, 하나리 사치코, 2010년 도서출판 창해
- ⑦ 복지소학 48쪽 '乞言'

17. 사례관리

1) 복지병

당사자를 빼고 사례회의를 합니다.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원을 찾아 제공하거나 자원에 의뢰해 줍니다. 당사자를 소외시키는 복지병, 아주 나쁜 복지병, 사회사업가들의 전염병 고질병입니다.

당사자의 인간관계 당사자의 돌레 사람을 놓아두고 사회사업가 쪽 관계 사회사업가 쪽 사람으로써 욕구를 해결해 주곤 합니다. 당사자의 복지 바탕을 약화하고 약자의 존재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복지병, 사회사업가의 복지병입니다.

흔히 당사자가 복지 서비스에 의존하려 드는 증상을 보고 복지병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회사업이 당사자의 정신을 흐리고 인격과 관계를 해칩니다. 당사자 쪽 행태는 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가 쪽 행태는 병인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해치는 사회사업가 쪽 행태가 진짜 큰 병입니다. 무서운 복지병입니다. 참조: 복지야성 1쪽 '복지기계' 편, 67쪽 '복지사업 문제'

2) 당사자가 빠진 회의는 사례회의라 할 수 없습니다. 사례관리자가 어떤 사례에 대해 직원들이나 외부 전문가들과 하는 회의, 사례를 나누고 조언 지시 평가 따위를 듣는 회의, 이런 건 그냥 사례관리 '업무 회의나 자문회의나 간담회나 평가회나 워크숍'에 불과합니다.

3) 사례회의를 자주 하거나 사례회의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관 기관들과의 통합 사례관리 회의나 전문 위원회 활동도 비용을 고려하여 적당히 해야 합니다. 서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사례관리 지침대로 서류 다 챙기면 사람은 언제 도울까요?

4) 사례관리에서 상담 기술?

제대로 써먹으려면 얼마나 배워야 할까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기술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사례관리 일선 실무자로 올까요? 남아 있을까요?

5) 사례관리, 무엇을 관리한다는 말일까요?

관리 대상 곧 동사 '관리한다'의 목적어가 무엇일까요?

첫째, '사례를 관리한다'는 말로 본다면, 여기 이 사례는 당사자가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사례관리는 이 일이 잘되게 관리|추진, 칭찬 감사, 점검 조정, 기록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사례가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를 가리킨다면, 사회사업가가 사람을 관리한다는 말이 되니 송구하고 민망합니다.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와 관리 대상을 구분함이 좋겠습니다.

둘째, '사례별로 관리한다'는 말로 본다면, 여기 이 사례는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 곧 복지 당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가리켜 사례니 케이스니 하지는 맙시다. 몇 사례는 몇 명 몇 분 몇 사람으로, 적정 사례 수는 적정 인원으로, 이런 사례는 이런 분 이런 사람이런 아이 장애인 어르신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례관리는 대상자별로 무엇인가를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 곧 관리 대상은 복지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어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을 찾아 활용하는 일'입니다. 사례관리는 대상자별로 이 일이 잘되게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관리하는 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자원을 관리한다 할 수 있을까요? 자원은 주인이나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사례관리자가 관리할 게 아닙니다. 자원에 관한 한 사례관리자는 그 활용을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욕구를 관리한다 할 수 있을까요? 욕구를 선정하기도 하고 더 나은 욕구로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욕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욕구를 관리한다는 말은 좀 어색합니다.

6) 사례관리 방법

사례관리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궁리하고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별 방법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침이 없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지침은 다양한 기관 다양한 대상자 이런저런 상황과 사안을 두루 고려하여 만들기 때문에 필시 복잡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또 무슨 방법을 더 배워야 할 것처럼 부담을 주고 번다한 절차와 서류를 요구하며 엄청난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바로 그 지침이 사람 잡을 겁니다.

이래저래 속박이고 고역일 겁니다. 자율성 융통성 줄어 들고 부담만 늘어날 겁니다. 별도의 지침을 요구함은 여우 피하려고 호랑이 끌어들이는 격이고, 지침으로 통제함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기 십상일 겁니다.

7)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조사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낙인찍고 대상화하는 판국인데, 그 가운데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따로 선정하여 종합 대상으로 관리하려 드는 사례관리가 사람 잡게 생겼습니다.

① 시설 입주자, 지역아동센터 아동, 주간센터 이용자, 교육복지 대상 학생, 자활센터 참여자, 정신보건센터 회원,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어떤 사람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면?

선생님 친구 동료가 자기를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생활을 속속들이 조사당하고 심지어 치부까지 파헤쳐진 대상자와 그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사회사업가, 이제 서로 어떤 낯으로 대하며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당사자의 자존심이나 체면은, 둘레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찌될까요?

② 기존 서비스 대상자라면, 뭘 또 조사해야 할까요? 전에 조사했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묻지 않아도 알 만한데, 사례관리라고 특별히 더 조사해야 할까요? 부득이 다시 더 조사해야 한다면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서 정보를 수집할 때도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③ 욕구 조사표나 강점 조사표, 가계도나 생태도, 한 번에 완성할 게 아닙니다. 모든 항목을 다 채울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물을 만한 것만 묻고 차차 보완해 갑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헤아려서 물을 만한 때에 묻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정보라고 다 써넣을 건 아닙니다. 개인력 가족력 가계도 생태도 따위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에게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정보, 후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정보, 당사자 일방의 이야기라 다른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는 정보, 이런 정보는 써도 될지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재삼 신중히 따져 봅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인격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 해결해 주지도 못할 문제를 캐묻거나 치부를 건드리거나 사생활을 파헤쳐 모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 건강 문제, 일상생활 유지 문제, 가족생활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직업 문제, 생활환경 문제...

이렇게 온갖 문제가 있을 거라는 듯 사생활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질문, 문제 덩어리 종합 대상으로 몰아가는 듯한 질문, 도와주려고 묻는다지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걸 내 욕구와 무슨 상관이지? 이것도 문제인가, 난 괜찮은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이런 것까지 캐묻지? 다 해결해 주려고? 써먹지도 않을 걸 왜 묻는 거야?'

가슴에 한바탕 폭풍이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무례를 경계합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 꼭 없애야만 하는지, 없앨 수 있는지, 문제만 없어지고 부작용은 없을지, 신중히 헤아려 자신 없으면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처지 역량 기회비용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⑤ 개인력 가족력, 어디까지 털어놓지? 뒤탈 없을까?

뒤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문서에 남으니 비밀을 보장할 수 없고, 전산망에 입력하면 사실상 영구 보존되고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어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응답자의 편견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외인에게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구차합니까?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회사업가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⑥ 뭘 원하느냐고? 무슨 도움이 필요하느냐고? 뭘 해 줄 수 있는데? 뭘 성부른 것만 걸러서 말할까? 아니면 원하는 걸 다 말할까?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뺏어야지, 사람 봐 가면서 말할 걸 말해야지, 원하는 걸 묻는다고 진짜 원하는 걸 다 털어놓는단 말입니까? 무엇이 어려운지 묻는다고 사람 가리지 않고 아무 어려움이나 다 토로한단 말입니까?

눈치 없다, 자존심도 없다, 비굴하다, 염치없다, 구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으니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닐까요?

‘얼마나 대단한 도움을 주려고 이럴까?’ 물어보는 게 많으니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문제를 물으면 문제가 커지고 욕구를 물어도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게 물으니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뒷감당은 어찌할까요? 참조: 71쪽 ‘욕구 조사’

18. 대학생 - 학창시절을 즐겁게

1) 인생 단계마다 해야 할 과업이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누리고 즐겨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활동, 이때가 아니면 누리기 어려운 낭만이 있습니다. 졸업하면 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자유 우정, 젊음의 특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청년 때, 학생 때에 풍성하게 즐기고 누리야 할 몫입니다.

이것은 인생 보험입니다. 살다 보면, 사회사업하다 보면, 힘든 날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 꿈과 열정으로 뜨거웠던 시절, 가슴 설레는 추억, 함께했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즐겁게, 복지인생을 즐겁게!

복지순례, 정예화캠프, 학습여행, 실무합숙훈련, 절차탁마 여행, 백두대간 산행 - 정보원 활동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낙'입니다. 정보원 활동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정보원 활동은 자연 속에 있었고,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아름다운 낭만이었습니다.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웃음꽃이 피고 사랑과 감동이 넘쳤습니다. 가슴 시리도록 그립고 정겨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창시절의 낭만을 누리며 우정을 쌓고 추억을 만드는 데도 힘쓰면 좋겠습니다.

2) 인문 사회과학 바탕을 다지거나 우정과 낭만을 누리는 데 쓰는 시간이 너무 적어 아쉽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에 매달리니 안타깝습니다. 사정이 있겠지요.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바가 있겠지요. 돈뿐 아니라 사람과 배움과 보람도 얻을 겁니다. 학창시절 특권 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기관에서는 스펙보다 열정 표정 성품 태도를 중시합니다. 사람만 좋으면 스펙에 관계없이 데려가려 합니다.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스펙이 아니라 사람이 아쉬운 겁니다.

19. 사회사업 조사

1) 진짜 욕구나 문제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집 때문에 겪는 문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 -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매우 절실한 욕구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이런 욕구도 물을 수 있을까요?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빈곤 문제, 심각하고 절실합니다. 노후에도 할 일이 있고 건강하고 소유가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 이런 욕구도 물을 수 있을까요?

사회사업가 쪽에서는 처지와 역량을 헤아려 물을 만한 것이나 묻습니다. 당사자 쪽에서도 묻는 사람 봐 가면서 적당히 대답합니다. 당사자에게 가장 절실한 욕구나 심각한 문제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가고 결혼 잘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싶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 수업 따라가지 않고 시험 보지 않고 아동센터·복지시설에 가지 않고 대학에 가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죄 짓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소박하게 농사지으며 살고 싶다면?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하고, 할머니 건강하게 사시다 천국 가시고, 부모형제 자녀·손자 모두 평안히 잘 살길 바라다면? 참조: 192쪽 '될 원하느냐고?'

뒷감당할 것을 생각지 않고 일단 그냥 물어봐도 될까요?

욕구나 문제를 물으니 해결해 줄 줄 알고 잘 대답해 주던 사람들이 차츰 사회사업 조사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시큰둥해집니다. 욕구나 문제를 묻는 조사에는 성의 없이 대충 응답하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때 성실한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2)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을까요?

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어느 조사에서 90%가 '장애인끼리 있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통합은 장애인 정서를 모르는 학자의 주장이거나 경증 지체장애인들의 배부른 소리'라고도 한답니다. '장애인끼리 있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앞으로도 장애인끼리 따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혹 그렇다면 계속 따로 살게 해야 할까요?

② 모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업소를 섭외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업소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 한 분이 "이런 몸으로 일반 업소에 가는 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아느냐? 복지관에서 서비스해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전용 서비스를 해야 할까요?

③ 모 정신장애인요양시설은 2003년 현재 아홉 군데 그룹홈이 있습니다. 독립생활 기술을 가르쳐 지역사회 일반 주택에서 살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룹홈에 나가 사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룹 홈 거주자 중에도 시설 안에서 살 때가 좋았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시설 안에서 살게 해야 할까요?

④ 중증 뇌성마비 장애아동의 식사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너무 힘들니까 호스를 끼워 공급하기도 하고, 밥과 반찬과 국까지 모두 섞어서 먹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선생님도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아이가 숟가락 사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유동식만 먹으려 하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의 욕구를 존중하여 언제까지나 그렇게 먹여야 할까요?

그렇다 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할 수도 있겠으나, 당사자 욕구대로 해주거나 사회사업가 생각대로 하거나, 둘 다 극단적입니다. 당사자 욕구와 사회사업가 판단 사이에서 사회사업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조: 21쪽 '의논하기'

20. 조사 사회사업

조사도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에 맞게, 생태 강점 관계에 주목하여 계획 준비 실행 해석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대학생 20명이 2001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재활원 둘레 500미터 이내 1024가정을 방문하여 336가정에서 면접했거나 응답지를 회수했습니다.

재활원 입주자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며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후원자나 봉사자가 아니라 그저 동네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함께하거나 돕거나 나누거나 공유할 수 있는 일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는 연락처도 물었습니다.

응답자 64.4%가 참여하고 싶다 했습니다. '고려해 보겠다' 한 응답까지 포함하면 98%나 됩니다. 잘 몰라서, 너무 큰 시설이라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계기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면접 조사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조사로써 동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의와 잠재력을 깨우고자 했습니다.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연스러운 사람살이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재활원 입주자와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인정이 오가는 지역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 결과를 실무에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의 연락처까지 있었으니까요.

오래전에 대학생들이 한 일이지만 지금 사회사업가의 일로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설계부터 보고서 작성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입주자와 동네 사람들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21. 심중팔구가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2001년 설 명절 어느 장애인시설. 그저 어느 사람처럼 설을 쇠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집에서 세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나들이도 했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가 세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했습니다. 재활원 홍보물과 설 명절 계획서를 들고 동네 50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한다면 먼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겠습니다. 되도록 고향집에, 가족 친척에게, 다녀오게 돕겠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개인이나 가구별로 설을 어떻게 지낼지 구상하고 준비하게 돕겠습니다.

“장애인 한두 명이 찾아가 세배하고 음식을 나누게 하고 싶습니다. 어느 가정의 설 풍경처럼 설을 쇠게 하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곳입니다. 102호 철수 씨를 초대해 주십시오. 102호 철수 씨네 집에 놀러 오십시오.”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막상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보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령도 생겼습니다.

다섯 가정이 호응했습니다. 설날에 놀러 오라고. 다섯 가정. 오백 중 다섯이니 많은 건 아니지요. 이런 시도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이쪽에서도 갈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는 것이니 인선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선 후에는 설 인사법과 식사에절을 점검해야 했고, 복장도 갖추고 선물도 준비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가정이 결코 적다 할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입주자 다섯 분이 다섯 가정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설을 쇠었습니다. 집에서 세배도 하고 윷놀이도 했습니다. 나들이도 했습니다. 이웃집에 찾아가 세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495가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이라 선뜻 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명절이라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명절 준비로 바쁠 때라 대답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쪽의 요령이나 정성이 부족하여 마음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가정들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일은 헛수고였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분이 많았습니다. 후원금을 주시는 분도 있었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재할원으로 봤다면 누구 입에 붙이라고 명절 음식을 가져왔겠습니까? 102호 칠수 씨네 집을 생각했음이었지요.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렵פות하게나마 알게 되었고 가능성을 보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없었더라도, 지역사회에 두루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 일 자체가 분명 사람들의 복지 본성과 인식을 깨워 지역사회 복지바탕을 일구어 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십중팔구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사업은 대개 소수를 상대하는 일이라 열에 한둘만 호응해도 넘칩니다.

십중팔구에 대한 노력이 쓸데없는 일도 아닙니다. 이번에 호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음에 만날 때는 이야기하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번에 도와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려 할지도 모릅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데 호응하지 않으면 저를 돌아보아 다듬겠습니다. 지금 이 일에 그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힘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때 다른 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겠습니다.

22. 기획서 쓰는 법

예 1 : OO 프로그램

목적 : 본 프로그램은 OO구에 거주하며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자 가정의 조모에게 초점을 두어 상호지지와 개인 양육 능력 지원을 통해 가족의 상실된 역할과 기능을 보완, Empowerment를 강화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가족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 방법 목표 목적이 섞여 있습니다. 다른 건 빼고 목적만 남기되 하나씩 나누어 써 봅시다.

목적 1 :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개발한다.

목적 2 : 가족 기능이 강화된다.

→ 타동사형과 자동사형이 섞여 있습니다. 통일해 봅시다.

목적 1 : 가족구성원의 잠재능력 개발

목적 2 : 가족 기능 강화

→ 두 목적의 급이 다릅니다. ‘잠재능력 개발’은 ‘기능 강화’를 위한 수단 즉, 하위 목표나 계획에 해당합니다. 하나를 뺍시다.

목적 : 가족 기능 강화

→ 목적에서 ‘조모에게 초점을 두어’ 라고 밝혔듯이 실제 이 사업에는 조모 대상 계획만 있고 손자녀 대상 계획이 없습니다. ‘가족 기능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고 일부에 치우쳐 있습니다. 계획을 추가하거나 목적을 줄여야 하는데, 목적을 줄여 봅시다.

목적 : 조모의 손자녀 양육 기능 강화

이제 목표를 다듬어 봅시다.

목표 1: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감과 조부모의 자아 효능감을 향상한다.

→ 계획인 '~을 통해'는 빼고 목표만 쓰되 하나씩 나누어 써 봅시다.

목표 1-①: 조모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 경감

목표 1-②: 조모의 자기 효능감 향상

→ 여기 '조모의 자기 효능감 향상' 목표와 위의 '가족 기능 강화' 목적 사이에 위계를 따져 봅시다. 어느 것이 위에 있어야 합니까?

목표 2: 조부모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며,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 하나씩 나누어 쓰되 명사형으로 통일해 봅시다.

목표 2-①: 조모의 긍정적 역할 강화

목표 2-②: 조모 개인의 역량 강화

목표 2-③: 가정의? 조모의? 생활 만족도 제고

→ 세 가지 목표가 동급이 아닙니다. 역량 강화 → 역할 강화 → 생활 만족도 제고, 이런 순서로 위계가 높아집니다. 더구나 여기 '생활 만족도 제고' 목표는 위의 '가족 기능 강화' 목적보다 상급입니다.

목표 1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 2 역량 강화, 역할 강화를 달성해야 목표 1 자기 효능감 향상이 이루어질 텐데, 모두 같은 단계에 나열할 수 있습니까?

목표 3: 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자원망을 활용한다.

→ 목표입니까 수단입니까? 목표 1이나 목표 2와 동급입니까?

예 2 : 복지 서비스 정보화 사업

1. 필요성

복지서비스 정보화 수요, 복지서비스 정보화 현황, 기존 사업의 한계

2. 2010년 미래상

3. 4. 6. 목적, 목표, 사업 내용

목적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생산과 유통		
목표	복지 정보·서비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생산·공급 기반 강화	시민 복지활동 활성화
계책	- 복지종합상담시스템 구축 - 복지정보검색시스템 구축	-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가 커뮤니티 구축	- 자원봉사과 후원관리 시스템 구축 - 시민 복지 동아리 지원
대상	복지서비스 수요자	복지서비스 공급자	일반 시민

5. 원칙·방침

기존 사업 한계 극복 방안, 이 사업에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7. 관리 운영 방안

추진 체계,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원문 : 사회복지정보원 - '복지 서비스 정보화'

2001년 2월에 작성한 기획서 한글 파일입니다. 기획서 쓰는 법에 맞게 썼는지, 특히 필요성 목적 목표 계책 사이에 정합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기 표에 요약한 목적 목표 계책만이라도 꼼꼼히 따져 보십시오.

23. 지원신청

1) 바깥 자원은, 쓰기 나름이지만, 자칫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정신을 병들게 하거나 사람 사이 관계와 인정을 해치거나 동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쓰레기를 남기기 쉽습니다.

당사자 스스로 찾고 선택하고 획득하는 바깥 자원, 자기 통제 하에 개발하고 활용하는 바깥 자원, 이런 자원은 부작용이 좀 덜하겠으나, 남이 가져오는 바깥 자원은 위험합니다. 해가 깊습니다.

2) 프로그램 지원 사업

① 사회사업을 문제 중심 사업으로 몰아잡니다.

② 모 지원 단체의 프로그램 기획 지침서대로 '사업의 필요성'만이라도 제대로 연구해 낸다면, 사전 사후 평가만이라도 제대로 해 낸다면, 그 작업만으로도 수백 만원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들이 흔히 그런 기획서|보고서로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③ 아이디어는 누가 보상하며 기획서 쓰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원금 총액이 기획서 쓰는 데 드는 총비용보다 클까요? 도박과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④ 에너지와 시간을 지나치게 낭비 소모합니다. 사회사업가들을 피곤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기회비용이 너무 큼니다. 사회사업 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사업 발전을 왜곡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서가 더러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지원하는 쪽에서도 대상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술하게 요구합니다. 사람을 상품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기 쉽습니다. 대상자의 인격 자존

심 팔아먹기 쉽습니다. 문제라 규정하고 전문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댁니다. 심하면 생사람 잡아 대상자 만듭니다. 병 만들어 약 동냥하고 그 약으로 병을 키우거나 다른 병을 일으킵니다.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재화를 얻어다가 그 재화로 또 사람 비참하게 만듭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를 다루는 사업이라도 그 필요성을 쓸 때 당사자의 인격과 자존심을 헤아리고, 당사자와 가족을 비롯하여 누가 보아도 떳떳할 수 있게 쓰면 좋겠습니다.

4) 허구한 날 컴퓨터에 무슨 불 일이 그리 많은지, 사람은 뒷전이고 지역사회도 외면한 채 모니터를 향하여 지원신청과 사업 포장에 매달리는 모습이 민망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컴퓨터 하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인사하기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역사회 두루 다니며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지원금 도박장입니까? 사업 포장 업소입니까? 지원 금품 농칠세라 베풀기 바쁘고 남에게 뒤질세라 사업실적 꾸며 맞추기 바빠 사람은 자꾸 멀어지는데 컴퓨터는 제사 모시듯 하니 누구를 위함인지...

5)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인데,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그저 얻어다 해주려 합니다.

어디서 뭐 주는 거 없나 해매고, 찾으면 받을 만한가 신청해 볼까 궁리하느라 시간 잡아먹고, 그 요구에 맞추어 사업 만들고 그 형식에 맞추어 지원신청서 쓴다고 시간 잡아먹고, 지원 금품 수령과 교육에 시간 잡아먹고, 사전 사후 평가한다고 시간 잡아먹고, 증빙자료 챙긴다고 시간 잡아먹고, 평가 대비 감사 대비 사업 포장하느라 시간 잡아먹습니다. 이런 일 하느라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대하여는 함께 있어 주고 살펴보고 안아 주고 이야기 들어 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6) 지원신청, 꼭 해야 합니까?

지역사회에 두루 다니며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면, 지역사회에, 사람들 속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도울 만한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역사회에 무궁한 자원과 가능성과 기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깥 자원까지 얻어 와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사람과 자원이 생기고 사랑 감동 인정 넘쳐나고 이런 게 사람 사는 건가 보다 싶을 정도로 재미있는데 이렇게 좋은 걸 버리고 외부 지원에 매달려야 합니까?

지원신청, 본전이나 건집니까?

동냥하려다가 추수 못 보는 꼴 아닌가 싶습니다.

7) 김 선생은 외부 지원금을 마중물 삼아 당사자와 지역사회에서 물을 퍼 올렸습니다. 상수도나 급수대 만들지 않았습다. 우물을 살리고 시내에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버려진 우물, 무너진 우물을 고쳐 짓거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물길을 내었습니다. 굵이굵이 돌아가는 물길을 내어 사람 사이 어디에나 복지가 흐르게 했습니다. 마중물로써 당사자의 복지 자연력을 끌어올렸고 지역사회 복지 자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자연력을 사람살이 생태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종자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금으로 사업 기반을 만들라 합니다. 무기한 지원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종자돈이라는 말입니다. 김 선생은 종자를 먹이지 않았습다. 열매를 얻어다 먹이지 않았습다. 일회용으로 쓰지 않았습다. 외부 지원금을 종자 삼아 마을이라는 땅에 심었습니다. 그 땅 속을 헤집고 다니며 생기가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자연력으로 자라고 열매 맺게 했습니다. 그 열매가 다시 씨를 내었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24. 평가회

평가회에서 잘못된 점, 부족한 점, 고칠 점을 이야기하면 기운 빠지거나 분위기 나빠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잘되지 않은 점은 대개 담당자 스스로 압니다. 이미 받은 지적 책망 잔소리 비판이 족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점, 부족한 점, 고칠 점, 이런 걸 꼭 평가회에서 다루어야 할까요? 고쳐 줄 의무나 자격이나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면, 대안이 없거나 새로울 게 없다면,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실익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면,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평가회 자리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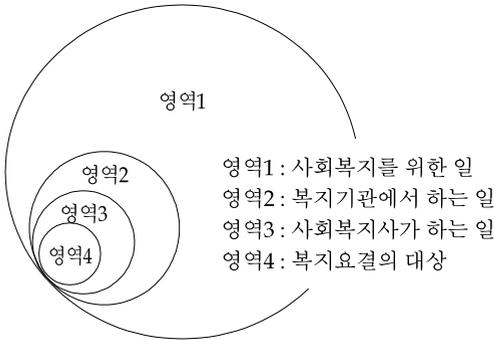
사업을 마치고 하는 평가회, 1년에 한두 번 하는 정기 평가회, 기관 내부 평가회에서는 비판이나 조언을 삼갑니다.

비판이나 조언 - 하려면 기획 실행할 때, '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려면 평가회 끝나고 따로 하든가 다음에 기획 실행할 때, '그 때 해야지'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가회에서는 비판 충동을 꼭 누르고... 자랑하고 공감하고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며 칭찬 감사로 화답함이 좋습니다.

평가회는 축제입니다.

한계



사회사업에는 항상 좋기만 한 것도 없고 항상 나쁘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어느 설이든 교조처럼 따를 것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요결도 그러합니다.

복지요결은 사회복지나 어떤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일 가운데 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그 가운데 일부만 이야기합니다. 참조: 1쪽 '복지요결의 대상'

사람과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땅하다 여기는 것이 다른 때 다른 데서도 그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참조: 124쪽 '주관성 -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복지요결에 공감하는 바가 있더라도 여기에 매이거나 이로써 다른 것을 재단하려 들지 않기 바랍니다. 저마다 자유롭게 생각하며 제 길을 갈 일입니다.

참조: 107쪽 '다름, 여지' | 복지광세 108쪽 '좋고 나쁨에 때가 있다', 111쪽 '하나는 이러하고' | 복지소학 59쪽 '貴賤有時', 62쪽 '隨緣素位', 63쪽 '時中之義'

정겨운 사람살이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복지인의 길을 간다